



인제문화

2015 | 제30집



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에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의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재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발간사



인제문화원 원장 남 덕 우

시집보내는 딸처럼 또 한 해를 보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연말이면 아쉬움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 충만함이 회복될 듯합니다. 이럴 때면 우리 인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제30집 인제문화>가 발간돼 아쉬움을 적잖이 달래줍니다.

<인제문화>에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번듯한 책들에서는 얻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에서 우리는 위안과 따뜻함을 얻습니다. <인제문화>가 인제문화원의 1년 사업을 담은 그릇을 넘어 우리 인제 사람들의 삶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제문화>에는 우선 한 해 동안 인제문화원이 해 온 사업이 예쁜 사진으로 담겨 있습니다. 사진의 출연자 대부분이 우리 인제 분들이라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몰랐던, 우리 향토사에 관한 숨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향토사를 읽으면 흥미진진하고 향토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제 분들의 글솜씨는 또 얼마나 좋은지요! <인제문화>에 담긴 시과 수필은 대부분이 우리 인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정겹고 살

갑습니다. 동네에서 만나 차도 마시고 잔도 나누는 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읽으면 직접 말로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백일장을 통해 입상하신 분들의 글을 신고 있어 거듭 축하해 드리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 인제서회 회원님들이 임서회를 통해 발표하신 작품을 다시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인제문화>를 보면 긴 겨울밤에 꽃감을 아껴 먹듯이 읽게 됩니다. 이 모든 글과 작품을 제공하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좋은 작품을 주셔서 <인제문화>가 빛이 납니다. 더불어 <인제문화>를 비롯한 한 해 사업을 하느라 수고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내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신임이사 위촉식

2015.2.12



이사회

2015.2.13



정기총회

2015.2.25



문화학교개강식

2015.3.10.





달집태우기

2015.3.04



지신밟기

2015.3.05



설악문화원연합회

2015.4.03



다도반 행사

장애인의날, 2015.4.21





춘계문화탐방

2015.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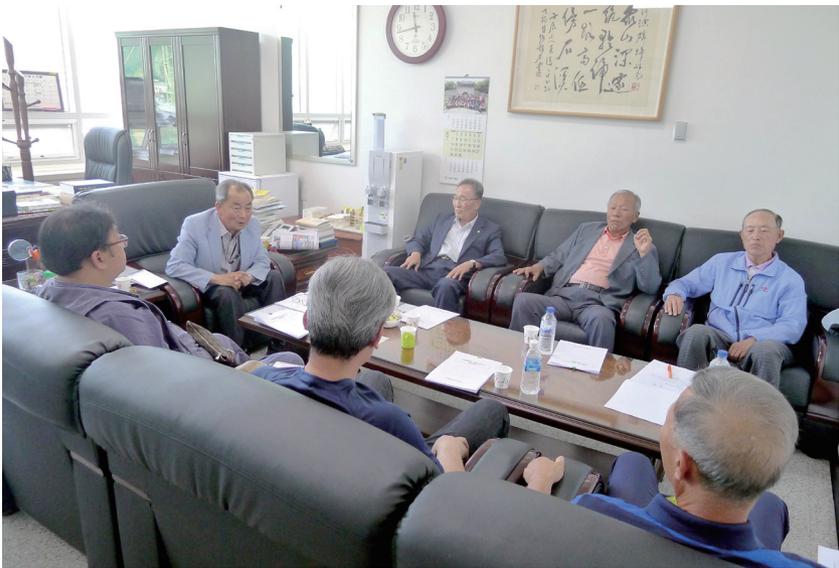
색소폰행사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전, 2015.5.28



합창단발표회

2015.5.30



향토사연구모임

2015.6.03





민요반활동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2015.9.02



민속경연대회

2015.9.10



민속경연대회2

2015.9.10



문화유산해설 양성자과정

탐방, 2015.9.22





장수노인 양로연

2015.10.02



한글, 한문반 전국회화대회참가

2015.10.03



합강제 거리행진

2015.10.03



내설악농악대활동

노인의날, 2015.10.29





무용반활동

국악한마당, 2015.10.29



장병그린캠프

다도교육, 2015.10.30



강원문화대축전

심영배 이사 공로상 수상, 2015.11.06



추계문화탐방

2015.11.13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은상, 2015.11.20



뗏목아리랑 소리국

2015.11.20



아코디언반 발표회

2015.11.28



추임새 공연

2015.12.01





인제군사물놀이경연대회

2015.12.03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목공예, 2015.12.04

차례 Contents

- 발간사
- 2015 문화사업

제1장 향토사

- 뒤바뀐 운명, 東學의 3대 지도자
_ 한승윤(인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_ 24

제2장 인제의 문화

- 전통가례 _ 이병준(인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_ 48
- 감자옹심이 _ 정무교(인제문화원) _ 86
- 메밀총떡 _ 정무교(인제문화원) _ 102

제3장 향토문예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회원 글

- 오정진 _ 세상 외 2 · 120
- 박돈녀 _ 술의 연가 외 3 · 123

- 허계홍 _ 봄의 무늬 외 2 · 1274
- 한명숙 _ 아주 오래된 책에서 외 2 · 130
- 이근구 _ 흙의 마음 외 2 · 133
- 전영숙 _ 설원 외 2 · 136
- 한용운 _ 존재와 삶, 그리고 봉사 · 139

기고문

- 원통이야기 _ 김경애 · 143
- 서울에 산다 _ 이주형 · 150

제4장 백일장 입상작품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하늘내린어르신백일장 입상작 _ 154

제14회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입상작품 _ 158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입상작품 _ 188

제5장 임서전

제19회 인제서회 임서전 _ 234

- 임원현황 _ 256
- 직원현황 _ 256
- 원고모집 _ 257



뒤바뀐 운명, 東學의 3대 지도자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의 생애(生涯)를 중심으로

한 승 윤

제 1 장

향토사

뒤바뀐 운명, 東學의 3대 지도자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의 생애(生涯)를 중심으로

한 승 윤 • 인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목차	I. 서론	III. 龜菴 金演局의 生涯
	II. 東學의 創道와 布教의 확대과정	IV. 결론

I. 서론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까지의 36년이라는 시간을 일제강점기¹라 부르고 있으며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록들을 찾아 볼 수 있으나, 1910년을 기점으로 한 여러 가지 중에서도 민족사말살정책²은 가장 악랄한 정책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역사왜곡 작업에 수 조원을 쏟아 부으며 오랜 기간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연유이다, 중국 지린성 집안(集安)에 소재한 고구려 광개토태왕비의 비문을 일본이 조작

1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당한 36년간(1910~1945)을 말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민족사말살정책: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강점이후 역사도 말살시키고자 하였는데 우리민족이 역사적으로 분열적이고 의타적이며 나약하여, 사대정신이 강한 민족이며 외침을 많이 받은 열등민족이라고 비하하였다. 또한 옛날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아온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그래야 안전하다는 식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주었다. 중국에는 한국사 교육을 폐지하고 본국사(日本史) 교육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족사학자들의 학술단체인 진단학회(震檀學會)는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역사 연구를 꾸준히 해나갔으나, 조선총독부는 이를 불순하게 여기고 해산토록 강요하여 결국 1942년에 해산되고 말았다.

한 사건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응하여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연간 수조원의 금전공세를 퍼붓고 있는 중국에 맞서 동북아역사재단³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고작 100억여 원의 연구소요 재원을 마련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며 관련 연구자들의 얼굴을 붉어지게 만들고 있다. 그런 재원으로 중국의 동북공정⁴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이 그러함은 심히 유감스럽다.

일본의 치밀한 역사왜곡 작업의 결실은 아마도 1938년에 마무리 된 조선사⁵ 편찬이 아닌가 여겨진다. 일본은 1910년 강점이후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전 35권의 조선사를 편찬하며 우리나라 역사서의 뿌리를 뒤집어버리고 잔인하게 파헤쳐 버렸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우리나라 역사서 왜곡작업에 한국인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개입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민족의 역사서를 왜곡하는데 최고 공로자였던 어떤 이는 해방이 되어서도 이승만 정권에 붙어서 국립대학교 교수직에 장관까지 맡았었으며, 작금의 우리나라 사학계가 오늘날까지 100% 식민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음은 그의 작품이었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보

3 동북아역사재단(東北亞歷史財團,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은 정부가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 영유권 주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2006년 9월 28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들 사이의 역사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상설기구 설립에 대한 법률에 의거 기존의 '고구려연구재단'과 통합되어 만들어졌다.

4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로,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를 뜻한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역사로 편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성립된 국가이며 현재 중국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므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역시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이다.

5 조선사(朝鮮史) : 이 책은 『조선사』라고 명명되었으나 문장으로 된 서술식 조선통사가 아니고, 연월일별로 주요한 역사적 사실을 간략하게 적기(摘記)하고, 그 기사와 관계되는 사료의 이름을 제시했을 뿐이다. 때문에 연구자의 편의를 위한 안내서적 사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색인이 있어 색인이 없는 원사료의 해당기사를 찾기에 편하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편찬 의도가 식민사학의 기본 자료로 삼기 위한 데 있고, 이 책을 간행한 이후 관련 원사료의 일반 열람을 봉쇄해 한민족사 연구에 해독을 끼치고, 우리 사학자들의 민족사 연구를 크게 제약하는 부정적 구실을 한 역사서였다.

아도 한번 뒤틀어지고 왜곡된 역사는 다시 바로잡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다.

1900년대 동학의 3대지도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 선생에 대한 기록들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왜곡되고 있기에,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일제강점기의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했었다. 기록들은 1905년 동학의 천도교 개명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살펴보고 천도교 개명 이후의 기록은 교단사(敎團史)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구암 김연국 선생의 1905년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천도교 측 기록과 구암 김연국 선생의 시천교 측 기록들을 중심으로 빠짐없이 읽고 정리하는 절차를 거쳤다. 다만, 구암 김연국 선생이 옥고를 치르고 나온 이후인 1905년부터 상제교(上帝敎)를 창시한 1925년까지의 기록은 상제교역사(上帝敎歷史)⁶에 대부분 근거하였음을 밝힌다.

사실 동학의 2대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신사(神師)의 수제자들인 삼암(三菴)중 가장 나이도 어리고 입도시기가 늦은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가 동학의 3대 교주로 도통을 전수 받은 과정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후 천도교의 대도주가 되었다가 의암 손병희와의 불화로 일진회(一進會)로 들어가 대례사가 되었다는 기록이 정설(定說)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연유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출신으로 해월 최시형 신사의 제자들 중 가장 먼저 동학에 입도하였고, 해월 최시형 신사가 1898년 6월 2일 서울 육군교도소에서 교수형을 당할 때까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구암 김연국 선생의 일대기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였다. 선생에 대하여 왜곡되어 전해지고 있는 친일 관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6 상제교역사(上帝敎歷史): 최유현(崔流鉉)이 시천교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불분권 1책이다. 1920년 최유현이 편집 간행하였으며 권두에 구암 김연국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간기가 있다. 상·하편으로 구분하여 상편에 제1세 교조(敎祖)이자 제세주(濟世主)인 수운 최제우의 사적을 실고, 하편에 제2세 교주이자 대신사(大神師)인 해월 최시형의 사적을 실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구암 김연국을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종통(宗統)을 이은 사람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천도교창건사나 시천교종역사⁷에서 기록되어 있는 구암 김연국 선생에 대한 부분은 의암 손병희가 동학(=천도교)의 3대 교주가 되어 법통을 이어받은 이후 만들어진 기록들로서, 철저하게 의암 손병희 측에 유리하게 기록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하지만 반대편이라 할 수 있는 시천교단 측의 기록들은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였다.

더불어 3대 교주 의암 손병희의 그늘에 가려 종교적 변절자로 낙인 되어 남아 있는 구암 김연국 선생과 관련한 천도교교단사와 종교적 뿌리를 비교적 내실 있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자료와 기록만으로는 100여 년 전 역사를 면밀하게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란 생각이다.

따라서 금번 향토사 연구발표회를 발판으로 삼아 구암 김연국 선생의 일대기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것만이 인제 경진판(庚辰版)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을 시작으로 하여, 대한민국 근대민중운동의 산실(産室) 역할을 담당하였던 인제군의 근현대사적인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인제 경진판(庚辰版) 『동경대전』 간행에 이은 무자판(戊子版) 『동경대전』과 경인판(庚寅版) 『동경대전』 간행에 이르기까지, 동학교단에 있어서의 인제접(麟蹄接)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인제 접 교인들의 1894년 동학농민운동 관련 부분까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된다.

7 시천교종역사(侍天教宗釋史): 동학의 일파인 시천교(侍天教)에서 종단(宗團)의 내력을 실은 시천교종역사(侍天教宗釋史)는 1915년 발행된 책이다. 시천교종역사에는 교조 최제우(崔濟愚)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신원(伸冤)운동과 동학포교를 공인해 달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청주지역 동학본부인 청주군(淸州郡) 송산리(松山里) 손성렬(孫星烈)의 집에서 작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손성렬은 송암 손천민의 자(子)로 동학 대접주로 활동하다가 1894년 농민전쟁의 와중에서도 살아남아 피신생활을 오래했지만 1900년 체포되어 서울에서 참형을 당했다. 동학운동에 있어 송암 손천민의 활동은 서삼촌인 의암 손병희를 훨씬 앞지르고 있으나 3.1운동당시 민족대표 33인중 수위(首位)인 의암 손병희의 그늘에 가려 그의 진가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II. 東學의 創道와 布敎의 확대과정

1. 東學의 創道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 왕조의 구조적 모순은 극에 달하여 봉건 왕조의 붕괴 조짐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서양 열강세력의 침탈이 시작되어 그에 맞서서 극복하는 것이 해결해 나아가야 할 최우선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렇듯 어려운 시대적 상황 아래에서 수운(水雲) 최제우(崔濟우) 대신사(大神師)는 1860년 동학을 창도하게 되었다.⁸

동학은 서양 열강 세력들의 침략과 함께 국내에 전해져 들어온 서학(西學=천주교)에 대응하여 만들게 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왕조가 나라가 세워지고 500년이라는 세월동안 유교(儒敎)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사용하였던 시기에 기존의 통치 지배이념을 배척하는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의 행동은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것으로서 동학 창도 시기부터 이미 역사의 큰 획을 긋는 대단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수운 최제우는 몰락한 양반출신으로 서출이라는 자신의 출신 성분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신분제 사회라는 조선 사회의 체제적 모순을 개혁하고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간절히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연유로 조선의 통치 이념인 유학(儒學)과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오던 민간토속신앙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종교를 창도하여 서양 열강의 세력에 대항하고자 한 것이다.

수운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할 당시의 조선사회는 사대주의(事大主義)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흐리고 있었으며, 그런 와중에 시대적 요청을 자각하고 새로운 도리를 깨닫게 된 것이 동학의 창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⁹ 유교(儒敎) 가문에서 태어난 수운 최제우는 유교를 공부하였으나, 조선의

8 수운 최제우는 외세의 침략과 봉건 사회의 모순에 반대한 민족종교인 동학의 교조(敎祖)이다. 한때는 집안 살림이 어려워 장사를 하거나 의술과 접술에 관심을 보였으며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1860년 4월 5일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통하여 동학을 창도하여 1863년에는 경상도,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경기도에까지 교세를 펼쳐 지방 종교 조직인 접소 13개소를 확보하기까지에 이르렀다.

9 유동식,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제3편 수운의 동학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p.153

타락하고 쇠퇴한 사회 현상의 원인이었던 유교에서는 구원의 능력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후 수운 최제우는 20세에 집을 나오게 되어 불도(佛道)에도 정진을 하였었고 서학(西學=천주교)에도 접근을 하였으나, 결국에 그가 내린 결론은 유교, 불교, 천주교 등 구태를 벗지 못한 일반 종교로는 어려운 지경에 처한 민족을 구원할 방도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고향인 경주로 돌아와서는 스스로 수행정진에 힘썼으며 1860년 4월 5일 마침내 종교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서학(천주교)에 대응하는 종교라 하여 동학이라 이름을 지었다.¹⁰

수운 최제우는 오랜 수도 끝에 득도하여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짓고 동학을 창도하였다. 동학이 주장하는 사상은 시천주(侍天主) 신앙을 통해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후천개벽을 주장하면서 적서나 반상의 차별 없이 누구나 천주를 마음에 모시면 신분에 관계없이 만민평등을 이룬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수운 최제우의 ‘시천주 사상’은 평등과 민본정신을 본질로 하여 국가와 백성을 구제하려는 위민개혁 사상이라 할 수 있다.¹¹

동학은 1860년대 초에는 경상도 지역 중에서도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이 이루어졌으나,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조인 수운 최제우를 흑세무민의 죄로 처형하였다. 그 후 경상도 북부지방인 포항, 영해를 구심점으로 삼아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복원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1871년에 동학교도인 이필제의 교조신원운동으로 동학은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그나마 근근이 닦아 놓은 포교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교조 수운 최제우의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기반을 이필제의 교조신원운동으로 인하여 잃은 이후에는 강원도 영서지방을 근거로 하여 조직복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강원도 출신 인물들이 조직복원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와 같은 노력은 교단 조직의 정비, 경전의 집성, 새로운 의례의 창제 등으로 이어져 점차 본격적인 포교활동의 기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0 김삼웅, 「사건으로 본 한국의 종교사」, 『종교, 근대의 길을 묻다』, 인물과 사상사, 53쪽

11 김삼웅, 「사건으로 본 한국의 종교사」, 『종교, 근대의 길을 묻다』, 인물과 사상사, 53

2. 東學의 江原道 地域 傳來

1860년 4월 5일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는 이후 약 1년 동안 동학의 이론화 작업을 추구하였으며, 새로운 도(道)로서 동학의 이론과 형식을 정립하고 보완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1861년에 포덕문(布德文)을 지은 후 동학의 포교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863년 8월 14일 수제자 해월 최시형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여 해월 최시형이 제2대 교주가 되었다.

도통 전수에 앞서 수운 최제우는 1863년 12월 조정에서 과건된 선전관인 정운구(鄭雲龜)에 의해 제자 22명과 함께 체포되었는데, 수운 최제우와 함께 체포된 제자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징배에 처해졌다. 제자들 중에서 이경화(李慶化)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으며 영월로 귀양 온 이경화가 소밀원(蘇密院 또는 小美院)¹²의 장기서(張奇瑞)에게 처음으로 동학을 포교하였다.¹³

이후 1870년 10월경 수운 최제우의 유족(부인, 두 아들, 세 딸)이 양양의 동학교도 공생(孔生)의 주선으로 영양(英陽) 용화동(龍化洞) 상죽현(上竹峴)에서 영월의 소밀원으로 이주하였다. 1871년 3월에는 교조신원 운동 이후 관병의 추격을 받는 몸이 된 해월 최시형도 영월의 소밀원으로 일시 피신하였다. 이로써 동학의 조직적 기반이 영월 지방으로 옮겨져 영월 지방이 1870년대 동학의 재건 과정에서 대표적인 비밀 포교지가 되었다.

강원도는 동학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영월, 정선 지방을 중심으로 한 동학의 포교 활동이 점차 뿌리를 내리면서 교세가 확장되어, 1880년 음력 6월 15일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서는 동학 경전인 『東經大全』 목판본을 동학 역사상 최초로 간행하여 동학교문은 경전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펼칠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12 지금의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소미론 마을을 말한다.

13 양양이 최초의 포교지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교조인 수운 최제우 대신사의 순도(殉道) 이후 동학교단을 이끌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신사는 1871년 3월 10일 같은 동학교인이었던 이필제의 강력한 권유로, 영해에서 수운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제1차 교조신원운동¹⁴을 전개하였으나 해월 최시형의 양자(養子)인 최준이(崔俊伊) 등 다수의 희생자를 만들며 실패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해월 최시형은 강원도 태백산령을 중심으로 은거하면서 비밀리에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강원도를 중심으로 동학을 재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충청과 호남으로 포교활동이 이어지는 중간적 역할을 하였다. 1870년대 강원도를 중심으로 인제지역과 연관된 동학의 역사적 사건을 표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일 시	내 용
1864년 3월	수운 최제우의 제자인 이경화가 영월로 귀양을 가게 되어 영월 소밀원의 장기서에게 첫 포교를 함.
1864년 4월	수운 최제우의 유족인 박씨 부인과 장자 세정과 딸 셋이 민사업의 주선으로 강원도 정선의 문두곡으로 이주함.
1869년 2월	양양 교인 최희경, 김정단 등이 영양 용화동 댁치에 은거하는 해월 최시형을 방문하여 가르침을 받음.
1869년 3월	해월 최시형이 박춘서와 양양 지역을 순회하며 포교 활동을 펼침.
1870년 10월	수운 최제우의 유족들이 영월의 소밀원으로 이주함.

14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 1871(申未)년 3월 10일 밤 이필제(李弼濟)를 중심으로 한 동학교도들이 경상도 영해부(寧海府) 관아를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이날은 동학의 창도자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가 1864년 3월 10일 대구장대에서 처형된 지 7년이 되는 수형일(受刑日) 날이었다. 봉기한 무리들은 유건(儒巾)을 쓰고 청주의(靑周衣)를 입어 복장을 통일하였으며, 동학교도들은 청(靑), 일반 평민들은 홍(紅) 등의 군호(軍號)를 정할 정도로 치밀한 사전 거사 계획에 따라 행동하였다. 이들은 동학교도와 평민 5백여 명을 거느리고 야간에 영해관 부에 난입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부사(府使)를 체포하여 논죄할 즈음에 관병(官兵)과 충돌이 일어나자, 그 자리에서 부사를 죽이고 성을 점거한 후 자진해서 다음날 물러난 사건으로 일명 영해민란(寧海民亂), 신미아변(辛未衙變)이라고 한다. 영해민란(寧海民亂)은 동학교도(東學敎徒) 이필제(李弼濟, 1863년 입교)가 진주작변(晉州作變) 이후 진천(鎭川)작변의 동모인(同謀人)인 김낙균(金洛均)과 함께 일으킨 난이다. 그러나 이 봉기는 일반 민중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여 다음날인 3월 11일 오후부터 봉기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여 닷새만인 3월15일 완전히 진압되었다.

일 시	내 용
1871년 3월	영해 교조신원운동의 실패로 해월 최시형과 강수 등 일행은 수운 최제우의 유족이 은거한 소밀원으로 잠시 피신함.
1871년 5월	해월 최시형과 강수 등 영월 정진일(鄭進一)의 집에 은신함.
1871년 8월	해월 최시형과 강수 일행, 영월 직동 박용걸(朴龍傑)의 집에 은신.
1872년 1월	수운의 長子 세정이 인제 귀둔리에서 체포되어 양양 관아에 갇힘.
1872년 4월	해월 최시형과 강수 일행, 정선 무은담(霧隱潭) 유인상(劉寅常)의 집에 은신.
1872년 9월	수운 최제우의 유족들, 정선 미천(米川, 싸내)으로 이주.
1872년 10월	해월 최시형과 강수, 전성문, 유인상 등 함백산 적조암에서 49일 기도 시작.
1875년 10월	해월 최시형, 정선 무은담 유인상의 집에서 용시용활 법설을 발표하고 이름을 경상(慶翔)에서 시형(時亨)으로 개명 함.
1878년 7월	해월 최시형, 정선 무은담 유인상의 집에서 개접(開接)
1879년 3월	해월 최시형이 강수, 김연국과 함께 영월, 인제, 홍천 등지를 순회하며 포교 활동을 펼침.
1880년 6월	해월 최시형, 인제군 남면 갑둔리 김현수(金顯洙)의 집에서 『東經大畵』 간행. 100여부를 인출(印出)하여 음력 6월 15일 고천식을 올림.
1893년	보은 장내리에서 전개된 척왜양창의 운동에 강원도 동학교도 관동의 이원팔(李元八) 대접주와 홍천의 차기석(車基錫) 대접주 등이 대표로 800여 명이 참가하여 반봉건, 반외세 투쟁의 의지를 불태움.
1894년	강원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반봉건 반외세 투쟁에 적극 참여.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 삼남지방에서 전개.

Ⅲ. 龜菴 金演局의 生涯

1. 東學 入道와 海月 崔時亨 關聯 記錄

구암 김연국이 동학에 처음 입도한 것은 1872년이다. 1857년 4월 27일 출생 후 2개월 뒤인 4월 27일에 부친이 사망하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으며, 집안 산림이 너무나 가난하여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숙부 김병내(金秉籙)의 집에 의탁하여 지냈다. 숙부 김병내의 학문이 깊어 구암 김연국이 기초 학문을 수업할 수 있었으며 많은 서적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구암 김연국의 숙부 병내(秉籙)는 그의 재종(再宗) 형제인 영월(寧越) 광탄리(廣灘里)에 거주하는 병철(秉喆: 자 順瑞)과 평창(平昌) 봉평(蓬坪)에 거주하는 병식(秉弒: 자 士衿)등과 자주 교류하면서 동학을 접하게 되었다. 해월 최시형이 영월과 정선(旌善)등지에서 포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는데 병내(秉籙)가 이때 해월 최시형을 만나게 되어 동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872년 해월 최시형은 수운(水雲)대신사의 장남 세정(世貞)이 양양옥(襄陽獄)에 갇혀 있음으로 소식이 궁급하여 차자인 세청(世淸)과 강수(姜洙)와 양양에 이르러 탐문한 결과,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화가 미칠까 염려되어 인제군 남면 무의매리(舞依梅里) 김병내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었다. 이때에 15세이던 구암 김연국이 처음으로 해월 최시형을 만나게 되고 제자가 되었다.

구암 김연국은 이때부터 수운(水雲) 대신사의 차자인 세청(世淸)과 더불어 해월 최시형과 충청도(忠淸道) 영춘군(永春郡) 남면 의풍리(儀豐里)에 가서 머무르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게 되었다. 영춘군 남면 의풍리에서 김연국과 함께 해월 최시형을 모시던 이들은 정선군(旌善郡) 교인 신정언(辛定彦), 신치서(辛致瑞), 홍문여(洪文汝), 류계홍(劉啓弘), 최영하(崔永夏), 김해성(金海成), 방자일(方子一), 안순일(安順一), 박용걸(朴龍傑), 영월군 교인 장기서(張基瑞), 최중섭(崔重燮), 박봉한(朴鳳漢) 등 이었다.



구암 김연국 선생 초상

구암 김연국은 1874년 김병내, · 김연순(金演淳), 홍순일(洪舜一)등과 해월 최시형의 피신지를 단양군(丹陽郡) 남면 도솔봉(兜率峯)아래 사동(寺洞)으로 옮겼다. 그 해 3월에는 해월 최시형이 안동김씨를 처(妻)로 맞이하였는데 구암 김연국의 집에서 우례(于禮)를 행하였으며, 홍순일과 힘을 모아 집 뒤 유벽한 곳에 새로 집을 지어 해월 최시형을 모셨다.

1875년 10월 28일 해월 최시형이 정선에 있는 유시헌(劉時憲)의 집에서 설법제(說法祭)를 행하였는데 이때 구암 김연국이 봉로자(奉爐者)로 참여하였다. 이듬해 4월에는 인제의 김연호(金演鎬)집에서 설법제(說法祭)를 행하였는데, 참여자는 접주인 김연호를 비롯하여 장춘보(張春甫), 이은보(李殷甫), · 김종여(金宗汝), 김경식(金卿植), 김관호(金寬浩), · 이윤희(李允喜) 등이며 구암 김연국은 집례(執禮)로 참여하였다.

1877년 10월 3일에는 구성제(九星祭)를 행하였는데, 강수, 김시원(金時元), 유시헌, 김경화(金敬和), 심시정(沈時貞), · 장춘보, · 김치운(金致雲), 장인호(張麟鎬), 김영순(金永淳), 김문여(金文汝), 안교백(安教伯), 최창익(崔昌翼), · 류인상(劉寅常), 윤종현(尹宗賢), 안교상(安教常), 전세필(全世

彌), 허찬(許燦), 최기동(崔基東), 안교일(安教一) 등이 참여하였으며, 구암 김연국이 헌관(獻官)을 맡았었다.

1879년 윤3월에는 강시원(姜時元)과 더불어 해월 최시형과 영서(嶺西)로 이동하였다. 영월군 거석리(巨石里) 노정식(盧貞植)의 집을 거쳐, 인제군 남면 갑둔리(甲屯里) 김현수의 집에 이르러서는 설법제식(說法祭式)을 행하였는데, 제례에 참여한 자는 김계원(金啓元)·장춘보, 김현수, 이윤희(李允喜), 이은보(李殷甫), 김관호(金寬浩), 김종여(金宗汝), 김경식(金京植), 장희용(張喜用) 등이며, 구암 김연국은 대축(大祝)으로 참여하였다.

1880년 1월에는 해월 최시형과 강시원(姜時元), 전시황(全時晁)과 더불어 무의매리(舞依梅里) 김연호의 집에서 인등치제(引燈致祭)를 설행하고, 이어서 김현덕(金顯德) 집에서 행하였으며, 2월에는 김진해(金鎭海)의 집에서 설행하였다.

같은 해 5월 12일에는 『동경대전(東經大全)』간행소를 인제군 남면 갑둔리(甲屯里) 김현수의 집에 개설하여, 6월 14일에 1백여 권의 간행을 모두 마쳤다. 이때 비용은 모두 인제 접중(接中)에서 부담하였으며, 이튿날 고유제(告諭祭)를 올렸다.

2. 東學農民運動 關聯 記錄

구암 김연국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 당시 대도소장(大道所長)을 역임하며 충북 보은에서 황하일(黃河一), 권병덕(權秉德) 등과 함께 거병(擧兵) 하였다. 구암 김연국은 스승인 해월 최시형 신사의 총 봉기령에 따라 전투에 참여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24일 충주 외서촌(外西村) 되자 니마을에서 마지막전투를 벌인 후 강원도 인제 남면 느릅정(유목정)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다.

구암 김연국이 노구(老軀)의 몸인 스승을 업고 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을 이용하여 원주와 횡성, 홍천을 거쳐 인제 남면 느릅정(유목정)에 도착한 날은 1894년 음력 12월 말일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기록에는 손병희,

손병흠, 손천민, 김연국 등 일행과 함께 홍천에서 머물다가 이듬해인 1895년 1월에 동학교도인 최영서의 집에 도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해월 최시형 신사와 구암 김연국 등 일행은 12월 24일 충주 외서촌을 출발하여 1개월여를 고생한 끝에 인제군 남면 느릅정이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느릅정이에 관하여 전해지는 기록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布德 26年(1895) 乙未 正月에 神師 麟蹄郡 崔永瑞家에 潛居하사 孫秉熙, 孫秉欽, 孫天民, 金演局으로부터 道理를 講하시다.¹⁵

위와 같은 기록으로 미루어 해월 최시형이 남면의 느릅정이에 은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시천교종역사』에 의하면 해월 최시형은 1년 정도를 느릅정이에 머무르며 포덕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1896년 1월에 느릅정이에 도착하여 같은 해 12월 5일 원주 치악산 수레너미로 이주할 때까지 머물렀었다.

해월 최시형이 인제 남면의 느릅정이를 은신처로 택한 것은 자신이 1880년 경진년에 『東經大全』을 최초로 간행하였던 유서 깊은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느릅정이는 깊은 산중에 위치한 외진 곳으로서 은신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였기 때문이다.

인제 느릅정이에 도착하기 전에 해월 최시형과 그를 따르던 동학교인들은 홍천을 들어서 인제로 오는 도중에 홍천에 은신을 하려던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홍천지역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차기석, 심상현, 오창섭 등이 기포한바 있으므로 관의 지목이 심하여 홍천을 벗어나는 더 북쪽 지역을 선택한 해월 최시형의 결정으로 인제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제군 남면의 느릅정이를 은신처로 삼고 난후 해월 최시형은 외부출입을 일절 하지 않고 은둔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제군 남면은

15 『조석헌역사』에는 12월말 저녁에 인제 느릅정이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충주 외서촌을 출발한 것이 12월 24일인데 교통이 불편한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일주일 사이에 강원도 인제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초기 동학의 포교과정에서부터 김연국¹⁶의 이름이 기록에 전할만큼 동학교도들의 교세가 탄탄한 지역이었으므로, 인제집에서 해월 최시형의 은둔 생활을 뒷바라지 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학교도인 최영서(崔永瑞)의 가정형편 역시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으므로 항상 먹을거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구암 김연국과 손병희와 손병흠 등 제자들이 멀리까지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여 스승의 어려운 생활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였다.¹⁷ 또 다른 기록에는 이종훈(李鍾勳)¹⁸이라는 동학교도인이 논 10두락을 팔아 의복과 돈 200냥을 해월 최시형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기부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

『친도교창건사』에 남아있는 해월 최시형의 인제군 남면 느릅정이에서의 생활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자-환란에 처 하여는 환란의 도를 행하며 곤궁에 처 하여는 곤궁의 도를 행함이 가하니 제군은 모두 천리(天理)에 순응하며 기회를 기다리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월 최시형은 자신의 총 기포령 발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동학교도들이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하여 목숨을 잃게 된 일들과 교조 최제우의 유지를 받들어 동학을 민족종교로서 발전시키고 풍전등화 같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며 민씨 수구파들의 매국행위에 대해 징치하여야 하는 등의 중차대한 사명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해월 최시형이 인제 남면 느릅정에서 지낸 1년여의 기간 동안을 환란의 도(道)와 곤궁(困窮)의 도를 스스로 체험한 기간이라 말씀한 것이 『조석헌역사(曹錫憲歷史)』¹⁹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납회석(臘晦夕)에 이 땅(인제 느릅정)으로 왕림하신 후 지금까지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오는 사람만 만나보니 이는 수옥(囚獄)이나 다름이 없었다. 고 남아있다.

16 『시천교종역사』에도 인제집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인제집의 접주를 역임한 사실은 확실치 않음.

17 『동학연구』 9,10 合集, 360쪽

18 『天道敎書』, 311쪽

19 『曹錫憲歷史』, 480쪽

위의 기록에 따르면 臘晦夕(납희석)이라고 하였는데, 납희석이라 함은 12월말일 저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12월에 이미 인제 느릅정이에 도착하였다는 기록으로 『시천교종역사』에 기록된 해월 최시형의 인제 느릅정이 도착 일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제군 남면 느릅정(與木停) 마을은 현재는 옛 모습이 전혀 없으며 다만 유목정이라는 지명이 도로표지판에 남아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예로부터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교통이 불편하고 험한 산세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은거하기에 적합하였던 느릅정과 해월 최시형 신사 그리고 구암 김연국 선생 관련 부분은 일부라도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3. 天道教 改稱 이후 關聯 記錄²⁰

3.1 독립만세운동의 출발점이라 할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천도교 15인, 크리스트교 16인, 불교 2인의 종교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다. 천도교의 대표는 의암 손병희이며 크리스트교의 대표는 이승훈이고, 단 2명의 승려만이 참여한 불교계 대표는 만해 한용운이라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만세를 주도한 천도교 교단과 교주인 의암 손병희는 일약 민족의 영웅이 되어버리고 애국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앞서 1898년 관의 지목이 심해지자 스승의 제를 모시려다 총탄을 맞고 쓰러진 후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구암 김연국을 내버려두고 일본으로 망명을 하였던 의암 손병희가 한순간에 애국자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천도교단이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이후 대부분 기록에서 구암 김연국을 친일이나 종교적 배교자이니 하며 매도하는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월 최시형의 삼암 중 가장 먼저 동학에 입도한 구암 김연국을 친일세력으로 몰아 부치게 된 배경에는 천도교로 개

20 최병헌,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에 관한 연구」, 2015 에서 내용 발췌

칭한 이후 구암 김연국이 보여준 종교적 행보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구암 김연국은 1872년 동학에 입문(入門)한 후 스승인 해월 최시형의 충애를 받아 서녀(庶女)와 혼인을 하고, 1896년에는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전발심법(傳鉢心法)을 받아 종통(宗統)전승을 하였으나 1898년 해월 최시형 사후 동학의 수령으로 지목되어 피신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00년 6월 2일 공주(公州) 무성산(武盛山)에서 향례(享禮)를 거행하던 중 관헌에 체포되어 4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1904년 12월에 석방되었다.

그 후 의암 손병희와 다시 만나 의논을 거쳐 1905년 동학(東學)을 천도교(天道敎)로 개칭하기도 하였으나, 뜻이 서로 맞지 않아 이용구(李容九)가 창도(創道)한 시천교(侍天敎)에 들어가 대례사(大禮師)가 되었다. 그러나 이용구가 죽은 뒤 송병준(宋秉俊)·박형채(朴衡采) 등이 교권(敎勸)을 마음대로 좌우하게 되므로 여기서 다시 탈퇴하여 1913년 서울 가회동에 시천교총부(侍天敎總部)를 세웠다.

구암 김연국은 1920년 김두한(金斗漢), 정창신(鄭昌晨), 유인영(柳仁榮)·등을 충청남도 계룡산 신도안〔新都內〕으로 보내 장차 시천교(侍天敎)의 본부를 이곳으로 옮길 준비를 시켰다. 1921년에는 용동리(龍洞里)에 대본원(大本院)을 건립하였고 1922년에는 석계리(石溪里)에 본 교당을 건립하였다. 4년여의 준비작업 끝에 2천여 명의 신도들을 이끌고 1925년 6월에 계룡산으로 이전하여 교명을 상제교(上帝敎)로 바꾸었다.

그 뒤 활발한 경제활동과 교육활동, 사회사업을 전개하였다. 신도안 일대의 토지가 대부분 상제교의 소유였으며 10정보나 되는 상전(桑田)을 경영하기도 하고, 신도초등학교의 전신인 신도유신학교를 세워 교육에도 종사했다. 자성보양원(自省保養院)이라는 자선기관과 수예원(手藝院)이라는 인재양성 기관도 운영했다. 이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1944년 8월 7일 신도안에서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구암 김연국이 세운 상제교(上帝敎:일명 天進敎)의 신앙의 대상은 한울님(上帝, 天主)이다. 수운(水雲), · 해월(海月), · 구암(龜菴)을 삼성인(三聖人)이라 하여 한울님의 화신으로 신봉 한다. 천단(天壇)을 설치하여 여기에 제세주(濟世主) 최수운(崔水雲) 대신사(大神師)· 최해월(崔海月) 대

법사(大法師)· 구암 김연국의 영정을 안치하고 있다.

상제교(上帝敎)의 교리(敎理)는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음으로 사람이 곧 한울이라, 사람 섬기기를 한울 섬기듯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세를 성세화(聖世化)함으로서 포덕천하(布德天下)· 광제창생(廣濟蒼生)· 보국안민(輔國安民)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종통(宗統)은 역시 동학사상인 ‘시천주(侍天主)’에서 비롯함으로 천도교의 교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결국 동학사상으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꾀하고자 하는데 전념한 것이다.

의암 손병희와 결별한 이유도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정치적 활동에 치우치는 행태에서 비롯되었으며, 시천교(侍天敎)에서 출교(出敎)할 때도 역시 송병준(宋秉俊)이나 박형채(朴衡采)등이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교권(敎權)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구암 김연국이 추구하는 동학정신을 지키기 위한 종교 지향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구암 김연국을 친일세력(親日勢力)으로 매도(罵倒)하는가 하면 개인의 부(富)나 쟁기는 부도덕한 종교인으로 폄하(貶下)하고 있다. 구암 김연국이 친일세력(親日勢力)이었다면 왜 일경(日警)으로부터 심한 감시를 당하며, 평생을 은둔(隱遁)자로 쫓기며 살아야만 했을까?

구암 김연국은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日帝侵略下韓國36年史)』에 기록된 자료를 보면 1921년 9월 9일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에 대한민족대표단명단(大韓民族代表團名單)에 혈성단(血誠團)의 일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년 11월 19일자 독립신문(獨立新聞) 1면에는 시천교(侍天敎) 대표로 명단에 올라있다.

이 두 자료를 보더라도 구암 김연국은 친일파(親日派)인 이용구나 송병준 등과 뜻을 같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천교(侍天敎) 대표직에 있으면서도 혈성단(血誠團)의 일원으로 대표단 명단에 올라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보다 앞서 같은 해 7월 9일 경상북도경찰부고등경찰요사(慶尙北道高等警察要史) 조선총독부편 조선의 유사종교(朝鮮總督府編朝鮮의類似宗教)에 <이달 중에 金派侍天敎를 分設한 金演局>의 내용을 보면

이달 중에 金派侍天教를 分設한 金演局은 종래 侍天教가 一進會의 後身으로서 政治的色彩가 있고 또 賣國奴 등의 評이 있어 布教上世人의 誤解를 避하기 위하여 上帝教라 改稱하고 京城 堅志洞에서 忠淸南道 論山郡 豆磨面에 本部를 移轉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 예문(例文)에서 ‘정치적 색채가 있고, 또 매국노(賣國奴) 등의 평이 있어 포교(布教)상 세인(世人)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상제교(上帝教)라 개칭하였다고는 하나, 당시에 우후죽순(雨後竹筍) 처럼 유사종교(類似宗教)단체가 생겨남으로 정부나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이를 승인(承認)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시천교(侍天教)가 지향하는 것이 종교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친일(親日) 지향적이기 때문에 분파(分派)하였다는 점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앞선다.

상제교는 천도교와 결별한 구암 김연국에 의해 주도되면서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중지할 것을 표방하고 충남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주해왔다. 따라서 김연국은 계룡산과 신도안이 갖고 있는 정치·혁명적 함의(含意)를 배제하기 위해 애썼으며, 신도안을 새로운 국가의 서울이 아니라 종교의 서울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 혁명적 성격의 탈색은 이후 이곳에 자리 잡은 많은 신종교나 민간신앙 단체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이곳에 자리 잡은 단체들은 모두 현실사회의 부정과 심층지지로의 피난 및 은둔, 그리고 후천선경(後天仙境)의 도래를 확신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탈정치화의 특성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한정된 자료를 통하여 구암 김연국의 생애와 종교적 일대기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주변 강대국들의 입김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끝까지 노력하였다. 구암 김연국은 진정한 동학교단의 지킴이였으며 스승인 해월 최시형 신사(神師)의 유지를 유일하게 받들었던 제자였다.

또한, 망해가는 나라 조선에서 동시기 최대의 신도를 거느린 종교지도자로서 그가 느낀 절박함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로였을 것이란 생각이다. 연로한 스승을 등에 업고 그것도 백설이 휘날리는 엄동설한에 충주 외서촌 되자니 마을을 출발하여, 인제군 남면 느릅정이에 도착하기까지의 힘든 여정 속에서도 오직 조국의 안녕을 빌고 빌었던 구암 김연국이었던 것이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의암 손병희의 국외도피 제의에 구암 김연국도 인간으로서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승의 뜻을 받들고 교단 최고지도자로서 그를 지켜보는 수백만의 동학교인들을 두고 일본으로의 도피는 차마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기에 스승인 해월 최시형 신사의 기일에 관에 체포되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구암 김연국의 후손 중 어느 누구도 동학교단을 포함한 종교인의 길을 걷지 않고 있음은 후학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 대신에 구암 김연국의 유지인 교육만이 나라를 되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판단하여, 충남 계룡산 신도안(新道內) 등에 터전을 잡은 이후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열성을 다했던 것이다.

후일 천도교로 개칭한 동학교단에서도 후학을 기르는데 같은 뜻을 세워 서울의 동덕여자고등학교와 동덕여자대학교를 세워 미래교육에 앞장서는 본보기가 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그들이 세운 보성학교 등이 아직도 명성을 유지하며 우리나라의 동량들을 길러내고 있음을 금번 연구를 통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이 근대민중운동사의 초석이 되었고 갑오동학농민운동의 밑거름 역할을 하였던 강원도 인제군 남면 지역의 동학교인들을 포함한 구암 김연국의 활약상들이, 동학사(東學史)나 천도교교단사(天道教教團史) 혹은 시천교종역사(侍天教宗譯史) 등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의 상황에 미루어 유추해 보건데 소위 사대사학 또는 식민사학에 물들어 이러한 일체강점기하의 친일잔재와 유교적 사고의 수렁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당대 역사학계의 주류들이 지닌 내재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단지 구암 김연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월 최시형 신사와 교조인 수운 최제우 대선사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인 1909년 1월 15일 나철(羅喆)을 비롯한 오기호, 이기, 김윤식(金允植), 유근(柳瑾) 등이 더불어 공식 종교로 공포하고 후일 대종교로 개명한 단군교에 대하여 언급된 부분이 역사교과서에 등재되어 있고, 그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기록들이 국가보훈처를 포함한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대로 보존이 되어 있음에도 구암 김연국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지금까지 인제지역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뛰어난 지역출신의 인물이 없었던 까닭으로 지역인물을 향토사학습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번 연구를 계기로 구암 김연국의 활동 사항 중 인제지역의 동학 포교과정과 동학농민운동 이후 은신처로서의 인제지역과 관련 부분에 대한 모듬학습과 현장학습을 통한 역사학습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다.

향토사 보급 사업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역사적 유물과 유적, 향토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들을, 학습자 자신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다니며 현실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역사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오랜 세월이 걸친 향토관련 역사를 학습하며 지역의 당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보려는 능력과 태도를 견지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효과를 창출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동학농민운동이 단순한 종교적 차원이 아닌, 우리 것을 지키고 계승 발전시키는 대승적 차원의 해방운동 성격을 띠고 있었던 운동임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참고문헌 |

1. 자료

『東經大全』

『龍潭遺詞』

천도교회월보 제59편

천도교창간록 제1집

崔先生文集道源記書

大先生事蹟

吳尙俊, 本教歷史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9, 侍天教 宗釋史, 史藝研究所

天道教創建史(李敦化, 天道教中央宗理院, 1933)

東學史(吳知泳, 永昌書館, 1940)

海月神師의 生涯와 思想(金用天編, 天道教中央總部, 1969)

강원도사, 역사편, 강원도 1996

인제군사, 인제군, 1996

강원문화재대관, 도지정편II, 강원도 東學의 思想과 運動(崔東熙, 成均館大學
校出版部, 1980)

2. 연구 단행본

김득광, 『한국종교사』, 대지문화사, 1963.

안진오, 「동학사상의 연원」, 『한국근대민중종교사상』 학민글밭 9, 학민사,
1983.

조경달, 「동학농민운동과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 『한국근대사회의
형성과 전개 2 -갑신갑오기의 근대변혁과 민족운동』, 청아출판사,
1983.

한우근, 「동학과 농민봉기」, 일조각, 1983.

박맹수, 「해월 최시형의 초기행적과 사상」, 『청계사학』 3, 청계사학회, 1986

배형섭, 「강원도에 서린 동학농민군의 발자취」, 『역사비평』 계간11호, 역사
문제연구소, 1990 겨울.

이영호, 「1894년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변혁주체의 성장」, 『1894년
농민전쟁 연구 1』, 역사비평사, 1991. 13~28쪽.

오문헌, 『해월 최시형의 생활정치 사상 연구』, 연세대학교, 1994.

- 박준성,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 김양식, 『근대 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도서출판 신서원, 1996.
-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혜안, 1996.
-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국근대사상의』, 한올아카데미, 1997.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997.
- 유동식,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 최완기, 『역사학습의 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느티나무, 1997.
- 신순철 · 이진영,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998.
- 부산예술대학 동학연구소,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 한우근, 『동학농민봉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 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동학의 문화유적순례II(강원지역)』 9~10, 2001 349쪽~390쪽.
- 김삼웅, 『종교, 근대의 길을 묻다-사건으로 본 한국의 종교사』, 인물과 사상사, 2005.
- 오영교,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 『1862년 농민항쟁 연구』, 혜안, 2005.
- 오영교, 왕현종, 『원주독립운동사』, 『원주학술총서 제2권』, 원주시, 2005.
- 고건호, 「동학의 세계관에 나타나 전통과 근대의 변증법」, 『근대한국 종교문화의 재구성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2,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문화연구소, 2006.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사일지』, (주)계문사, 2006.
- 황선희, 『동학사상과 갑오농민전쟁』,
- 표영삼, 『동학1-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2004.
- 원영환, 「강원도지방의 동학과 동학혁명」, 『강원문화사연구제5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08.

3. 연구논문

- 박맹수, 「최시형 연구-주요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5.
- 김병용, 「강원도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연구: 강릉지방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재범, 「동학의 민중종교 운동적 성격과 그 사회적 기능」, 경북대학교대학

- 원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12.
- 이현희, 「동학혁명과 흥천 풍암리 전투 연구」,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9.
- 강필중, 「인물학습을 통한 의사결정능력 신장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사회과 교육학과 사회과 교육전공, 1999.2월.
- 고재범, 「경북북부지역의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연구-예천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최채숙, 「강원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일고찰」,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권장량, 「부산의 향토인물 탐구활동을 통한 역사의식 함양」,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2002.6.
- 강기영, 「동학의 시대적 배경과 성격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윤경운,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서술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8.
- 장영민, 「동학농민운동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민영, 「중학교 국사교육에서 인물학습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한국의국 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2007.7.
- 김영철, 「향토사학습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수업방안 연구-경기도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2007.8.
- 고아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인물분석 및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2009.2.
- 김동우,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고찰」, 근대사 산고, 고려대학교.
- 신영우, 「1894년 해월 최시형의 행적」, 충북대학교.
- 한상일, 「동학과 일본우익:천우협(天佑俠)과의 제휴에 관한 고찰」,
- 한승봉, 『江原道麟蹄地域崔時亨의行蹟과東學記念物』,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2010 석사학위논문.
- 『인제의 동학과 동경대전 재조명』,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 유영익, 연세대학교제대학원 석좌교수 「동학농민운동의 기본성격」, 2013.
- 최병헌,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에 관한 연구」, 2015.



전통가례

이 병 준

감자옹심이 / 메밀총떡

정 무 교

제 2 장

인제의 문화

전통가례 家禮

이병준 • 인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소 소장

* 이 글은 인제향토사연구소 이병준 위원께서 2015년 5월 21일에 재현된 전통혼례식을 보시고 관혼상제(冠婚喪祭) 의례대전의 혼례 편에 수록한 대례 흘기와 ‘차이점이 있어’ 그 부분을 짚어주신 원고다. 이 위원께서는 ‘가례를 연구하기 위해 전국을 수차례 돌면서 현장체험을 통해 공부하셨다’고 하신다.

| 참고사항 |

1. 전 안례 중 기러기 상을 집사자가 받아 오는데 기러기 상은 원래 신부측 어머니나 여자친족이 받아오는 것임.
※ 기러기를 가져다가(신부 집에서 대례를 거행 시) 쌀독에 떨어뜨려 그대로 바로 서면 첫아들을 낳고 옆으로 눕어지거나 하면 첫 딸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다.
2. 신부가 나올 적에 신랑이 마주보고 서 있는데 원래 신부출시 신랑이 보이지 않음. 신부가 나와서 제자리에 서 있을 때까지 반대 방향으로 외면해서 있다가 흘기에 의해 마주보고 바로 선다.
3. 세수하는 자리와 요령
세수하는 자리는 신랑은 남쪽방향 신부는 북쪽방향으로 하고 세수를 함. 단 신부는 합장을 하고 손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있으므로 종자욕지(從者沃止)라 하여 들러리가 손가락으로 세 번 물을 튕겨서 신부의 손 씻는 것을 대신한다.

4. 교배례가 끝나고 서천지례를 거치지 않고 신랑 신부가 서배우례로 술을 마시는데 이는 잘못 된 것임. 교배례가 끝나면 먼저 서천지례(誓天地醴) 즉 하늘과 땅에 맹세하는례로서 술잔을 눈높이 이상 들어 올려 하늘에 맹세하고 술을 땅에 세 번 부어 땅에 맹세한다. 지금은 마루나 돛자리를 깔았기 때문에 빈 그릇을 놓아 빈 그릇에 붓는다. 그 다음은 안주를 집어 빈 접시에 담는다.
5. 소나무와 대나무에 청실홍실이 없다, 소나무의 홍실과 대나무의 청실은 서배우례시 각 집사가 손목을 걸치고서 잔을 교환시에 누구의 잔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함이다. 신랑신부가 가슴 높이로 받들어 배우자에게 서약하고 술을 조금 마신다음 우 집사에게 주어 상대방에게 주면 받아서 술잔을 가슴 높이로 받들어 배우자의 서약을 받아들이고 남은 술을 마신 다음 잔 반을 되돌려 준다 좌우 집사는 잔 반을 받아 상에 놓는다. 안주는 먹지 않는다.
6. 근 배례시에 대례상 위에 있는 표주박 잔을 내려다가 술을 부어 신랑 신부가 술을 마시고 잔 반을 놓으면 각 집사는 표주박 잔을 회수하여 집례에게 주고 집례가 표주박 잔을 받아서 하나로 합쳐 대례상 중앙에 놓아 하나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청실홍실은 원래 대로 소나무와 대나무에 걸쳐 놓는다.

이상으로, 그 외에는 전통혼례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가례

家禮

관혼상제 冠婚喪祭

우리나라는 옛 부터 효(孝)와례(禮)를 숭상(崇尙)하였고 이에 뿌리를 두어 부모(父母)를 공경(恭敬)하고 조상(祖上)을 숭배(崇拜)하여 공자(孔子)님의 7대손인 공번(孔斌)이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고 칭찬할 만큼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금세기 현대화(現代化) 과정에서 서양문화(西洋文化)의 범람으로 모든 의식(儀式)이 변형되어 잘못 전해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고유의 윤리(倫理)와 도덕(道德), 예의(禮義)와 염치(廉恥)의 전통적(傳統的) 가치관이 전도되고 있다.

가례에는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가 있어서 인류(人類)의 기본 의식이며 부모와 조상에 대한 보은(報恩)과 감사(感謝)를 나타내는 예의범절이고 우리의 전통문화이다.

우리 문화는 모든 의식이 음양(陰陽)과 천도(天道)와 인도(人道)에 근거해서 예(禮)를 행하였다 양(陽)은 태양(해)이고 하늘이며 남자를 뜻하고 음(陰)은 달이고 땅이며 여자를 뜻한다.

사람이 앉고 서는 위치(位置)에도 음양의 구분이 있고 동서남북(東西南北)에도 음양과 상하의 위치가 구분되어 있다.

앞으로 가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자 하는데 가례 중 관례(冠禮)는 거의 시행하지 않고 성년예로 대신하는 만큼 생략하고 혼례와 상례 그리고 제례에 대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I. 婚禮(혼례)

혼례는 성인(成人)이 된 남자와 여자가 성례(成禮)를 하여 부부(夫婦)가 되는 의식(儀式)이며 혼인(婚姻)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혼인을 해질 무렵에 의식을 올렸다고 해서 혼인(昏姻)이라고 했다. 혼례에는 삼서(三誓)와 육례(六禮)가 있는데 삼서(三誓)란,

- 가.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조상과 부모에게 서약하고
- 나. 천지신명께 서약하며
- 다. 서로 부부가 되는 배우자에게 서약하는 것이다.

육례(六禮)란

- 가. 의혼(議婚): 아들이 성년이 되면 여자 측에게 이웃이나 친척을 통해서 중매를 부탁한다.
- 나. 납채(納采): 양가가 합의가 되면 남자 집에서 여자 측에게 신랑의 사주를 보낸다.
- 다. 연길(涓吉): 신랑의 사주를 받은 여자 측에서 혼례(婚禮)일을 받아서 간지에 써서 남자측에 보낸다 (지방에 따라서는 남자측에서 혼례일을 받기도 한다).
- 라. 납폐(納幣): 납징(納徵)이라고도 했고 현대에는 함을 보낸다고 한다. 폐백으로는 청색비단과 홍색비단을 갖추는데 많을 때는 청색3감과 홍색 2감이요 적을 때는 청홍색 각각 1감씩 보낸다.
- 마. 친영(親迎):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가는 것을 말하고 고례(古禮)에는 첫날밤을 신부집에서 치르기도 했다 한다.
- 바. 전안례(奠雁禮):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이다.

기러기는 새끼를 많이 낳고 차례를 잘 지키며 배우자를 다시 구하지 않는 새로 알려져 있다.

집례의 홀기에 따라 전안례와 교배례(交拜禮), 서천지례(誓天之禮), 서배우례(誓配偶禮), 근배례(杯禮) 등을 행하면 끝나는 것이다.

홀기 서식은 다음과 같다.

奠雁禮(전안례)

◎ 양가모친 점촉
兩家母親 點燭

◎ 부집사 전안상 준비
婦執事 奠雁床 準備
- 신부의 집사는 전안상을 준비 하세요.

◎ 서지 전안상 남 북향립
至 奠雁床 南 北向立
- 신랑은 전안상 앞에 이르러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서시오.

◎ 집안자 수안우서
執雁者 授雁于
- 안부는 신랑에게 기러기를 주세요.

◎ 서귀좌 봉안 전우상 수서향
坐 奉雁 奠于床 首西向
- 신랑은 꿇어앉아 기러기를 전안상 위에 머리가 서쪽을 향하게 받들어 올리세요.

◎ 서흥재배
興再拜
- 신랑은 일어나 두 번 절하세요.

◎ 주부 집거 전안상
主婦 執舉 奠雁床
- 주부(신부 어머니)는 전안상을 받아 가세요.

交拜禮(교배례)

- ◎ 신랑취대례청
新郎就大禮廳
- 신랑은 대례 청에 들어와서 대례상 동쪽자리에 서시오.
- ◎ 신랑동향립
新郎東向立
- 신랑은 동쪽을 향해서 약간 돌아서 외면하고 서세요.
- ◎ 신부출
新婦出
- 신부는 나와서 대례상 서쪽 자리에 서시오.
- ◎ 신랑정면
新郎正面
- 신랑은 신부를 향하여 바로 서시오.
- ◎ 신랑신부궤
新郎新婦
- 신랑 신부는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 ◎ 진관진세서관우남부관우북
進進宇南婦宇北
- 손을 씻고 땀을 자리에 나가되 신랑은 남쪽에 신부는 북쪽에 하시오.
- ◎ 관수집건
水執巾
-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세요.
※ 신랑이 남쪽에 있는 물에 손을 씻으면 신부의 시녀가 수건으로 바치고 신부가 북쪽에 있는 대야의 물에 손을 씻으면 신랑의 하인이 수건을 바친다.
※ 속례에 종자욕지(從者沃止)라 하여 찬임 각시가 손가락으로 세 번 튕겨서 신부의 손 씻는 것을 대신하기도 했다.

- ◎ 신랑 신부 흥
新郎 新婦 興
- 신랑 신부는 일어나세요.
- ◎ 신랑읍 취석
新郎揖 就席
-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대례상 가까이 서세요.
- ◎ 신부 재배
新婦 再拜
- 신부는 신랑에게 두 번 절하세요.
- ◎ 신랑답 일배
新郎答 一拜
- 신랑은 답으로 한 번 절하세요.
- ◎ 신부재배
新婦再拜
신부는 다시 두 번 절하세요.
- ◎ 신랑 답 일배
新郎 答 一拜
- 신랑은 또 답으로 한 번 절하세요.
- ◎ 신랑 신부 궤좌
新郎 新婦 坐
- 신랑과 신부는 각각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誓天地禮(서천지례)

- ◎ 서부종자 수잔반우 서부침주
 婦從者 授盞盤于 婦斟酒
 - 각 좌 집사는 잔 반을 들어 신랑 신부에게 주고 각 우 집사는 잔에 술을 따르세요.
- ◎ 서부 봉잔 서천 하잔반 제주서지
 婦 奉盞 誓天 下盞盤 祭酒誓地
 - 신랑과 신부는 잔 반을 받들어 눈높이로 올려 하늘에 서약하고 잔 반을 내려 땅(빈 그릇)에 세 번 조금씩 부어 땅에 서약하세요.
 ※祭酒誓地の祭字를 제라고 읽지 않고 췌라고 읽음, 즉 췌주서지라 함.
- ◎ 서부종자 수잔반치우고처서부거효치우공기
 婦從者 受盞盤置于古處婦舉置于空器
 - 각 좌 집사는 잔 반을 받아 원래 자리에 놓고 신랑과 신부는 안주를 집어 빈 접시에 담으세요.

誓配偶禮(서배우례)

- ◎ 서종자 홍사수우 좌수 부종자 청사 수우우수
 從者 紅垂于 左手 婦從者 青 垂于右手
 - 신랑의 우 집사는 근 배례상의 소나무가지의 홍실을 왼 손목에 걸치고 신부의 우 집사는 대나무 가지의 청실을 오른 손목에 걸치세요.
- ◎ 서부종자 수잔반우 서부침주
 婦從者 授盞盤于 婦斟酒
 - 좌우집사는 잔 반을 들어 신랑 신부에게 주고 술을 따르세요.
- ◎ 서부거잔반 서우채음 수잔반우종자
 婦舉盞盤 誓偶口卒飲 授盞盤于從者
 - 신랑과 신부는 잔 반을 들어 가슴 높이로 받들어 배우자에게 서약하고 술을 반쯤 마신다음 각각 우 집사에게 잔 반을 주세요.

- 서부종자 수잔반 교행 취 배우석 수잔반우
婦從者 受盞盤 交行 就 配偶席 授盞盤于
배우종자
配偶從者)
- 우 집사는 각각 잔 반을 받고 일어나 각기 오른쪽으로 돌아 상대편 배우자의 옆에 가서 잔 반을 집사에게 주세요.
- 서부종자 수잔반 수잔반우 서부
婦從者 受盞盤 授盞盤于 婦
- 좌집사는 각각 잔반을 받아 신랑 신부에게 주세요.
- 서부수잔반 거잔반 낙서 음필 수잔반우 종자
婦受盞盤 舉盞盤 諾誓 飲畢 授盞盤于 從者
- 신랑과 신부는 잔 반을 받아 가슴높이로 받들어 배우자의 서약을 받아들이고 남은 술을 마신다음 잔 반을 좌 집사에게 주세요.
- 서부종자 수잔반 수반잔우 배우종자 수잔반
婦從者 受盞盤 授盤盞于 配偶從者 受盞盤
종자교행 고처 치잔반우탁
從者交行 古處 置盞盤于卓
- 좌우집사는 각각 잔 반을 받아 상대편 집사에게 주고 좌우집사는잔 반을 받아 상에 놓으세요.

杯禮(근배례)

- ◎ 서부종자 취근배 분치우 서부지전 잔반상
婦從者 取杯 分置于 婦支前 盞盤上
 - 좌우집사는 잔대 위에서 잔을 내리고 각각 근배상위의 표주박 잔을 나누어 갖다가 잔대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 ◎ 서부종자 수잔반 우서부침주
婦從者 授盞盤 于婦斟酒
 - 좌우집사는 잔 반을 들어 신랑 신부에게 주고 술을 따르세요.
- ◎ 서부거근배 음필배치우탁
婦舉杯 飲畢杯置于卓
 - 신랑과 신부는 표주박 잔을 들어 술을 마시고 잔 반을 원 자리에놓으세요.
- ◎ 서부집사 취근배 합치우 근배상 수청홍사
婦執事 取杯 合置于 杯床 垂青紅
 치우고처
置于古處
 - 좌우집사는 표주박 잔을 가져다가 근배상위에 합해 놓고 청 홍실을 원 자리인 소나무와 대나무에 걸치세요.
- ◎ 서부입상향
婦立相向
 - 신랑과 신부는 각기 일어나서 마주하세요.
- ◎ 서읍부 부굴신답례
揖婦 婦屈身答禮
 -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신부는 허리를 굽혀 답례하세요.
- ◎ 서부 각출 취타실
婦 各出 就他室
 - 신랑과 신부는 각기 다른 장소로 나가세요.

◎ 레필철상

禮畢撤床

- 이상으로 모든 예가 끝났으니 상을 치우세요.

혼례식이 끝나면 현구 고례와 사당참배가 있다.

현시대에 이르러 서양문화 발달로 서양식 결혼식을 하게 되어 우리의 전통문화인 음양과 상하의 위치가 판이하게 바뀌었다,

예를 들면 예식장의 신랑과 신부의 위치가 바뀌었음은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 신랑신부가 우리의 전통 혼례 복으로 갈아입고 사당참배와 현구 고례를 할 때에는 우리의 전통 의식인 음양의 위치대로 하지 않고 서양식으로 시부모를 앉게 하고 신랑 신부 또한 서양식으로 위치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의 전통의식대로 좌석배치도를 그려본다.



좌석 배치도와 같이 시부모가 앉은 자리가 상석(上席) 즉 북쪽이고 신랑 신부가 선 자리가 하석(下席) 즉 남쪽이다.

또한 시아버지와 신랑이 위치한 자리가 동쪽이고 시어머니와 신부가 위치한 자리가 서쪽이다 이는 음양의 이치에 따라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므로 양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므로 음에 해당되니 남녀 또한 같다.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묻히는 것이니 음이 되므로 음이 위상(位上)이니 남녀의 위치가 바뀐다 즉 아버지가 서쪽이고 어머니가 동쪽에 모셔 진다.

※산 사람의 좌석배치는 회갑연 때나 고회연 때도 위 배치도와 같다.

폐백상이 준비 되었으면 신랑 신부는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고례에는 신부 혼자서 잔을 올리고 네 번 절을 하였었는데 중도에 와서 신랑도 같이 참여 하게 되었다.

또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각각 따로 절을 하였었다,

배례가 끝나면 시부모는 교훈을 내리고 시아버지는 대추 몇개를 집어서 신부의 치마폭에 던져 주고 그 대추는 신혼 첫날밤에 신랑 신부가 나누어 먹는다. 그 뜻은 장수를 뜻하기도 하려니와 아들을 낳으라는 뜻이다.

시어머니는 폐백그릇의 편육 위를 몇 번 두드리며 어루 만진다.

이는 며느리의 흉허물을 덮어 두겠다는 뜻이다.

신랑신부는 허리를 굽혀 례를 표하고 다시 절을 한다.

시부모가 물러나고 다음은 시가(媿家) 어른들과 친족들이 상면한다.

웃세대 어른은 상석에 앉아 절을 받고 같은 세대 옷 사람은 동쪽, 신부 는서쪽에서 맞절을 한다 신부의 아랫 세대 사람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신부는 동쪽으로 자리를 옮겨 서쪽을 향해 서고 허리를 굽혀 답례를 한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만 생존해 있을 때는 대추와 폐백을 준비는 하되 쓰지는 않고 편육이나 고기로 인사를 하고 사당 참배시나 따로 지방을 써서 모셔놓고 폐백을 올리고 절을 하면 이때 시어머니가대추 몇개를 집어 신부에게 던져 주면서 "이것은 시아버지께서 주시는것이다" 라고 한다.

※ 사당 참배시나 지방을 써서 모셔놓고 배례시에는 다음과 같은 축문을 읽는다.

① 시부모 지방만 모셨을때.

용구지부 김해김씨 감현(容九之婦 金海金氏 敢見)(용구의 부인 김해김 씨가 시부모님께 알현 하옵니다)

② 사당참배시(4대까지 모셔져 있음)시아버지가 살아 계실때.길동지자 용구지부 김해김씨 감현(吉童之子 容九之婦 金海金氏 敢見) (길동의 아들 용구의 부인 김해김씨가 조상 어르신께 알현 하옵니다)

★ 동서양의 문화 차이점

① 신랑 신부의 위치

동양: 남동여서(男東女西)남자가 동쪽에 서고 여자는 서쪽에 선다,
서양: 남서여동(男西女東)위와 반대로 선다.

② 이름

동양: 성을 앞에 이름은 뒤에
서양: 이름을 앞에 성은 뒤에

③ 식사

동양: 수저를 오른손으로 앞으로 당겨서 먹음
서양: 쇠스랑은 왼손에 칼은 오른손으로 안에서 밖으로 내치면서 먹음.

④ 숫자를 셀 때

동양: 엄지부터 안으로 구부려 셈
서양: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을 펴면서 셈

⑤ 아기를 업을 때

동양: 등에 업음(걸을 때 같은 방향을 보면서 사물을 익힘)
서양: 배에 안음(아기는 거꾸로 보고 간다)

⑥ 사람을 부를 때

동양: 손등을 위로가게 하여 땅 쪽으로 구부림
서양: 손바닥을 위로가게 하여 항상 무엇을 달라는 시늉(강아지 부르
듯 함)

⑦ 툇질

동양: 앞으로 당김
서양: 앞으로 밀음

⑧ 연필 각기

동양: 안에서 밖으로
서양: 밖에서 안으로

⑨ 자식 지도

동양: 부모가 늘 간섭하고 밥도 부모가 차려 주는 대로 말없이 먹는다.

서양: 아이들이 메뉴를 직접 고르고 선택의 자유가 있다.

⑩ 일의 추진

동양: 전화를 하면서 다른일 도 한다.

서양: 한가지 일에만 집중하되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

⑪ 회사에서 상사와 직원

동양: 상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회사에서 회식자리나 술자리에 이
유없이 따라 움직인다)

서양: 업무시간이 끝나면 개인 행동

⑫ 술을 마실 때

동양: 안주가 없으면 술을 못 마신다.

서양: 안주가 없어도 술을 마신다.

동양: 병 단위로 주문을 하고 한 사람이 술값을 계산한다.

서양: 잔 술을 마시며 잔술을 주문 할 때마다 각자가 선불로 돈을 낸다.

⑬ 돈을 셀 때

동양: 안으로 셈

서양: 밖으로 셈

⑭ 글씨쓰기

동양: 위에서 밑으로 쓰기도 한다.

서양: 우측으로의 가로쓰기만 가능하다.

⑮ 거주문화

동양: 양(陽)의 정신 문화권인 우리 나라는 음(陰)인 지구와 가까이
하기위해 방바닥에 붙어 사는 온돌문화가 발달.

서양: 음(陰)의 물질 문화권인 서양인은 태양과 가까이 하기 위해 위
로 올라가는 침대의자 빌딩의 생활.

☎ 긴급구호 요청전화 :동양 119,서양 911.

II. 喪禮(상례)

유교(儒敎)의 영향을 받은 우리 나라지만 중국의 상가 풍습과 크게 다른 것을 보면 우리 나라 사람이 독특한 제취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상례임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예 날의 상례와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상숭배와 효의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34년 일본의 조선총독부 시절 의례준칙을 개정 발표하여 굴건 제복 대신 두루마기와 두건을 쓰도록 했고 전통복장이나 한복을 입었을 때는 왼쪽 가슴에 나비 모양의 검은 리본을 달도록 했다.

양복을 입은 사람은 왼쪽 팔에 검은 완장을 착용케 했다.

1969년 가정의례준칙이 발표 되면서 삼베로 상장을 만들어 가슴에 달도록 했으며 완장은 가정의례준칙에는 빠졌지만 끈질기게 살아 남아 계급장처럼 변질됐다(4줄은 만상주, 3줄은 나머지 아들, 2줄은 사위, 1줄은 손자들) 그러나 영남, 호남 충청지역 집성촌이나 명문가에서는 우리고유의 전통상례대로 행하는 곳이 많다.

사람이 죽으면 초종, 운명, 수시, 고복, 곡, 발상, 전, 치관, 부고, 습, 습전, 반함, 소렴, 대렴, 혼백제작, 명정준비, 입관, 성복, 조문상, 천구, 발인, 치장에 이르기 까지 절차가 복잡하다.

치장이 끝나면 반곡 하여 돌아와 초우제(반혼제)를 지내는데 이때 부타가 정식 제사이다. 상주는 목욕 제개 하고 새로운 제수를 장만하여 진설하고 상주가 처음으로 잔을 올린다.

그런데 가끔 보면 상례의식이 잘못 행하여 지는례가 많다.

우선 사람이 죽어 고복(梟復)이 끝나면 상주들은 곡(哭)을 하는데 곡에는 통곡(痛哭), 애곡(哀哭),례곡(禮哭)이 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신의 몸 돌 곳을 몰라 식음을 전폐하고 아프게 우는 것이 통곡(痛哭)이다.

시간이 지나면 서러운 정도가 처음과 다르기 때문에 설움이 북 바쳐 우는 것이 애곡(哀哭)이다.

례곡(禮哭)은 조객을 맞이 할 때 상주의례로서 우는 곡이다. 례곡은 낮은 소리로 애고애고(哀古哀古)하는데 이 곡은 아들딸 며느리만 우는 곡이

다 세월이 흘러 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곡으로 변하였다, 나머지 문상객이나 일반 복인들은 허희허희(嘯嘯)란 곡을 하는데 어이어이 곡으로 변하였다.

여기서 유의 할 것은 부모가 사망하자마자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문상객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것도 잘못된 것이다.

옛 날에는 상주가 외아들일 경우 잠시 빈청을 비울시에 사람을 시켜 대곡(代哭)이라 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대신 울기도 하였다.

※ 성복례(成服禮)는 조문객을 맞이 하기전 입관이 끝나면 상인들이 상복으로 갈아 입고 주과 포를 진설하고 복인이 잔을 올리고 일제히배례를 한 다음 상주끼리 문상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복 축문을 만들어 읽는 것을 가끔 보는데 이는 성복 제사가 아니고 성복례 이기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성복례는 옷대가 앉아서 아랫 상제로부터 조문을 받는데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조문을 하였으나 현재는 간단하게 남자는 동쪽,여자는 서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맞절을 하고 조문하는 것으로 끝마친다.

※ 상주는 부모를 사망케한 죄인이기 때문에 성복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치장 전까지는 세수도 하지 않으므로 잔을 올릴수 없다.

※ 조문객을 맞이 할때 조문객이 상주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주가 손님에게 절을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손자가 객지에서 소식을 듣고 늦게 도착하여 문상을 하는데 손자는 할아버지 영정에 배례하고 바로 물러난다.(상주의 아들 이기 때문에 아들 에게는 절을 할수 없으므로)

※ 상장과 고침(喪杖과 枕)

참최와 재최 3년의 복을 입는 복인은 상장이라는 지팡이를 짚었다.까닭은 지극히 슬퍼하여 성복례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먹지않으므로 기운을 차릴 수 없어 지팡이에 의지해 몸을 가누기 위함이다. 이 상장(喪杖)은 아버지 상에는 대나무를 어머니 상에는 오동나무나 버드나무 지팡이를 짚었고 지팡이의 길이는 가슴높이가 되게하여 뿌리쪽이 밑으로 순쪽이 위로 가게 하여 짚었다.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는 밑으로 가는 곳을 사각형으로 깎아 짚었다(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 하였으며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땅이기 때문이다).

상주가 앉는 자리는 벋짚을 엮어 이영자리를 깔고 벋짚을 묶어서 벋개를 삼았다 그 의미는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 초야에 몸을 던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상주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잠이 올때 벋개를 베고 잠을 자는 상주는 상장과 고침이 필요 없다 하겠다.

어떤 상가를 보면 산소를 다 쓰고 나서 집에 돌아와 초우제(반혼제)를 지낸 다음날 재우제를 지내지 않을 뿐 아니라 삼우제를 산소에 가서 지내는 이가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 우제(虞祭)**

초우(初虞),재우(再虞)삼우(三虞)는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제수(祭需)도 초상때 쓰던 음식은 일체 쓰지 않고 새로 정결히 장만하여 올린다.

초우 제를 지낸 다음날 유 일에 재우 제를 지내는데 만일 유일이 아닌 경우 하루 건너서 유일에 지낸다.

유일이란 을,정,기,신,계(乙,丁,己,辛,癸)가 드는 날을 말한다.

삼우 제는 강일에 지내는데 강일이란 갑,병,무,경,임(甲,丙,戊,庚,壬)이 드는 날을 말한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가 유일,강일을 따지지 않고 초우제를 지낸 다음날 재우제를 지내고 그 다음날 삼우제를 지내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삼우제를 산소에 가서 지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삼우제는 집에서 지내고 산소에는 성묘하는 것이다,초상때분묘는 제대로 완성 되었는지 그사이 들짐승들의 피해는 없었는지를 살피러 가는 것이다.

물론 간단히 제수를 장만하여 가지고 가서 올리고 배례를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졸곡(卒哭)**

졸곡은 3우제를 지낸후 3개월이뒤 강(剛)일에 지낸다. 제사의 의식은 우

제와 같으나 정화수(井華水)를 길어다가 병에 담아 술병 서쪽에 놓는다.

이 정화수를 보름에 길어 온것을 명(明)주라 하고 그믐에 길어온것을 현(玄)주라 한다. 졸곡제부터 축문의 고자(孤子)를 효자(孝子)라고 쓰고 읽는다.

* 소상(小祥)

돌아가신지 만1년이 되면 지내는 제사이다. 원래 소상은 기일(忌日)에 지내는데 따로 날을 받아서 지내기도 한다.

* 대상(大祥)

돌아가신지 만2년이 지난 기일(忌日)에 지낸다.

상례축문

喪禮祝文

개산산신제축

※ 開山山神祭祝

초상이 나면 묘지를 정하고 먼저 산신에 고한 다음 묘지를 판다.

유

維

세차 갑자사월갑자삭 초오일 무진 유학 ○○○

歲次 甲子四月甲子朔 初五日 戊辰 幼學 ○○○

감소고우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학생

전주이공

土地之神 今爲學生(벼슬이있으면 벼슬이름)全州李公

영건택조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 포혜

營建宅兆 神其保佑 無後艱 謹以清酌 脯

지천우신 상향

祗薦于神 尙饗

산신제축

※ 山神祭祀 먼저 쓴 아버지 묘에 어머니 묘를 합장하려고 할 때산신에게 고하는 축

유

維

세차 갑자이월 갑자삭 초이일 을축 유학 ○○○

歲次 甲子二月 甲子朔 初二日 乙丑 幼學 ○○○

감소고우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 고애자 김복동 위기모 전주이씨

土地之神 今爲 孤哀子 金福同 爲其母 全州李氏

(어머니 묘에 아버지를 합장 할때는 위기부평창이공爲其父平昌李公)

합핍우 현고학생부군지묘

合于 顯考學生府君之墓

(어머니묘에 합장 할때는 현비유인전주이씨 顯濡人全州李氏)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포해 지천우신 상향

神其保佑 無後艱 謹以清酌脯 祇薦于神 尙饗

선영축

※ 先塋祝 아버지의 묘에 어머니를 합장 할때 아버지 묘에 고하는 축

유

維

세차 갑자이월갑자삭 초이일을축 고애자 ○○○

歲次 甲子二月 甲子朔 初二日 乙丑 孤哀子 ○○○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고자孤子라하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애자哀子라고 한다)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지묘

顯考學生府君之墓 (어머니일경우 顯孺人全州李氏) 죄역흉혼 선비건

배 일월불거 장기이계

罪逆凶 先見背 日月不居 葬期已屆

장이 ○월○일 부우묘좌

將以 ○月○日 附于墓左(어머니묘부우묘우附于墓右)

호천망극 근이주과 용신건고근고

昊天罔極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발인축

※ 發靱祝 관을 상여나 운구차에 실은 다음 혼백을 상여앞에 놓고 주과 포를 진설하고 술을 올린 다음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건례 영결종천

靈既駕 往即幽宅 載陣遺禮 永訣終天

후토산신축

※ 後土山神祝 묘소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산소에 고하기전에 먼저 산신에 고하는 축

유

維

세차 정축이월정축삭 초삼일기묘 유학 ○○○

歲次 丁丑二月丁丑朔 初三日己卯 幼學 ○○○

감소고우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 학생 전주이공 펴자유택 신기보우

土地之神 今爲 學生 全州李公 茲幽宅 神其保佑

비후무간 근이청작포해 지천우신 상향

後無艱 謹以清酌脯 祇薦于神 尙饗

평토제축

※ 平土祭祝 묘소에 고하는 축으로 성분 축이라고도 한다

유

維

세차 갑자이월 갑자삭 초삼일 을축 고애자○○○

歲次 甲子二月 甲子朔 初三日 乙丑 孤哀子○○○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孤子라고 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哀子라고 한다)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어머니 묘일 경우 현비유인김해김씨 顯孺人金海金氏)

형귀둔석 신반실당 신주기성

形歸 神返室堂 神主既成 (신주가 아니고 지방을 을경우 지위기성紙位 既成 또는 지방기성紙榜既成)

복유존령 사구종신 시빙시의

伏惟尊靈 舍舊從新 是憑是依

화장전축문

※ 火葬前祝文

유

維

세차 갑자이월 갑자삭 초오일 무진 고애자○○○

歲次 甲子二月 甲子朔 初五日 戊辰 孤哀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어머니는 현비유인김해김씨顯孺人金海金氏)

형귀화장 불진불경 분신유골 장이 ○○공원
 形歸火葬 不震不驚 焚身遺骨 葬以 ○○公園
 납골유택 안치봉안
 納骨幽宅 安置奉安
 시빙시의 근이 청작서수 용신건고 근고 상향
 是憑是依 謹以 淸酌庶羞 用伸虔告 謹告 尙饗

납골묘 안치후 축문

※ 납골묘 安置後 祝文

유

維

세차 갑자이월 갑자삭 초일일 갑자 고애자○○○
 歲次 甲子二月 甲子朔 初一日 甲子 孤哀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형귀화실 납골정실 복유존령 시거시안

形歸火室 納骨精室 伏惟尊靈 是居是安

근이주과 용신건고근고 상향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尙饗

납골당 안치후 축문

※ 납골당 安置後 祝文

유

維

세차 정축이월정축삭 초삼일 기묘 고애자○○○
 歲次 丁丑二月丁丑朔 初三日 己卯 孤哀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형귀둔석 신반실당 레지당사 심수황공 시세수행

形歸 神返室堂 禮至當事 心雖惶恐 時勢隨行

체백화장 신반납묘

體魄火葬 神返納墓

지위기성 복유존령 시빙시의 근이주과 용신건고근고

紙位既成 伏惟尊靈 是憑是依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상 향

尙 饗

초우축

※初虞祝 반혼제축(返魂祭祝)이라고도 한다.

유

維

세차 을축이월 갑자삭 초이일 을축 고애자 ○○

歲次 乙丑二月 甲子朔 初二日 己丑 孤哀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일월불거 엄급초우

日月不居 奄及初虞

(재우에는 엄급재우 奄及再虞 삼우에는 엄급삼우 奄及三虞)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청작서수 애친협사 상 향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清酌庶羞 哀薦事 尙 饗

(재우에는 우사虞事 삼우에는 성사成事)

졸곡축

卒哭祝

유

維

세차 갑자 오월 갑자삭 초이일 을축 효자

歲次 甲子 五月 甲子朔 初二日 乙丑 孝子 〇〇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일월불거 엄급졸곡 숙흥야처

日月不居 奄及卒哭 夙興夜處

애모불녕 근이청작 서수지천

哀慕不寧 謹以清酌 庶羞祇薦

세사상 향

歲事尙 饗

소상축

※小祥祝

유

維

세차 을축 이월 을축삭 초삼일 정묘 효자 〇〇

歲次 乙丑 二月 乙丑朔 初三日 丁卯 孝子 〇〇〇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일월불거 엄급소상

日月不居 奄及小祥(대상에는 엄급대상奄及大祥)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청작서수 애천 상사 상향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清酌庶羞 哀薦 常事 尙饗
(대상에는 상사祥事)

사십구일 탈상축

※四十九日 脫喪祝

유

維

세차 갑자오월 신미삭 초이일 임신 효자○○
歲次 甲子五月 辛未朔 初이日 壬申 孝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일월불거 엄급 사십구제 상기미진 세유제례
日月不居 奄及 四十九祭 喪期未盡 世維祭禮

복지사십구일 심수무궁

服止四十九日 心雖無窮

분즉유한 혼백당조 매우묘소 납골봉안

分卽有限 魂魄當 埋于墓所 (納骨奉安)

불승감모 백배고사 근이청작서수 애천 상사 상향
不勝感慕 百拜告辭 謹以清酌庶羞 哀薦 祥事 尙饗

백일탈상축

※百日脫喪祝

유

維

세차 병자오월 을축삭 십일일 을해 효자○

歲次 丙子五月 乙丑朔 十一日 乙亥 孝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일월불거 엄급백일상 자의시제 감위철연

日月不居 奄及百日祥 依時制 敢爲撤筵

고지호천 오정미궤

叩地號天 五情靡潰

근이청작서수 애천 상사 상향

謹以清酌庶羞 哀薦 祥事 尙饗)

일년 탈상축

※一年 脫喪祝

유

維

세차 을축오월 갑자삭십일일 을해 효자○○

歲次 乙丑五月 甲子朔十一日 乙亥 孝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일월불거 엄급기상 숙흥야처 애모불녕 삼년봉상어

日月不居 奄及朞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三年奉祥於

례지당사 세불체

禮至當事 歲不逮

혼귀분묘

魂歸墳墓

(혼귀납골묘 魂歸納骨墓)

근이청작서수 애천 상사 상향

謹以清酌庶羞 哀薦 祥事 尙饗

Ⅲ. 제례(祭禮)

제례란 조상(祖上)에 대해 정성을 다하여 례로서 모시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인 것이다.

같은 유교(儒敎) 문화권(文化圈)인 동양(東洋)에서도 우리나라가 조상숭배와 보은의 관념이 더 깊은 것은 조선 오백년 동안 치국이념(治國理念)으로 형성되었고 가신신앙(家神信仰)으로 승화 되어 사회와 가정에 확고히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한 의식이 자손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본질보다도 형식에 치우치고 경제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변질되면서 허례허식이란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 제례의 종류(祭禮의 種類)

제사에는 기제(忌祭)묘제(墓祭)사시제(四時祭)가 있고 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祭)길제(吉祭)가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문자가 생기기 전에는 조상의 화상을 그려서 모셔 놓고 제사를 지냈었다. 그러다 보니 화상을 그대로 그리지 못한 가난한 집 안에서는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눈사람 만들듯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문자가 생기면서 수염하나라도 틀리면 조상이라 할수 없으므로 문자로 위패를 써서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한다.

1894년 갑오경장 이전에는 관직에 따라 4대봉사,3대봉사,2대봉사를 하였고 일반 시민은 부모만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갑오경장 이후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호도를 하는데 신분에 차이가 있을수 없다 하여 누구나 모두 4대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시대에는 조혼(早婚)풍습이 있어 남자가 16세가 되면 혼인을 하게 되어 60세가 되면 현손(玄孫)을 볼수 있으므로 그 손자가 고조 할아버지 생전에 사랑을 받았으므로 제사를 지내지 않을수가 없었다.

◎ 제수의 진설(祭需의陣說)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 놓는 것을 말하는데 레서(禮書)에도 통일이 되지 못하였고 현대에도 각기 씨족마다 각 문중마다 각파마다 각양각색이다, 가까운 문중 내에서도 제수 진설이 틀리는 것은 웃대 어른들은 학문이 높아 격식대로 진설 했었는데 중도에 자손이 가세가 몰락하여 배우지 못해 그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잘못 진설하여 후세에 대물림 하게 되어 틀려지게 되기도 하였다.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진설법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 동조서율(東棗西栗):대추는 동쪽에 놓고 밤은 서쪽에 놓는다.
- ☞ 홍동백서(紅東白西):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놓고 흰색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 ☞ 조율시이(棗栗柿梨):서쪽에서부터 대추, 밤, 감, 배 순서로 놓는다.
위와 같이 진설 할 경우 사과,감,귤등은 그 다음 순으로 놓고 만과(넝쿨과일)인 머루,다래등을 중간에 놓으며 조과(造果)인 과즙과 약과 등은 끝 순서인 동쪽에 놓게 된다. 참외와 수박등은 넝쿨과일이 아니고 초과(草果)이므로 옛적에는 쓰지 않았다.
- ☞ 어동육서(魚東肉西):생선고기는 동쪽에 육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 ☞ 동두서미(東頭西尾):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가게 놓는다.
- ☞ 좌포우혜(左脯右):좌측에 포를 놓고 우측에 생선젓을 놓는다.
- ☞ 좌동우서(左東右西):신위의 좌측이 동쪽이고 신위의 우측이 서쪽이다.
- ☞ 북상남하(北上南下):북쪽이 상석이고 남쪽이 하석이다.(신위를 모신 쪽이 상석이다)
- ☞ 반서동갱(飯西東羹):메는 서쪽이고 갡은 동쪽이다(산 사람의 상차림과 반대)
- ☞ 고서비동(考西東):아버지가 서쪽이고 어머니는 동쪽이다.(신위의 위치)

- ☞ 적전중앙(炙奠中央):적은 잔을 올릴 때 마다 한가지씩 올리는 데중심적 특색이므로 제상의 중앙이 되게 제3열의 중심에 놓는다 적의 종류는 어적(魚炙)육적(肉炙)치적(雉炙)을 썼는데 꿩대신 닭이라 하여 계적(鷄炙)을 쓰게 되었다.
- ☞ 고비각설(考各說):내 외간이라도 상을 따로 차리는 것이 원이라 하여 상을 따로 차렸으나 언제 부터인가합설(合設)하게 되었다.
- ☞ 시접거중(匙居中):수저를 담은 그릇은 신위의 앞 중앙에 놓는다.
- ☞ 잔서초동(盞西醋東):술잔은 서쪽에 놓고 초첩은 동쪽에 놓는다.
- ☞ 면서병동(麵西餅東):국수는 서쪽에 놓고 떡은 동쪽에 놓는다.
- ☞ 숙서생동(熟西生東):익힌 나물은 서쪽에 놓고 생김치는 동쪽에놓는다.
- ☞ 천산양수(天產陽數):하늘에서 나는 과일은 홀수로 놓는다.
- ☞ 지산음수(地產陰數):땅에서 나는 과일은 짝수로 놓는다.
- ☞ 건좌습우(乾左濕右):마른 것은 서쪽에 놓고 젖은 것은 동쪽에 놓는다.
- ☞ 좌로우합(左爐右盥):향로는 서쪽에 놓고 향합은 동쪽에 놓는다.
- ☞ 모동퇴서(茅東退西):모사기는 동쪽에 놓고 퇴주 그릇은 서쪽에 놓는다.
- ☞ 배복의방향(背服의方向):계적 어적 조기젓 생선 포와 같이 등과배가 있는 것을 바르게 놓을 때는 등이 위로가게 하고 옆으로 눕어 놓을 때는 배가 신위 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제사의 절차(祭祀의節次)

(1) 강신례(降神禮)

제주(祭主)가 향안상 앞에 꿇어 앉아 향을 세 번 피우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다시 꿇어 앉는다 집사가 잔에 술을 조금부어 제주에게 주면 제주는 잔을 받아서 모사에 세 번 기울여 붓고 잠시 부복 하였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2) 참신례(參神禮):제사에 참여한 모든 이는 두번 절한다.

(3) 초헌례(初獻禮):제주가 첫 잔을 올리는 례이다.

※ 계반삽시정저(啓飯插匙正著)

초헌관이 잔을 올리면 좌우집사는 메와 찬 그릇의 뚜껑을 모두 열고 숟가락은 메 가운데 꽂고 젓가락은 세번 가볍게 구른 다음시점 그릇 위에 가로로 얹어 놓는다.

이때 좌집사는 어적을 초헌관에게 주고 초헌관은 받아서 우집사에게 주면 우집사는 받아서 제상의 중앙 동쪽에 놓는다.

※ 아헌관은 육적,종헌관은 치적이나 계적을 올리는데 현재는 거의가 다 한꺼번에 진설해 놓고 제사를 지낸다.

※ 독축(讀祝) 제주와 제사에 참석한 모든 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다 축관은 제주의 왼편에서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제주는 일어나서 두번 절한다(이때 다른 제관들은 일어나서 있기도 하고 제주와 같이 두번 절하기도 한다)

(4) 아헌례(亞獻禮):아헌례는 두 번째 잔을 올리는 례로서 맏며느리가 올린다(둘째 아들이 올리기도 한다)

(5) 종헌례(終獻禮):세번째 마지막 잔을 올리는 례로서 셋째 아들이나 제일 가까운 자손이 올린다.

(6) 유식(侑食):첨작(添酌)이라고도 한다 제주가 술을 더 권하는 례이다 제주가 향안상 앞에 꿇어 앉아 향을 피우고 다른 잔에 술을부어서 제 상위에 있는 술잔에 가득 채우고 제주만 두번 절한다.

(첨작 하는 것은 집사가 대신 한다)

(7) 합문(闔門)

유식이 끝나면 제관 일동이 촛불을 들고 문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4~5분 동안 기다린다(조용한 가운데 천천히 많이 드시라는 뜻이다)

(8) 계문(門):축 관이 앞에 서서 헛 기침을 세 번한후 문을 열고 들어가 일동이 신위 앞에 선다.

- 헌다(獻茶):갱을 물리고 숙 냉을 올린다 제주가 메에 꽂힌 수저를 거두어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숙 냉에 말고 숙 냉 그릇에수저를 서쪽으로 기울여 놓는다.(집사가 대신한다)

(9) 철시복반(撤匙覆飯)

집사는 숙냉 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어 시접 그릇에 정저 하여놓고 메와 탕의 뚜껑을 덮는다.

(10)사신례(辭神禮):제주이하 일동이 모두 두번 절을 한 다음 제주는향안상 앞에 꿇어 앉고 집사가 제 상위에 술잔을 거두어 제주에게 주면 제주가 받아서 되주 그릇에 술을 붓고 지방과 축문을 향로에 불 사른다.

(11)고이성(告利成):집사가 제주에게 읊을 하며(제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라고 고한다.

(13)철상음복(撤床飲福):제 상위에 진설한 제수를 물리는데 안에서부터(신위쪽) 먼저 물린다 제수음식과 제주를 나누어 먹는다.

IV. 차례(茶禮)

차례는 설, 동지, 매달 초하루 보름 그리고 각종 명절등에 지내는 것이며 속설로는 율곡선생께서 정월대보름, 삼월삼짇날, 오월단오, 유월유두, 칠월칠석, 팔월추석, 구월구일 선달그믐 등을 역시 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당이 있을때는 1년간 차례를 지내는 횟수가 31회에 이르렀다.

그러나 근래에는 사당을 모시는 가정이 없어 4대명절이라 해서 설날, 한식, 단오, 추석 네번만 지내다가 언제부터인가 한식, 단오는 빼고 설날과 추석 두번만 지낸다.

○ 차례를 지내는 대상

차례는 돌아가신날에 제사를 지내는 조상,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에게만 지낸다. 4대봉사하는 집안에서는 고조고비, 증조고비, 조고비, 고비위등 8분이 되고 일찍상처해서 재취하신 조상이 계시면 그만큼 모시는 신위가 추가된다. 차례는 조상의 생신날 아침에 영정사진이나 지방을 모시고 지낸다.

○ 차례를 지내는 장소

설날은 가정에서 사진이나 지방을 모시고 지내며 설날은 날씨가 춥고 제삿상에 올릴 떡국을 야외에서 끓이기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한식, 단오는 겨울동안 눈사태가 없었는지 눈이 녹으면서 산소가 상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여 성묘겸 산소에서 지낸다. 추석에는 여름 장마철에 산사태가 나지 않았는지 벌초는 잘되었는지 산소의 안위가 궁금하여 성묘겸 산소에서 지낸다.

○ 차례의 제례음식

차례의 제수는 기제사의 음식과 별로 차이가 없으나 명절 계절 특식을 조상에게 올리는 제례이므로 설날에는 떡국, 한식에는 화전이나 썩떡, 단오에는 수리취떡, 추석에는 송편을 올린다.

○ 차례를 지내는 순서

기제사에는 술을 세번 올리지만 차례에는 한번만 올린다.

고례의 예서에는 일반적으로 축을 읽지 않는 예에 따라 무축의 방법을 쓴다(무축단헌無祝單獻).

차례를 지내는 순서는 분향, 강신, 참신, 진찬, 헌작, 유식, 낙시저, 사신, 납주, 철찬, 음복 순으로 진행한다.

제사축문

※ 祭祀祝文

부모제사축

○ 父母祭祀祝

유

維

세차 갑자정월 갑자삭초삼일 병인 효자○○

歲次 甲乙正月 甲子朔初三日 丙인 孝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현비유인 김해김씨 세서천역

顯孺人 金海金氏 歲序遷易

현고

顯考(어머니 제사에는 현비顯)

휘일부임 추원감시 호천망극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근이청작서수공신 전헌 상향

謹以清酌庶羞恭伸 奠獻 尚饗

조부모 제사축

◎ 祖父母 祭祀祝

유

維

세차 갑자정월 갑자삭초일일 갑자 효손○○

歲次 甲乙正月 甲子朔初日日 甲子 孝孫○○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조고학생부군

顯祖考學生府君

현조비유인 김해김씨 세서천역

顯祖孺人 金海金氏 歲序遷易

현조비

顯祖(할아버지 제사에는 현조고顯祖考)

휘일부임 추원감시 불승영모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근이청작서수공신 전현 상 향

謹以清酌庶羞恭伸 奠獻 尚饗

남편제사축

◎ 男便祭祀祝

유

維

세차 갑자정월 갑자삭초이일 을축 처○○○

歲次 甲乙正月 甲子朔初二日 乙丑 妻○○○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벽학생부군 세서천역

顯學生府君 歲序遷易

휘일부임 추원감시 호천망극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근이청작서수공신 전현 상 향
謹以清酌庶羞恭伸 奠獻 尚 饗

처제사축

○ 妻祭祀祝

유

維

세차 갑자정월 갑자삭초삼일 병인 부○○○
歲次 甲乙正月 甲子朔初三日 丙인 夫○○○

감소고우

敢昭告于

망실유인 전주이씨 세서천역
亡室孺人 全州李氏 歲序遷易
망일부지 추원감시 불승감창
亡日復至 追遠感時 不勝感愴
자이청작서수신차 전의 상 향
茲以清酌庶羞伸此 奠儀 尚 饗

처부모제사축

○ 妻父母祭祀祝

유

維

세차 갑자이월 을축삭초일일 을축 생○○○
歲次 甲乙二月 乙丑朔初一日 乙丑 甥○○○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외구학생부군

顯外舅學生府君

현외고 세서천역

顯外姑○○○씨(氏) 歲序遷易

현외고

顯外姑 (장인제사에는 현외구顯外舅)

휘일부임 추원감시 불승감창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感愴

근이청작서수공신 전헌 상 향

謹以清酌庶羞恭伸 奠獻 尙饗

외조부모 제사축

◎ 外祖父母 祭祀祝(외할아버지,외할머니 제사축)

유

維

세차 갑자사월 을축삭초십일 갑술 외손○○○

歲次 甲乙四月 乙丑朔初十日 甲戌 外孫○○○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외조고학생부군

顯外祖考學生府君

현외조비 유인 세서천역

顯外祖 孺人○○○씨氏 歲序遷易

현외조고

顯外祖考(할머니 제사에는 현외조비顯外祖)

휘일부임 추원감시불승감창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感愴

근이청작서수공신 전헌 상 향

謹以清酌庶羞恭伸 奠獻 尙饗

○ 생신차례축문(生辰茶禮祝文)

유
維

세차 갑자 삼월 갑자삭 초오일 무진 효자
歲次 甲子 三月 甲子朔 初五日 戊辰 孝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현비유인 춘천박씨 기서유역
顯孺人 春川朴氏 氣序流易

현비
顯(아버지 생신에는 顯考)
세를기경 추원감시 호천망극 근이청작
歲律既更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清酌
서수지친 세사상 향
庶羞祇薦 歲事尙 饗

○ 설날축문(설날祝文)

유
維

세차 갑자 정월 갑자삭 초일일 갑자 효자
歲次 甲子 正月 甲子朔 初一日 甲子 孝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현비유인 춘천박씨 기서유역
顯孺人 春川朴氏 氣序流易

세를기경 시유맹춘 가행제의 추원감시
歲律既更 時維孟春 家行祭儀 追遠感時
호천망극 근이청작 서수지천 세사상 향
昊天罔極 謹以清酌 庶羞祇薦 歲事尙 饗

○ 추석축문(秋夕祝文)

유
維

세차 갑자팔월 갑자삭 십오일 무인 효자
歲次 甲子八月 甲子朔 十五日 戊人 孝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현비유인 춘천박씨 기서유역

顯孀人 春川朴氏 氣序流易

세를기경 백로기강

歲律既更 白露既降 (한식에는 雨露既流라 하고 단오에는 初木既長이라
고 한다.)

침소봉영

瞻掃封塋(집에서 지낼때는 家行祭儀라고 한다)

추원감시 호천망극 근이청작 서수지천 세사상 향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清酌 庶羞祇薦 歲事尙 饗

감자옹심이

여기 사람을 닮아 순하고 훈훈한

정 무 교



감자맛 사랑맛

나는 5년 전에 전남 담양에서 다섯 달을 산 적이 있다. 내가 아는 성공회 신부님이 담양에서 살며 가까운 광주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있어서 소설을 쓰기 위해 그 집에 더부살이를 했다. 신부님과 나는 태백에 있는 기독교수도원에서 같이 생활을 한 인연이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출판실에서 같이 일을 했다. 신부님은 애처럼 키가 작았지만 발은 넓어서 전국에 지인이 넘쳤다. 입담이 좋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신부님은 주중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동가식서가숙을 했다. 오라는 곳도 많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녀살이 좋아 갈 곳이 많은 분이였다.

신부님처럼 역마살이 끼었는지 어졌는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담양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곳과 인연을 맺었다. 충북 제천에서 1여년, 경북 안동에서 2여년, 경남 김해에서 6개월, 강원도 태백에서 4년에 경기도 하남, 파주, 성남, 양평에도 내 흔적이 남았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도 50여일을 살아보았다. 지방을 순례하듯 살아보면서 느끼는 점은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맛도 지방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전라도 사람과 강원도 사람은 대칭으로 놓여 있는 위치만큼이나 대조되어 흥미롭다.

전라도 사람을 맛으로 표현하면 '톡 쏘는 갓김치맛'이라고 할 수 있다. 전라도 사람은 결속하고 구성지며 다부진 사투리와 억양 때문에 사람도 그럴 거라는 인상을 준다. 이 인상이 틀리지만은 않은 것이, 사귀어 보면 강하고 구성된 말 만큼이나 사람도 호기로워 톡 쏘는 느낌이 나는데 이것이 꼭 갓김치맛과 같다.

그런데 강원도 사람은 지역의 위치처럼 사람맛도 전라도 사람과 대조된다. 내가 초보 인제군민 시절에 음식점에 가면 인사를 제대로 하는 주인이 없어서 의아했다. 어느 지역의 음식점을 가든지 대부분의 주인은 웃으면서 손님을 살갑게 맞는다. 그런데 인제군의 음식점 주인들 대부분은 손님이 지겨운지 웃음기가 없는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나는 이 무뚝뚝함을 불친절로 알았다. 그런데 안호열 과장이 자치행정과에 근무할 때 같이 밥을 먹다가 이들의 무뚝뚝함이 불친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가 겪은 음식점 주인들의 무뚝뚝함을 말하자 토종 인제군 사람인 안 과장이 말했다.

"강원도 사람은 숫기가 없어서(순해서) 손님이 와도 인사를 잘 못해요."

불친절해서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은 이곳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었고, 그 뒤에 강원도 사람들의 맛을 '감자맛'이라고 정의하게 되었다. 강원도 사람을 '감자바우'라고 했던 것에서 보듯이 감자는 예로부터 강원도의 대표작물이다. 봄에 심어 여름이면 먹을 수 있는, 구황식품의 대표선수인 감자는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 강원도의 토질에

딱 맞는다. 감자의 맛은 약간의 단맛이 나는 가운데 구수하고 텁텁하다. 강원도 사람도 감자맛처럼 순하다. 툭 쏘다는 것은 강하다 또는 독하다는 말도 된다. 순하다는 강하다나 툭 쏘다와는 반대다. 강하다와 툭 쏘다가 강한 개성이 있음을 말한다면 순하다는 강한 개성과는 거리가 멀고, 개성이 아닌 성품의 원만함을 말한다.

이런 순함이 강원도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서울 같은 도시의 모습이 진정한 발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나로서는 순박한 강원도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오래된 미래'를 본다. 물론 "강원도 사람은 깨닫는 힘이 약하다"는 어느 스님의 말처럼 순함에는 그런 뜻도 있긴 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순한 사람들과 살고 싶다. 강하고 툭 쏘는 사람들은 가끔 만나면 활력소가 되지만 함께 살면 나 같은 사람은 피곤해서 나가떨어진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떨미나는 각박한 도시생활을 하며 모났던 내 심성도 인제에 내려와 살면서 제법 순하게 바뀌었다. 수려한 산천을 내 마당으로 삼고 감자처럼 순하고 둥근 심성을 가진 사람들과 오래도록 살고 싶다.

백담마을과 감자옹심이

오늘 시연할 음식은 감자옹심이다. 이름대로 감자를 주재료로 사용해 만드는 음식이다. 나는 감자옹심을 인제군에 내려와서야 먹어보았고 그 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서울이든 어디든 감자옹심을 파는 식당을 본 적도 없다. 그 만큼 감자옹심이는 대중에게 알려진 음식이 아니다. 이 보배로운 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까닭을 나는 도통 모르겠다.

감자옹심을 요리할 곳은 북면 용대2리 백담마을에 사는 장영범(48)씨의 식당 '두메솜'이다. 두메솜은 식당과 민박집이 즐비한 백담사 들머리에 있었다. 깨끗한 실내에 의자는 없고 방에 앉는 형태였다. 식당 이름이 특이해 장 사장에게 이름의 뜻을 물었다.

"에델바이스의 우리말 이름이에요."

두메숨은 잎에 하얀 털이 솜처럼 나 있어 붙은 이름이라한다. 식당 이름으로 는 고급하고 예쁜데, 두메숨은 오리와 닭을 통째로 요리하는 식당이었다. 동 물을 다루는 식당이 주는 분위기를 예쁜 이름과 깨끗한 실내가 상쇄해주는 듯 했다. 장 사장은 호텔 주방에서 근무하며 요리를 배웠다고 한다. 96년부터 식당을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감자옹심이도 차림에 있었다.

상에 앉은 내 앞에는 장 사장이 앉았고, 내 옆에는 요리시현을 주선한 정 연배(47) 백담마을 이장이 앉았다. 용대리가 고향인 정연배 이장은 농약을 치지 않은 콩을 사용해 전통방식으로 된장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한다. 눈이 크고 선하며 나이답지 않게 얼굴이 맑은데도 일을 무척이나 좋아하 고 열심히 하는 기질이 있어 보였다. 정금옥(83), 장재연(78) 할머니 두 분 도 자리했다. 두 할머니는 감자옹심이에 얽힌 사연과 용대리에 살며 겪은 생활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모셨다.

수인사가 끝난 뒤 곧바로 요리를 시작했다. 감자를 많이 재배한 인제에 는 감자요리가 많다. 대부분이 국물이 없는 음식인데 감자옹심이는 뜨끈 한 국물이 있다. 감자옹심이 만들기는 누워서 떡먹기였다.

감자옹심이를 하려면 먼저 감자를 갈아야 한다. 장 사장은 강판에 감자를 갈아야 제 맛이 난다고 했다. 믹서에 갈면 너무 곱게 갈아지기 때문에 씹는 맛이 없단다.

강판이 없던 옛날에는 깡통을 잘라 펴서 그곳에 구멍을 촘촘히 뚫어 반 대편으로 솟아난 곳을 이용해 감자를 갈았다고 한다. 나름 생활의 지혜다. 요즘 감자옹심이를 내놓는 식당 가운데 감자를 갈아서 만드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죽만 하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한 감자녹말가루가 판매되 기 때문이다. 녹말가루로 만든 감자옹심이는 까만색을 띤다고 한다. 예전 에는 겨울에 감자를 먹을 수 없었지만 제주도에서 겨울감자가 나오기 때 문에 감자는 일 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되었다. 식당들이 값을 조금 더 받더라도 감자를 갈아 만든 옹심이를 내놓으면 손님이 더 좋아하지 않

을까. 나는 그럴 것 같다.

갈아진 감자를 채에 거르면 녹말이 가라앉아 찌득찌득해진다. 수저로 한 숟갈 떼어내 기도 힘들게 점성이 강하다. 한편 채에 걸러진 것이 생기는데 인제에서는 이것을 '무거리'라고 부른다. 이 무거리와 녹말을 섞어 주물거리면 반죽이 된다. 녹말이 많이 들어갈수록 웅심이는 찌득찌득 해진다.

옛날에 감자웅심이를 많이 먹었다는 정금옥 할머니는 주로 저녁에 감자웅심이를 먹었다고 한다. 요즘은 용대리 사람들은 가끔 별미로 감자웅심이를 먹는단다. 할머니의 남편은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다. 용대리 주민들은 옛날에는 주로 사냥을 해서 살았다. 곰이나 멧돼지를 잡았고, 더러 어떤 사람들이 범을 보기도 하고 잡았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었는데 할머니의 남편은 범을 잡지는 못했단다. 용대리를 둘러싼 곳은 험하고 깊은 내설악이다. 산세를 볼 때 옛날에는 범도 있었을 법했다.

내설악의 품에 안긴 용대리 백담마을은 백담사 아래에 있는 사하촌이다. 이 마을은 백담사를 머리 위에 두고 있어 유명세를 탔지만 속풀이에 좋은 황태로도 널리 알려졌다. 용대리는 황태에서 얻은 소득으로 전국 최고의 부농을 이루었다.

겨울이 시작되면 용대리 사람들은 빈터에 통나무로 덕장을 세운다. 완성된 덕장에 두 마리씩 주둥이를 끈으로 묶은 명태를 쪽 걸어놓는다. 걸린 명태는 긴 겨울 동안에 얼고 녹고를 반복하며 육질이 부드러워진다. 용대리는 황태를 하기에 기후조건이 매우 좋은 지역이라는데, 세찬 골바람이 강하게 불어 '풍대리'라고도 부른다. 이 바람이 명태



사진 1 덕장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 명태. 봄이 되면 노릇한 황태가 된다.)

를 잘 말려주어 최고의 황태가 만들어 진단다. 덕장에서 눈과 바람을 맞으며 겨울을 난 명태를 봄이 시작되기 전에 걷으면 속풀이에 그만인 최고 품질의 황태가 되는 것이다.

황태는 원래 북한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용대리에 살며 70년대부터 시작했던 황태가 지금은 마을에 더할 수 없는 효자다. 하지만 초기에는 황태일을 하기가 무척이나 고되어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황태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추운 겨울에 황태일을 하니 그 고생이 오죽할까. 그 과정을 듣고만 있어도 오싹 추위가 느껴진다.

겨울 초입이 되면 용대리 사람들은 동해안의 가진에 가서 잡은 명태를 구입해 진부령을 넘어온다. 동네의 개울을 막고 그 물에 명태를 넣고 하루를 재우며 명태를 얼린다. 땡땡 언 명태를 물에서 꺼내 배를 따고 명란젓과 창란젓을 만들 알과 내장을 꺼낸다. 이 작업을 '할복'이라고 한다는데 이름이 꽤 끔찍하다. 그 다음에 덕장을 만들어 명태를 걸면 된다. 이 모든 일을 내장까지 얼리는 추위에서 송곳 같은 바람을 맞으며 해야 했다. 그 시절에 이 일을 한 분들의 손은 나무껍질처럼 갈라지고 마디는 나무뿌리처럼 굵단다. 아버들이 울며 씨를 뿌렸기에 자녀들이 웃으며 단을 걷게 되었으니, 아버들의 수고가 다행히도 헛일이 아니었다.

장 사장이 녹말과 무거리를 섞어 축구공처럼 둥글게 미리 만들어 놓은 반죽을 내왔다.

우리는 반죽을 적당히 떼어 바둑알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 한 입에 쏙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진 요놈이 옹심이다.

장 사장은 제철에 난 감자를 갈아 반죽하면 향이 난다고 했다. 더불어 음식은 무엇보다도 향이 나야 하고, 제 고장에서 난 재료로 요리를 하면 향이 난다고 말했다. 맞다. 음식은 제 고장에서 난 재료를 써서 제철에 먹어야 한다.



사진 2 둥글게 만들어놓은 반죽



사진 3 입에 넣기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야 먹기가 좋다

한편에서는 육수를 만들어야 한다. 장 사장은 부스터를 식탁에 올려놓고 육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육수를 만드는 것도 간단했다. 물에 무, 대파, 다시마를 넣고 끓이다가 소금으로 간을 하면 된다.

탐험가라니!

육수가 만들어지는 틈에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붙였다. 장재연 할머니가 말을 받았는데 장 할머니는 서울에서 살다가 70년대에 용대리로 내려왔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탐험가란다. 탐험가라니! 아문센 같은 사람이란 말인가? 호기심이 일어 자세히 물었다.

"남편이 탐험을 한다고 집을 자주 비워서 내가 한 고생은 말도 못해. 내가 죽으면 모비명에 '바보 같이 살다가 죽은 여자 여기에 묻히다'로 써 달라고 했어. 남편이 먼저 죽으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남정네'라고 할 거야."

장 할머니는 꽤 심한 고생을 한 듯 했다. 뒤에 알아보니 장 할머니를 '바보 같이 살도록' 만든 남편 박철암(88) 경희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히말라야에 원정을 다녀온 분이였다. 이분의 인생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줄줄이 붙는다.

평안남도 영원이 고향인 박 교수는 서울에 내려와 경희대 중문과에 입학했다. 학생신분으로 1949년에 국내 최초의 대학산악부인 경희대산악부를 창립했다. 1962년에는 경희대산악부를 이끌고 우리나라 최초로 히말라야 원정을 다녀왔다. 당시는 히말라야 원정이 무엇을 뜻하는 행위인지 모를, 한 마디로 '해괴한 짓거리'로 여길 때였다. 여권을 받기도 힘들었고, 외화 사용도 통제하던 시절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원정대가 아닌 '정찰대'라는 이름으로 대원 네 명과 광복절이던 8월 15일에 히말라야로 떠나 12월 5일에 귀국했다. 그때의 정찰기를 <히말라야 다올라기리 산군 탐험기>라는 제목으로 책에 담았다. 그 뒤 박 교수는 일본 북알프스, 대만 옥산을 원정하다가 197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인한 산악인으로 정찰대가 아닌 원정대를 꾸려 히말라야 로체샤르(8400미터)에 도전한다. 박 교수는 그때를 이렇게 말했다.

"8060미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상 공격조로부터 로프가 모자란다는 무전이 왔어요. 무리하지 말고 철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우리 등반은 끝났어요."

등반은 실패로 끝났지만 실패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 등반은 후배 등반가들에게 히말라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히말라야에 대한 도전의욕을 불어넣었다. 고상돈 씨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박 교수가 열어놓은 길을 통해 성공한 것이다. 히말라야를 갈 정도로 산에 미친 박 교수가 산과 인연이 시작된 것은 어릴 때였다.

"열일곱 살 땡가, 고향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동백산(2096미터) 정상에 배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동백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배 조각은 없고 대신에 들꽃이 지천인 거예요. 탄성이 절로 나더군요."

이때의 경험이 박 교수를 평생 산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 산에서 꽃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은 나중에 박 교수를 탐험가로 만들었다. 박 교수는

꽃을 좋아해서 세계를 다니며 꽃을 사진에 담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으로 나중에 자신이 이름을 붙인 티베트 '무인구'를 탐험한 것도 중국에 꽃을 찍으러 갔다가 들어서 시작된 일이다. 무인구를 탐험한 뒤부터 사람들은 그를 탐험가로 불렀다.

박 교수는 1990년에 처음으로 티베트에 갔다. 박 교수의 눈에 티베트는 신세계였다. 나무의 성장 한계를 넘어선 탓에 텅 비어 끝없는 고원에 감청색의 하늘, 둘러싼 하얀 만년설과 바위틈에 핀 희귀한 꽃들에 그는 감동했다. 그 뒤에 박 교수는 티베트를 스물다섯 번이나 다니며 꽃을 연구했다. 수백 종의 꽃을 채집하고 사진 오만여 장을 찍었다. 탐험으로 주파한 거리만 십오만 킬로미터, 서울과 부산을 삼백삼십삼 번 왕복한 거리다. 무인구도 네 번이나 갔다.

티베트를 다니던 박 교수에게 무인구를 말해 준 사람은 라싸대학의 총장이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앞으로도 살지 않을 곳"이라는 말이 박 교수의 귀에 박혔다. 남한만한 크기인 티베트 창탕고원은 풀조차도 생존이 어렵고, 지도에도 빈 공간으로 남은 땅이었다. 그곳의 학자들은 남북극과 이곳을 합쳐 '삼극'이라고 부를 정도로 생명이 살기가 힘든 극지방이었다. 박 교수는 이곳에 대해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그곳에 가 있었다.

2007년 11월, 드디어 박 교수는 중국인 학자 열네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삼십칠일 동안 이곳을 탐험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을 견디며 탐험한 그곳은 지구의 끝자락이었다. 나중에 박 교수는 무인구를 탐험하며 찍은 사진으로 만든 사진집을 나에게 한 권 선물했다. 이 사진집을 보면, 광활한 대지에 식물이라고는 풀 뿐이고, 이 풀을 먹고 사는 야생동물들이 간간히 뛰어다녔다. 사람을 처음 보는 동물들은 사진을 찍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한다.

육수가 끓었다. 끓는 육수에 만들어 둔 옹심을 넣었다.

"무인구에 갔다 온 남편이 말하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 꽃을 무인구에서 보았대. 그 꽃을 보자 눈물만 났다나."

나는 음식취재를 마친 뒤에 장 할머니 집에 갔다. 두메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 할머니네는 민박을 했다. 집안은 넓고 거실의 천정이 호텔의 로비처럼 높았다. 박 교수는 서울에 가고 없었다. 장 할머니는 커다란 사진집을 내왔다. 박 교수가 티베트에서 찍어 온 꽃들이 사진집에 있었다. 그 책에 박 교수를 올린 그 꽃이 있었다. 큰 잎의 순하고 맑은 푸른색이 신비롭게 보였다. 과연 아름다웠다.

삶은 탐험을 닮았다

이상스레 내설악에는 예전부터 걸출한 인물들이 모여들었다. 설악산의 정기가 인물들을 부르는지 몰라도 멀게는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내설악에 머물렀고, 가깝게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백담사에 있었다. 그이는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썼다. 서예가인 김창현 선생도 말년을 이곳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인제군이 추진해 용대리 만해마을 뒤에 그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다). 나는 박 교수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될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탐험에 바친 박 교수의 일생을 평가하려면 탐험의 가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탐험은 도전하는 정신이다. 내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헤쳐가는 행위다. 당연히 가보지 않은 곳을 가자면 두려움이 따른다. 두렵기에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 가보지 않은 길보다는 가본 길로 가기가 쉽고, 물건을 구입할 때도 신제품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기가 쉽다. 길을 가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야 자기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 될 리 없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굳어지면 나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감수성을 지닌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삶이라는 건, 자신의 영혼을 죽을 날까지 매일 가꾸는 행위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탐험을 하는 도전정신과 자신을 새롭게 하려는 정신은 같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를 넘어선 내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하루를 살고도 생각과 인격이 어제보다 자라지 않았다면 또는 자라려는 노력을 무시한다

면 그는 내일이 되어도 그 자리에서 굳어져 가는 '고체덩어리'다. 고체가 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고체정신'을 전염시킨다. 우리 모두가 극지를 탐험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내 영혼의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는 정신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

또한 탐험은 발견하는 정신이다.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 탐험가를 할 수 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세계가 끄는 유혹에 탐험가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이다. 상상력으로 미지의 세계를 먼저 보고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 탐험가다. 자신이 발견한 것을 가지려고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첫 발견자라는 자부심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탐험가다.

문명은 발견하는 정신이 만든 산물이다. 불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인류는 땅으로 떨어지는 사과에서 중력을 발견한 것처럼 우연히 또는 실험으로 우주에 작동하는 법칙을 발견해 왔고, 지금도 발견해 가고 있다. 지구상에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땅이 없는 이때에 발견하는 정신도 쓸모가 없어진 듯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류는 우주로 나아가 달이나 별을 탐험하는 한편으로 땅에 서식하는 식물이나 균류에서 인류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 발견하는 정신은 사람이 존재하는 한 큰 대접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탐험은 개척하는 정신이다. 모래가 날리는 사막에 길을 내고, 폐마른 광야에 꽃을 피우고, 눈으로만 보던 달에 깃발을 꽂는 불굴의 정신이다. 새로운 분야나 장르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모두 개척자다. 미국인을 두고 개척정신이 강하다고 하지만 한국인이야말로 어느 민족 못지않게 개척정신이 강하다. 그 옛날에 중앙아시아를 지나고 동북아시아를 거쳐 한반도에 도착해 이곳을 개척한 민족이 우리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밑에 살다보니 개척정신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싸돌아다니며 성취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다.

내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는 한국인의 개척유전자를 제대로 보여준다. 고려인들은 스탈린에 의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했다. 한겨울에 시베리아 바로 아래에 부러진

고려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 혹독한 겨울을 났다. 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 봄이 되자 고려인들은 고향에서 가져온 씨를 뿌려 농사를 시작했다.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은 유목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몰랐다. 고려인들이 농사에 성공하자 원주민들이 관심을 보였고, 고려인들은 이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주었다. 나중에 이 고려인들로 구성된 집단농장이 그 많은 소련연방의 농장 가운데 최고상을 받았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의 헌법을 고려인이 만들 정도로 고려인들은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대접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건설회사가 중동국가에서 거대한 건설을 하는 힘은 우리의 혈관에 흐르는 개척정신이 발현된 예다.

박 교수의 탐험정신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도전되어야 한다. 안정된 생활을 하려고 교사나 공무원이나 의사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 아무도 가지 않은 광야에 길을 내보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해볼 생각도 못하고 직장과 집을 오가다가 인생을 접는다. 사실 인생은 탐험과 같다. 죽음이 라는 목적지는 있지만 그곳까지 가는 동안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 채 한 걸음씩 떼어야 한다. 알면 재미없다. 모르기에 흥미롭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주물주가 우주를 딱하니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는 "자, 이곳은 너희들의 놀이터다 마음껏 뛰어 놀아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이해한 삶은 '놀이동산'이기 때문이다. 이 동산에는 평생을 뛰어다녀도 타 보지 못하고 구경도 못할 진귀한 꺼리가 가득하다. 이 동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딴 나라에서도 살아보고, 이웃을 위해서도 살아볼 수는 없는 것일까. 판에 박힌 삶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도 문 제지만 판을 박차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젊은이도 희박하다.

작년(2010)에 서화면에 있는 <평화생명동산>에서 내가 교육담당으로 근무할 때 박 교수를 강사로 초청했다. 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은 춘천중학교 학생들에게 박 교수의 탐험정신을 심어주고 싶었다. 박 교수는 아직도 열정이 식지 않은 목소리로 평생을 탐험에 바친 자신의 삶을 들려 주었다. 아흔을 바라보는 박 교수는 앞으로도 탐험을 계속하겠다고 강의

를 맺었다. 나는 학생들이 남긴 설문지를 나중에 보며 박 교수의 강의에서 감동을 받은 학생들이 많음을 확인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박 교수를 만난 학생들 중에서 좁고 갑갑한 삶을 강요하는 사회의 틀을 벗어나 활개 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러기를 바란다.

육수가 끓면 웅심을 넣고 끓이다가 호박과 감자를 채 썰어 넣는다. 감자웅심을 영동 사람들도 해 먹는다는데 그들은 해산물을 웅심이에 넣어 먹는다고 한다. 해물을 넣으면 어떤 맛이 될까.

피를 짜 먹이는 심정으로

감자웅심이에 해물을 넣어 새로운 감자웅심이를 창제한 것처럼, 강원도 사람들은 순해서 아름답지만 이제는 그 순함에 뭔가를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앞의 글에서 인제에서 만난 어느 스님이 "강원도 사람들은 깨닫는 힘이 약하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내가 순화해서 적은 것이고 사실 그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강원도 사람들은 무명이에요.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강원도에 절이 적은 것도 사람들이 무명이기 때문이에요."

'무명'은 불교용어다. '무지하다'는 말이다.

강원도는 깊고 큰 산에 막혀 예로부터 마을과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마을에 사는 사람도 적었다. 높고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 외지에 다녀오는 일도 쉽지 않았고, 산간오지를 찾는 사람을 보기는 더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알려주는 통로라야 가끔 찾아오는 장돌뱅이들뿐이었다. 자연스럽게 세상물정이나 동정에 어둡게 되고, 가끔 듣는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산과 산에 파묻혀 해가 뜨면 화전을 일구고 해가 지면 어둠에 쌓여 짐승소리만 들린다. 어쩌다 찾아온 사람과도 관계를 어떻게 해

야 되는지 몰라 소 닭 보듯 하게 된다. 오늘날에 식당주인들이 손님을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도 소 닭 보듯 했던 유전자의 힘일 것이다.

깨닫는 힘이 약하다면 깨달으려는 노력을 하면 된다. 즉, 강원인은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묵혀두었던 두뇌를 교육으로 두드려 깨워야 한다. 강원도에는 길도 충분히 닦였고, 먹고 살만큼의 저변도 있다. 그렇다면 주저할 게 뭐 있나. 내 피를 짜 먹이는 심정으로 교육에 매달리면 '사람'이 나온다. 사람도 올바르게 참된 사람을 키워야 한다. 지금의 교육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사람 말고, 손수 만든 음식 같은 사람을 키워야 한다. 순한맛은 기본으로 갖춰야 하고, 짜고 맵고, 달고, 떴고, 쓰기도 한, 오미자 같이 다양한 맛을 내며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강원인은 순한맛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람보다 재료가 좋다.

감자옹심이가 다 됐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옹심이 한 그릇이 내 앞에 놓였다. 통깨와 김 부스러기를 뿌려 보기에도 좋고,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순하고 훈훈한 행복

옹심이 하나를 입에 넣고 씹었다. 쫄득한 느낌이 기분 좋게 입안에 퍼지며 감자의 순한맛이 달았다. 속이 편하고 따뜻해지며 느긋한 기분이 들어 만족한 웃음이 절로 나왔다. 별미로 제격이고, 밥을 조금 말아 먹으면 장정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하고,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속 풀이용으로 먹어도 그만일 듯싶었다. 순하고 따뜻한 이런 음식은



사진 4 덕보기만 해도 훈훈하다

먹는 사람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해준다. 이런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식구와 둘러앉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어릴 때 엄마는 일을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고 일찍 돌아온 날이면 우리 다섯 식구는 엄마가 차린 저녁상에 오글오글 둘러앉아 밥을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아주 맛나게 밥을 먹었다. 반찬이라야 별 것도 없는 그 밥이 내가 지금까지 먹어 본 밥 가운데 가장 맛있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에게 있어 '행복'이란, 퇴근하고 돌아온 내가 토끼 같은 아이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아내가 만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장찌개에 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한다.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입에 밥을 넣고 오물거리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느끼는 맛을 아내와 아이들도 같이 느끼는 일체감과 동질감이라니! 그것은 내가 상상하는 최상급의 행복이다. 그때 먹을 음식으로는 오로지 된장찌개가 상상되지만 이제부터는 감자옹심이를 추가해야겠다. 감자옹심을 만드는 방법도 배웠으니 내가 직접 요리하는 모습도 집어넣고.

옹심을 찢으면 이 음식의 이름이 왜 '옹심이'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참으로 적절한 이름이라는 생각에 고개가 끄덕여지며 옛 사람들의 작명능력에 무릎을 치게 된다. 우리 선조들은 오감이 건진 느낌을 말로 만드는데 선수다. 감자옹심어도 그런 이름이다. 직접 드셔보시라. ★



사진 5 김치 한 보시기와 고추절임이 옹심子和 잘 어울린다

2010년 4월 9일에 취재했고, 2011년 10월에 글을 마무리했다.

취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장영범(48) 북면 용대2리 5반

정연배(47) 북면 용대2리 3반

강재연(78) 북면 용대2리 6반

정금옥(83) 북면 용대2리 5반

메밀총떡 버리면 또 다른 세상

정 무 교



눈이 거절한 음식

혼자 시는 나는 5일 간격으로 찾아오는 인제장날을 기억했다가 찬거리와 과일 등숙을 사온다. 장이라고 해봐야 차 한 잔 마실 시간 정도면 다 보고 올만큼 작고 소박하다. 십자형 길 좌우에 늘어선 장꾼 사이로 다니며 구입할 물건을 찾다보면 그래도 장이라고 재미가 있다. 장꾼들은 생선, 과일, 야채, 건어물과 견과류를 주로 판다. 할머니 장사꾼들은 땅바닥에 철파덕 앉아서 함지에 나물, 채소, 콩, 파 등을 늘어놓고 판다. 허연 연기를 날리며 튀밥을 튀기는 장면과 농가에서 쓰는 철택도구들이 바닥에 널려있는 모습도 보기에 좋다. 장터 한쪽에는 음식을 파는 할머니들

이 있고, 그 가운데 녹두빈대떡과 약식 등을 파는 할머니가 있다. 빈대떡을 붙이는 철판에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둥그렇게 비닐로 막고 장사를 하는 할머니의 메뉴에는 눈에 띄는 음식이 있다. 이 할머니에게 사 먹어 보지는 않았지만 전에 기사를 하면서 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

농촌에서는 '새농어촌건설'같은 마을발전사업을 웬만한 마을이면 한다. 이런 사업 관계로 사람들이 모이거나 하면 마을에서는 음식을 준비해 대접한다. 취재를 마치고 나도 참석한 분들과 음식을 같이 먹곤 했다. 상에 올라온 음식은 맛깔스럽지 보이진 않아도 먹어보면 소박한 맛에 정감이 느껴진다. 상에 올라온 음식을 이것저것 맛보다가 거무튀튀한 색깔의 빈대떡에 무언가를 올려놓고는 몇 번을 말아놓은 음식이 눈에 띄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색깔이나 생김새에서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음식이라 내 젓가락은 이 음식을 건너뛰었다. 그런데 마을을 다녀보면 대부분이 이 음식을 내놓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음식을 먹어보았다. 언제 어디에서 먹었는지는 기억에 없고, 다만 맛과 음식에 대한 인상만은 지금도 뇌리에 남았다. 내가 먹어본 인제의 전통음식 가운데 가장 '시골스러웠다'. 요즘 사람들의 입맛으로는 가까이 하지 않을 맛이였다. 그래서 장마당에서 이 음식을 볼 때마다 '과연 저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고는 했다. 아마도 나는 이 음식을 맛보기도 전에 거무튀튀한 색깔이 먼저 싫었던 듯하다. 더구나 돌돌 말려 있는 빈대떡을 도시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빈대떡은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서 노릇노릇 익은 색이었고, 입에 넣으면 어떤 맛이 날지가 분명한데 이 음식은 어쩐지 불쾌해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아마도 이 음식이 이 책에 실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 음식에 대한 선입견을 바꿀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도 좋아하다니!

이런 사연이고 보니 이 음식을 책에 싣게 된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었다. 내 부탁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음식 시현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고마워서 넘죽 받고 보니 이 음식이었다. 어쨌든 날짜는 다가왔고 나는 마을을 찾았다.

장소는 북면 냇강마을이다. 냇강마을은 2011년 여름에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피서지로 소개를 해주어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오던 이곳이 관광지처럼 되었다. 이 대통령은 냇강마을을 소개하면서 '강에서 뗏목도 타고'라고 했는데 실제로 물이 많은 여름에는 뗏목을 탈 수도 있다.

요리를 할 곳은 냇강마을의 농촌체험장이다. 이곳에서 이원희(45) 이장 과 부인인 박성숙(43) 씨 그리고 심선옥(53), 서연숙(43) 씨가 조리를 시현 해주기로 했다. 이원희 이장 부부는 냇강마을에서 '하늘마당'이라는 식당을 운영한다. 막국수, 감자부침, 닭도리탕 등을 요리하는 부인의 솜씨가 좋다.

농촌체험장은 마을을 찾아오는 도시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된 일종의 놀이터다. 넓은 마당에서 활쏘기도 하



사진 1 마을을 흐르는 강에서 뗏목을 타는 체험객들(이승근 제공)



사진 2 단오축제에서 냇강마을을 찾은 체험객들이 널뛰기를 한다(이승근 제공)

고, 그네도 뛰고, 투호놀이도 하게 마련했고, 한쪽에는 지게, 절구통, 함지 등 전통농기구를 전시해 놓았다.

그리고 오늘 음식시현을 하게 될 부엌도 있다. 부엌은 공간도 넓고 천정도 높아서 우리 다섯이 모여 있어도 험렁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눈 뒤에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늘 음식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은 나는 이때 까지도 이 음식을 어떻게 취재를 해야 한 편의 글을 완성할지, 고민이 되었다.

"메밀총떡을 하려면 먼저 메밀가루를 적당한 분량만큼 물에 풀어야 했다. 이 음식을 '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침개라고 해야 옳지요. 부침개를 하듯 묽게 반죽을 해야 해요.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소금을 먼저 치면 메밀이 삭아(녹아) 물이 되거든요, 이 순서를 잘 지켜야 해요. 다음에는, 부침 안에 넣을 솔을 만들어야 해요. 솔을 만들려면, 무채를 내어 소금에 살짝 절인 다음에 파, 마늘, 들기름, 깨소금으로 양념을 해 버무려요."

솔은 무채무침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었다. 순간, 무채무침을 넣고 돌돌 말은 빈대떡을 한 입 문다는 상상이 되면서 비위가 상했다. 지금까지 내가 먹어온 음식 중에서 무채를 안에 넣고 말아서 먹는 음식은 없었



사진 3 김장배추의 속처럼 생긴 솔

다. 무채를 좋아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기름에 버무려져 양념된 무채와 빈대떡을 한꺼번에 먹다니, 이런 조합은 내가 먹어온 음식에는 없었다.

어쨌든 아주머니들은 무채에 양념과 들기름을 넣은 뒤에 주물럭주물럭 버무렸다. 한 입 문 상상이 아직도 머리에서 가시지를 앓는데 들기름 냄새

가 코로 들어왔다. 들치근한 들기를 냄새는 오늘따라 비릿하게 느껴졌다.

어릴 때부터 나는 비위가 약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도 돼지고기를 먹다가 비계를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해 뱉어내기 일쑤였다. 우리 아버지는 물론이고 엄마까지 고기라면 어떤 부위든지 꿀처럼 달게 먹는, 하늘이 내린 식성인데 나는 지금도 닭발 같이 징그러운 음식은 먹지를 못한다. 갱마른 닭발은 꼭 노파의 발 같다. 불에 덴 것처럼 바짝 오그린 발가락하며, 발안쪽에 오돌돌한 돌기가 있는 모습이라니, 보기만 해도 몸이 떨리며 오소소 소름이 돋는다. 그렇다고 내가 편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패스트푸드를 되도록 먹지 않으려 하고, 합성조미료를 싫어하며, 맛에 민감하긴 해도 뭐든지 잘 먹는다. 다만 닭발 같이 혐오감을 주는 음식은 사절이다. 메밀총떡을 닭발에 건주기에는 미안한 일이지만 거무튀튀한 색깔과 무채무침이 주는 느낌은 닭발만큼이나 피하고 싶게 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던 박성숙 씨가 이렇게 말했다.

"메밀총떡은 귀한 음식이에요. 메밀을 갈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메밀을 처음 갈면 껍질만 나와요. 두 번째 갈면 무거리와 가루가 나와요. 이때 메밀은 검정색이고, 한 번 더 갈면 흰색이 돼요. 한 번 간 게 영양이 더 많아요. 무거리는 파와 백김치를 넣어 부침을 해먹고, 가루로 총떡을 해요. 이렇게 귀한 음식이라 명절이나 잔치에 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한 음식이라 동네행사를 할 때마다 상에 나왔던 거로다. 자신들도 해먹기 어려운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했던 시골 아낙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메밀총떡이 다시 보였다. 사람들이 메밀총떡을 싫어했다면 만들기 번거로운 이 음식은 벌써 상에서 사라졌을 테니 말이다. 다만 요즘 아이들이 이 음식을 좋아할 리는 없어 보였다.

"요즘 아이들은 메밀총떡을 싫어할 것 같은데?"

심선옥 씨가 대답했다.

"아니예요. 우리 애들도 만들어 주면 잘 먹어요."

아이들까지 좋아하다니, 의외였다. 성인들은 몰라도 아이들은 절대로 이 음식을 좋아할 것 같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의 입맛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맛인데. 아이들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음식인데…… 선입견! 이런 생각이 바로 선입견이었다.

선입견과 폐쇄주의

국어사전을 펴 보았더니 선입견을,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이나 관점'이라고 말한다.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려면' 선입견을 갖게 만든 어떤 경험이 과거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게 '아이들은 절대로 이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은 그럴만한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자화장실 소변기 위에 붙어 있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 많이 아닙니다'라는 글귀는 남자라면 모름지기 울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선입견을 가진 글이다. 이 글을 창작한 사람이 어떤 연유로 이런 관념을 갖게 됐는지는 몰라도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은 '여자는 울면 안 된다'나 '아기는 울면 안 된다'와 같은 거짓명제다. 슬프거나 크게 기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운다. 우는 행위는 감정을 가진 사람본연의 행위다. 남자도 사람인데 남자는 울면 안 된다면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남자는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우는 행위를 사람본연의 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 글을 창작한 사람에게는 남자는 울면 안 될 만한 경험이 있었고, 이 경험에서 이 사람은 어떤 지식보다도 강력한 고정관념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선입견은 자신의 경험을 불변의 진리로 믿어버리는 데에서 기인한다. 신영복 선생이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다음의 글이 있다. 살아온 경험이 다른 수형자들이 한 방에서 살면 그들의 대화는 흔히 우김질

로 나타난다고 한다. '귀신이 있네 없네'부터 '소방차가 사람을 치어도 죄가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우기고, '서울역 대합실 천정의 부조浮彫가 무궁화다 사꾸라꽃이다'를 가지고 과열된 목소리로 우긴다고 한다.

수형자들의 우김질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산속에 사는 사람에게 해는 산에서 나와 산으로 지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에게는 바다에서 나와서 바다로 지고, 도시의 사람에게는 빌딩에서 나와서 빌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한다면 해의 일몰과 일출은 제각각이 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각자가 경험한 사실이기에 나름의 진실이 있겠지만 자신의 경험을 선불리 보편의 진리로 믿게 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 사람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란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기만큼이나 어렵다. 한 사람이 가진 고정관념도 깨기가 어렵다면 한 집단이 가진 고정관념을 깨기란 산을 옮기기보다 어려울지 모른다. 인제에서 살면서 이곳 사람들의 집단 의식을 경험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을 자기집단에 끼워주지 않는 뒤틀린 의식이 도처에 있음을 보게 된다.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은 인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 때 외지로 전학을 갔다고. 그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일찍 인제로 돌아왔고, 나중에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나갔더니 자기가 듣는데 한 친구가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애는 졸업을 못했으니까 우리 동창에서 빼야해."

이 예가 유별난 경우면 좋을 텐데 같은 경우를 당한 예를 다른 사람에게도 들었다. 내가 느끼는 인제의 분위기도 이런 예를 뒤받침 한다. 신라시대의 골품제를 연상시키는 이 '폐쇄주의'는 인제의 발전(내게 있어 발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지역에 고층건물이 세워지고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번쩍

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아가 그를 도와주며 타인과 교감하면서 자연에 새겨진 참됨을 찾아가는 삶이다)을 막는 최대의 장애다.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만 있으면 되고, 지금 알고 있는 지식만 고수하면 된다는 폐쇄주의는 당자와 모임과 지역을 세상으로부터 외딴 섬처럼 고립시킨다. 문제는, 고립된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소아병'이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자기들 중심으로 지역이 돌아가야 한다는 중병에 걸리고 만다. 더 깊게 들어가면 끼리끼리 이권을 해 먹는 결탁이 있다. 그래서 어둡고 부패한다. 부패했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막는다. 이러한 종균이 사사로운 삶에서 퍼져나가 지역민을 참다움에 무감각해지는 암덩어리가 되게 한다.

이런 공동체는 새로움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참신한 인품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자라기 어렵다.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이 무리의 동패가 아니면 담당자를 설득하다가 스스로 지쳐버리게 된다. 내가 아는 사람이어야, 권력을 쥐 사람과 친분이 있어야 일이 진행된다. 권력과 줄이 있어야 뭐라도 하기 때문에 후보 아래 줄을 서서 선거에 일신을 건다. 줄서기는 일부 공무원이 먼저 앞장을 선다. 충성맹세를 하고 뒤에서 선거를 위해 뛰다가 실패하면 한직으로 밀려나고, 잘 되면 요직에 앉거나 빠른 승진을 한다. 두 번 밀어서 한 번만 당선되어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에 도박에 승부를 걸듯이 다걸기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경직성과 파벌주의는 폐쇄성에서 비롯된 열매다.

우리는 왜 폐쇄된 정신을 고수하는 걸까? 위의 글에 나온 사람은 왜 코흘리개 친구까지도 배척하려 했던 걸까?

이 책의 다른 장에서, 손님이 들어와도 소 닭 보듯 하는 인제의 식당주인의 무덤덤한 연유를 강원도의 지리에서 캐보았다.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에 들어 살던 강원도 사람에게 보이는 건 산뿐이라 지식에 약하다. 마을 사람도 몇 안 되고, 외지 사람이라야 가끔씩 찾아오는 장사꾼이 전부라 외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외지 소식을 들

을 데라고는 장사꾼 밖에 없는데 워낙 지식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들어도 해석을 하지 못한다. 외지 사람들이 때로 마을에 들어오는 때는 나라에 난리가 났을 때고, 난리통에 사람이 들어오면 마을에 변고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선의로 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는 태도, 지식과 정보에 대한 열등감, 낯선 사람에게 받은 피해'다. 이러한 의식이 인제사람들의 유전자에 심겨져 오늘까지 대대로 내려온다. 이 세 가지 의식의 발원지는 '두려움'이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뭔가를 받아들이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성을 치게 만든다. 그러나 외부와 소통하지 않고 성을 치면 오히려 망한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지성에서는 헬라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르투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들만이 마지막 승자로 남아 번영할 수 있었을까?'

작가는 그 원인을 '로마인의 유연성'이라고 말한다. 로마는 당시 국가들 가운데 전쟁에 패한 적군 중에 능력이 있는 자라면 신분, 국적, 인종을 가리지 않고 적절한 자리를 쥐서 기용한 유일한 나라다. 실력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니 각국의 인재가 기꺼이 로마에 무릎을 꿇어 제국을 넓히는 데 이점이 되기도 했다. 오래 동안 로마에 치욕을 안겨주었던 삼니움족의 한 장군은 나중에 로마 최고의 벼슬인 집정관에까지 올랐다. 로마인은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을 뿐만 아니라 적군이라도 배울점이 있다면 빨리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산악민족인 삼니움족에게 패한 로마는 삼니움족이 사용한 투창에 주목해 그 다음 전투부터 즉시 로마군의 무기로 개조해 사용했다. 나만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탁월한 것은 야만족에게서도 거침없이 배우고 수용하는 유연성은 로마에 빠른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당시의 다른 나라에서는 정적政敵이 죽으면 그가 쓴 책이나 업적을 모두 파괴했다. 로마인

은 정적이 죽어도 그의 저술이나 업적이 탁월하면 계속 보존하고 개발했다. 로마인이 얼마나 유연한 사고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하나씩 물어서 배우면 되고, 응용을 하면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갖출 수도 있다. 그에게 적절한 자리를 주고 일을 시킬 수도 있다. 군청에서 대학교수들에게 각종 용역을 많이 준다. 교수들에게 일을 시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교수들보다 지식이 부족해도 주눅이 들 게 없다. 정성헌 <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은 "교수(전문가)는 적절한 일을 주고 시키라"고 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일을 시켜 놓고 제대로 일을 하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나를 열면 무언가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 것이지만 자신을 개방하지 않으면 오히려 도태되는 게 세상의 원리다. 이 점에서 중국의 역사는 반면교사다.

13세기까지만 해도 중국은 이슬람, 바진틴, 비잔틴, 인도와 함께 유럽을 능가한 문명이었다. 당시 유럽은 문명으로는 5위였다. 이때 벌써 중국은 연간 10만 톤을 생산하는 철강산업을 보유했다. 당시 중국의 중앙집권 체제는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체제를 능가했고, 전국의 인재들을 시험으로 뽑아서 정부조직에 배치했다. 종교, 과학, 군사 농경, 기술 등 각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서 각종 책이 쏟아져 출간됐고, 세계 최초의 백과사전을 만든 나라도 중국이었다. 13세기 말에 원나라를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가 원의 탁월한 문화에 크게 놀라기도 했다. 이렇게 위대한 문명을 구가했던 중국이 2백년 전에 서양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원인으로 가장 크게 거론되는 것은 유럽인의 도전정신과 실천정신이다. 마르코 폴로 같은 유럽인은 중국에 갔지만 유럽인은 중국에 가지 않고 만리장성을 둘러치고는 안주했다. 인쇄술을 발명한 건 중국인이지만 인쇄술을 이용해 책을 대량으로 출판한 사람은 유럽인이다. 화약을 만든 것도 중국인이지만 이것을 이용해 신식총과 대포를 만든 것도 유럽인이다. 12세기에 인도와 무역을 할 만큼 중국은 항해술이 발달했는데도 유럽이 먼저 세계를 돌아다녔다. 중국은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고 둘러친 만리장성 안에서 살며, 밖의

사람들은 다 오랑캐'라고 여겼다. 유럽은 중국처럼 천하통일을 한 황제가 없이 왕들과 귀족들이 끝없이 경쟁을 했다. 이런 혼란과 갈등은 유럽인에게 '우리보다 더 나은 땅을 찾아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며 밖으로 나가게 하는 개척정신을 심어주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그에게 배우려는 정신이 유럽문명을 일으켰고, 이 정신의 결과로 중국은 유럽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외국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며 쇠국정치를 펴던 조선은 결국 망하고 말았다. 새로움은 신선한 피다. 사람이나 조직이 그 시대에 맞는 지식이나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선한 피가 공급되지 않은 몸처럼 된다. 뒤틀린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둬야 한다. 흐르면 통하고 멈추면 막힌다. 쥐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다가는 손을 쥐 채로 화석이 된다.

공자의 말대로만 하면

2011년 9월호 함강지 2-3면에 기획감사실에서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글을 내놓았다. 정부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는데, 통합을 시켜야 하는 지자체의 기준을 인구 3만3천 명 이하의 지자체와 최근 3년 동안 인구가 감소한 지자체로 제시했다. 인제군의 인구는 현재 3만2천 명이다. 따라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인제군도 통합후보로 분류가 된다. 그런데 당국이 인구 3만3천 명이라는 통합기준을 나중에 빼버려 당분간 인제군은 통합 논의에서 빠졌다. 그래도 언젠가 다시 통합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하기에 인구를 늘리겠다고. 그러면서 기획감사실은 인구증가정책의 근본이념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즐거워야 먼 곳에서 살기 위해 찾아온다는 공자의 말을 내놓았다. 사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고장으로 인제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세운 목표는 2014년까지 3만5천 명, 2020년까지 4만 명을 설정하고는 출산장려, 군장병의 군민화, 정주

환경개선, 문화복지향상이라는 4개 분야로 나누어 그에 따른 세세한 정책을 제시해 놓았다. 인구 늘리기는 지자체 통합 건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사는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는 공자의 말은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고, 이 말을 인구증가정책의 이념으로 삼은 것도 박수쳐 주고 싶다. 더구나 세세한 인구증가정책도 생각을 많이 하고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책이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지역의 폐쇄주의를 먼저 극복해야 한다. 폐쇄된 곳에서는 권력을 쥔 자들과 이들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만 즐겁고 나머지는 그리 즐겁지 않다. 권력과 관계가 없이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도 폐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 속은 썩어가는 데 겉에 화장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속이 건강하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피부에 윤이 난다. 폐쇄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써서 2011년 9월 6일자 <인제인터넷신문>에 실은 칼럼은 폐쇄주의를 극복하자는 칼럼은 아니지만 칼럼에서 내가 제시한 세 가지를 실행하면 폐쇄주의도 극복이 된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바람이 분다, 바람을 타고 가자

인제군민이 속옷까지 벗겨진 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지난 군수 선거의 패자와 승자가 벌인 상대 옷 벗기기게임에서 서로의 속옷까지 훌렁 벗겨냈지만 실제로 옷이 벗겨진 건 군민이었다. 선거 뒤에 벌어진 2회전은 군민에게 수치심만 안겨주고 막을 내렸다. 이 사태를 깊이 생각해보고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군민이 있다면 그는 어떤 식으로든 권력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일 테다.

이제 3회전이 시작되려 한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결정이 내려진 뒤에, 어떤 사람들은 선거의 승리로 얻은 달콤한 열매를 다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른다. 패배의 쓴잔을 마시던 어떤 사람들

은 달콤한 열매를 먹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전의를 불태울 수도 있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왔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자기 욕망이 눈까지 차 있으면 사람도 뭇도 자기 욕망을 채워 줄 이용물로만 보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금 인제군에 부는 시대의 바람이 무엇인지, 침묵하는 다수의 군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공멸共滅로 끝난 2회전이 무슨 가르침을 주는지도 통알 길이 없게 된다.

지금 인제군에 부는 시대의 바람은 '변화'다. 변화하라는, 이제는 바뀌라는 요청이 턱 밑까지 왔다. 시대가 무대에서 다 끌어내고 다시 시작하라고 한다. 이 바람은 시대가 보내주는 바람이자 침묵하는 군민의 요청이다. 바람을 타고 변화의 장으로 나서라는 요청이다. 이 바람을 거부하면 우리는 2회전에서 느낀 수치와 절망을 또 먹게 된다. 2회전을 보고도, 이렇게 해설을 해주어도 이 요청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이번 선거는 변화하라는 요청에 부응하는 후보가 군수가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 가장 먼저 공무원사회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줄을 잘 서서 승진도 되고 요직도 차지하는 소수를 보고 다수의 공무원이 일할 맛이 날 리가 없다. 제대로 된 평가를 가지고 승진과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일을 열심히 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평가에 따라 인사를 해야 한다. 공무원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인제군에는 썩어 썩어 먼지만 쌓일 뿐이다. 이 공약을 외치는 후보에게 줄을 서지 않은 채 공무원의 정도를 걷는 절대다수가 표를 줄 것이다. 더불어 군수가 임명하는 단체의 자리도 능력과 인품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하겠다고 해야 한다. 줄을 서는 혹자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공동체라는 큰 틀을 생각하라고.

둘째, 군민의식을 깨우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2회전이 파국으로 끝난 밑바닥에는 '군민의식'이라는 저변이 있다. 나를 포함한 군민의식의 합이 평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평균 이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못난 정치인은 백성이 깨우치는 것을 막고, 훌륭한 정치인은 백성이 깨우치도록 돕는다.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는 교육 밖에 없다. 슈바이처 박사가 말했다. "교

육은 첫째도 본보기고 둘째도 본보기고 셋째도 본보기다". 교육이 성공하려면 지도자가 먼저 책을 잡고 배우기를 즐겨야 한다. 교육은 어느 지사체나 하고 우리도 했지만 지도자가 목표를 세우고 본보기를 보이며 집중해서 끈질기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미미한 것이다. 인제를 '지식문화사회'로 만들라고 바람이 외치고 있다.

셋째, 공멸에서 공생共生으로 변화해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식이 그를 살리고, 그가 살면 나도 산다. 우리는 그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알았고, 내가 살겠다고 그를 죽였는데 결과는 나도 죽고 말았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이뤄진 것이다. 서로 살자는 씨를 뿌렸으면 그에 맞는 열매를 얻었을 텐데. 이런 공멸이 인제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하기 전에 이번 선거에서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후보들은 상대를 비방하지 않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유권자도 비방하는 사람은 찍지 말도록 하자.

바람이 분다. 바람을 타고 우리 함께 가자.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타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온다. 바람을 탄다는 건 인제가 '지식문화사회'가 된다는 뜻이다. 사람의 수준이 높아져야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농업도 사람을 따라 수준이 올라간다. 사람의 수준을 높이려면 '교육'과 '경험'이 가장 좋다(가장 좋은 교육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난은 인위로 할 수가 없다). '지식문화사회'란 간단히 말해 마을마다에서 책을 같이 읽고 대화를 나누고, 영화나 공연을 본 뒤에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농사꾼들이 참다운 농사법을 아는 가운데 올해 뭘 심을지를 각종 정보를 제시하며 의논하고(당연히 유기농이고), 지역의 〈아름다운 가게〉에서 싼값에 중고물품을 구입하고, 생활협동조합에서 몸에 좋은 먹을거리로 장을 보고, 몸이 아프면 의료협동조합에서 진찰을 받고, 노인들이 존경을 받

고, 어린이전용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을 보고, 선거꾼도 자존을 지키게 되어 충성맹세라는 사람의 존엄을 사취하는 일도 없고, 규칙이 지켜지기에 서로 고소고발하는 일도 없다.

이런 사회는 되어야 주민이 즐겁게 되어 멀리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런 사회가 되지 못한 가운데 벌이는 인구유입정책은 포장이고 기만이다. 참으로 인구유입을 하고 싶다면 내 걸은 공자의 말을 몇 번이고 곱씹어보아야 한다. 시는 주민이 즐거우려면 인제를 근본부터 확 바꾸어야 하고, 그 근본을 바꾼 결과의 모습은 위에서 열거한 대로다.

솔을 만든 뒤에 아주머니들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바르고 메밀반죽을 국자로 떠서 프라이팬에 부었다. 좌지지~ 반죽이 뜨거워 죽겠다는 소리를 냈다. 이때에 국자로 반죽을 잘 펴서 고르게 퍼지도록 해야 한다. 메밀반죽은 익을수록 시커먼 색이 났다. 반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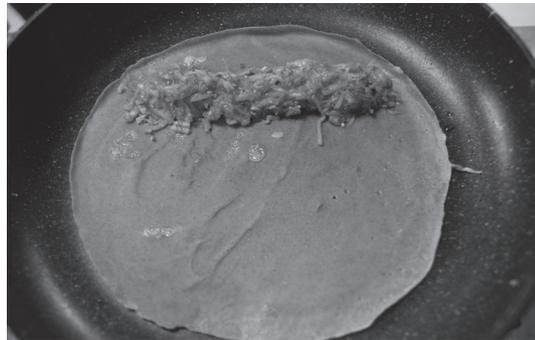


사진 4 전병에 솔을 얹었다. 이제 돌돌 말아야 한다.

밀면이 익으면 뒤집어서 익힌다. 잘 익었으면 전병에 준비한 솔을 얹고 돌돌 말아서 이리저리 굴리며 익힌다. 냄새만으로도 잔칫집 분위기가 났다.

나는 이 음식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나중에 박효남(76·월학1리) 어르신에게 이 음식에 대해 물었다. 박효남 씨는 메밀총떡을 누구나 좋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메밀총떡을 전병이라고도 불러요. 내가 어릴 때에도 이 음식을 먹었으니 아주 오래된 음식이에요. 가을에 메밀을 걷어서, 명절이나 잔치를 해야 하는 날에 해 먹었어요."

메밀총떡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분명했다. 강원도는 음식문화가 다른 지방보다는 약한데 특히 떡이 발달된 곳이 아니다. 떡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지만 강원도의 산간지방은 쌀농사가 적기 때문에 떡을 해먹을 기회도 적다. 대신 감자를 식혀서 감자떡을 해 먹거나, 많이 재배하는 잡곡을 재료로 떡을 해 먹었다. 그런데 떡을 하려면 썰어야 하는, 매우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썰어야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메밀총떡이 사랑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심선옥 씨가 완성된 메밀전병을 접시에 담아 나에게 주었다.

방금 만든 메밀전병은 그런대로 먹음직해 보였다. 나는 조금씩 떼어먹어 보았다. 메밀 부침개가 씹히는 맛은 어느 부침개와 비슷했다. 뒤따른 솔의 맛에서 무채보다는 마늘의 칼칼한 맛이 더 강



사진 5 순대처럼 속이 보이는 메밀전병

하게 났다. 하나를 다 먹긴 했어도 내 입에 맞는 음식은 아니었다. 맛을 보려면 두세 개는 먹어야 했지만 나는 하나밖에 먹지 못했다. 확실히 이 음식은 내 입에는 맞지 않았다. 음식을 만드느라 애를 써준 주민들에게 미안했다. 그래도 건진 사실은, 내 입에는 맞지 않아도 메밀총떡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음식을 싫어하리라는 나의 선입견이 깨졌다. 하나가 깨지면 다른 선입견도 깨지기가 쉽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제법 사람다워져 가겠지. ★

2010년 4월 19일에 취재했고, 2011년 10월에 마무리했다.

취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이원희(44) 월학 1리 4반

박성숙(42) 월학 1리 4반

심선옥(52) 월학 1리 5반

서연숙(40) 월학 1리 3반여



·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회원 글

오정진 _ 세상 외 2

박돈녀 _ 술의 연가 외 3

허계홍 _ 봄의 무늬 외 2

한명숙 _ 아주 오래된 책에서 외 2

이근구 _ 흙의 마음 외 2

전영숙 _ 설원 외 2

한용운 _ 존재와 삶, 그리고 봉사

· 기고문

원통이야기 _ 김경애

서울에 산다 _ 이주형

제 3 장
기고문

세상

오정진

광막한 무한 공간 조무래기 이 행성에
연약한 하루살이 태어난 목숨들이
한세상 살아내기가 이리도 버겁구나

짐승도 버러지도 너와나 우리 모두
목숨이 무엇이길래 놓지를 앓으려고
진땀을 흘려가면서 아등바등 하는구나

미구에 사라져갈 가련한 존재들이
어째서 예서제서 총질하고 자폭하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틀개질을 하는가

피난 避難

오정진

서로가 믿지 못하고
결눈질로 흘끔거리는 마을

숨 막히는 세상이 싫어
고향을 버렸다

논밭도 집도 이웃도
모두 버렸다

하늘을 울타리삼아
정처 없이 떠날 때의
그 막막함

오가는 바람에 옷깃을 날리면서
정든 고향을
버렸다

친구를 보내며

오정진

팔순의 고개를 넘어서니
몇 안 남았던 친구들마저 하나 둘
떠난다

시름시름 앓아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떠나들 간다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친구야
하직인사도 없이
잘 있으라는 손짓도 없이
떠나는 친구야 어느 세상 어느 곳에서
우리 또 만나리
쓸쓸하기 짝이 없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

가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잘가라 친구야
부디 부디 잘가라

술의 연가

金園 박돈녀

억눌렀던 언어들 탈출이다

녹녹한 내안에 훈풍 불어오고
흥터처럼 남았던 오래된 절망들이
상현달처럼 차오르고 있다

묻지도 않은 답이 쏟아져 나와
꼭꼭 눌러 논 감정덩어리들
새털처럼 가볍게 날고
우주 어디쯤에선가
흩어졌던 그리움들
제자리 찾아오는 시간

비워진 술병에 별이 쏟아진다.
나는 별 밭에 누워
히죽 이죽 꿈을 꾸고 있다.

치매

金園 박돈녀

텃밭 서성이던 고무신
뒷마루 밑 응달 속에
거미집이 되었네

놓아버린 일상
죄인처럼 삭발한 어머니
교도관처럼 나는
지키고 있네

어릴 적 젖 물고
더듬던 따뜻한 가슴
지금은 텅 빈 바가지처럼
허전한데

바라지게 핀
도라지꽃
발둑에서 기다리는
몽당호미
언제 문턱을 나서려나

어머니.

짜사랑

金園 박돈녀

명약도 없는 불치의 속병으로
온밤을 지새다
신열로 깊어진 그림자 데리고
무서리 내린 들판에 서서
가슴을 행군다

우물 속 반달 눈감아도 맴돌아
이무기처럼 서럽게 울던 밤
집착으로 얻은 고통의 굴레

안으로만 삭히는 혼자만의 그리움
가슴을 진동하며 울려나는 그에 목소리
처연한 슬픔을 서리처럼 뿌린다.

석류

金園 박돈녀

누가 그 어둠 속에
그리움을 가두었는가
어지럽게 달아오르던 여름
신열로 앓아눕던 오랜 기다림

그 어둠의 심연
고개 숙인 다문 입술 열어
선혈처럼 홍보석으로 터져 나올
그리움 알알이 쏟아 놓으리.

봄의 무늬

허계홍

하얀 목련 숨소리되어
바람으로 다가 오면 안되겠니

이름없는 들꽃 되어
구름으로 다가오면 안되겠니

햇빛 머금은 강물에서
흐르는 사랑으로 다가오면 안되겠니

입춘이 지나면 어김없이
보일 듯 속삭이는 봄의 무늬여

진달래꽃술의 이슬방울 되어
진통같은 그리움으로 다가 오면 안되겠니

쏟아지는 빗줄기 되어
저린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면 안되겠니

언 가슴 녹여주려고
활짝 웃으며 다가오면 안되겠니

땅위에 새싹 고개 내밀듯
희망을 싹틔우는 봄의 무늬여

석양의 고독

허계홍

호흡을
같이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구
땅끝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진다

끓주린 고양이 토해내는
울음소리가
하얗게 눈 덮인 지붕 위를 양칼지게 지나가고
넓은 마당 한켠에 놓인
장독대의 반들반들한 숨소리가
속 깊은 겨울 속으로 꿈틀꿈틀 기어간다

떼쟁이 아이처럼
한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길가에 웅크리고 서있는 전선줄을 마구 흔든다
푸르기만 했던 담쟁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담벽에
숨어있던 석양빛이 허허롭다

닭은 꿈

허계홍

알콤달콤 닭았다
아버지를 빼닭았다

남편의 이목구비가 아들얼굴에 확장된다
아들과 남편이 노오란 해바라기처럼 겹친다
식탁에 앉아 밥 먹는 옆모습이
아버지를 입고 왕성하게 순환한다
소탈한 성격 걸음걸음마다 감춰지지 않는
남편의 얼굴

꼭 닭은 정자
어련하겠나 아들을 사랑한
또 하나의 닭은 아버지의 유일한 유전자인 것을...
생각에서 생활까지 지위도 지위도 겹쳐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편과 저편의 어쩔 수 없는 닭은꿈이다

아주 오래된 책에서

한명숙

추억을 먹었다
이해가 가지 않던 시절에 읽었던
그리운 책을 다시 집었다

오랜 온기가 남아있는
어머니의 젓가슴 같은 비릿한 낡은 냄새
질펀히 흐르는 안개 속 작은 능선
얼음이 피워 올린 추운 안개는
차마 오르지 못한 하늘 길 아쉬워
아픔을 되새김질 하듯
그 값싸고 험한 그리움들을 물들인다

문득 멈추어버린 시간
홀연히 지나가는 바람, 곁에서
살아가는 이유조차 아직 찾지 못한
오랜 인연
책 속의 첫 사랑은 그 기억을 붙잡고
오래도록 숨을 쉬고 있었다.

열반주

한명숙

세상시름 다 놓고
실컷 자다 실컷 놀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숨 쉬는 일까지도 놓고 싶다

상념의 끝을 놓아주지 않던
말 많았던 지난 시간들
단물이 다 빠져나간
오랜 질경거름으로 남아있는 삶

맥주잔에 소주 한 잔 부어
맥주로 채운 소맥 한 잔
심장으로 들어가 모세혈관 지나
오가는 정 덩으로 없어지면

앉아있는 게 구름위요
말하는 게 설법이라
삼라만상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세상이 다 내 것이라

오호! 요상한 그 것
몸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트니
욕심낼 것도 없고
시시비비도 별것 아니더라

가꿈은

한명숙

한 열흘, 스무날 소금물에 푹
절였다 나오면 정신이 맑아지려나
별다르게 욕심낸 적 없고
모질게 산적도 없건만 정신이 몽롱하고 흐리다

어찌 세상 인심사 이리도 험란하고 야속할까
그런 날도 있었을테지
미워한다 원망해도 궁금해지고
무심타 돌아서면 다시 보고 싶은

열어 보이는 가슴마다 한숨만 나와
산골마다 흘러드는 녹음 붙잡고
산도 되어 보려하고
한련화, 분홍짚레, 나리꽃
활짝 웃으며 반기어도
아직도 돌아서면 정신이 몽롱하다

흙의 마음

이근구

밭기는 쟁기 끝에 황토향기 묻어나듯
진득하고 폭삭폭삭한 호미 끝 촉각 같은
군지도 헤실 하지도 않은 그런 삶 살고 싶다.

뿌리 뺨기 수월하고 올곧게 서기 편한
그런 땅 되도록 손질하는 나의 하루
영육의 힘겨루기도 뜬구름 아니던가

흙처럼 낮은 자리에서 말없이 웃으며
흙과 동행하며 살붙이 머슴되면
모성의 흙의 마음을 나도 따라 배워질까

유순한 흙을 닮아 온갖 생명 솟게 하고
어둠속 빛나는 말로 들꽃 같은 시를 써
텃밭에 시 모종하는 순리의 길 가고 싶다.

이근구

- * 월간 모던포엠, 강원시조시인협회 고문
사)시조사랑시인협회 부이사장, 사)시조문학진흥회 자문위원,
강원문인협회, 시조문학문우회 이사.
- * 시조집 「들꽃 동행」 외 다수.
- * 수상 [한국시조문학상] 외 다수.

벽을 닦으며

이근구

거미줄 흙먼지 털고 농막의 벽을 닦는다
닦으면 닦을수록 처음처럼 새하얀 벽
옛날이 그리워진다 용소머리 고향집

비바람 연기에 그으른 시커먼 벽
황토 횃물 짚솔로 쓰윽 쓰윽 바르면
어느새 아버지의 손은 새집을 만드셨다

수채에 깡지처럼 얼룩진 마음의 벽
말갱고 하얗게 샘물에 행구듯이
농막의 벽을 닦는다 회한까지 닦는다.

보리암에서

이근구

세월은 산을 쪼개 애애(皑皑)한 섬 띄우고
허튼 층 쌓은 금산 사리로 앉은 가람
발끝에 섬들을 뿌려 산창 한결 청려하다.

양그러진 산정에선 이국도 저만친데
단에 끝 고란 잎새 없는 듯 귀를 열고
부처손 오체투지에 독경소리 옷에 배네.

전설은 늙어가도 젊어지는 저 산 빛
청산이 도량이요 낡음 또한 해탈인데
청고한 삶이 도리를 산 올리는 보리암

설원

전영숙

소복이 쌓여가는 등근 선들의 화합으로
그 누가 감히 근접 할 수 없는 사선이
하늘에 닿으려 한다

기적 같은 아침풍경
고고한 자태의 엄마품속 같은 포근함
너무도 쉽게 마음을 내어주니

황홀함을 애써 감추지 못하고
끝내는
새로운 설원과 악수를 한다

안식처

전영숙

높고 싶은 바다
푸른 빛 바위의 숨소리는
자장가가 되어 잠들게 하고

투박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빈 속을 채워
풍요로운 삶을 보태준다

은빛물결 넘실대는 파도는
힘겨움의 땀방울을 식혀주어
의미 있는 모래언덕이 되어 준다

국화차

전영숙

봄이 가까이 있는데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겨울동자의 시샘은 끝이 없네

작년 가을별에 곱게 말린 국화차 한잔에
아쉬운 마음을 실어봅니다

앞 개울가
물총새의 따사로운 입질은 쉴 줄을 모르고

물속 빛깔보다 더 푸른 날개 짓은
생명 연장의 끈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다

노을빛이 잠들어 가면
살포시 내려앉은 웃음이 더해지고

눈이 가는 곳 곳에는
출렁이는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존재와 삶, 그리고 봉사

한용운

요즘 주민들 의식의 “불꽃”으로 불리는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21세기 문턱에서 그 많은 재해, 재난, 사고, 사건들이며, 다양한 인간 욕구들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 내지 지방 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미처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이 사회를 건전하게 지탱 유지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 자원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며 봉사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사람은 적어도 자기 이웃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삶의 기준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의식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존재로 인해서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끝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과연 나는 이 사회에 절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는 아닌지?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는 과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그릇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자 인가(?) 하는 의식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회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남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자기 자신은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또한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각종 세금과 기부금 같은 것을 내고, 그리고는 귀찮은 반상회 같은 곳에도 나간다고 생각하

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이상에 변민하는 인간적인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가짐은 오늘 의 문제를 바르게 알고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와 같은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 꿈은 꿈, 이상은 이상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현실은 오늘의 문제인 것이요, 꿈과 이상은 내일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에 한 일에 대한 성취감이 있어야만 내일의 문제를 맞을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서 자신과 자기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옛말에도 “인무기물인, 물무기인물(人無棄人物, 物無棄人物)”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버릴 사람도 없고, 또한 버릴 물건도 없다는 뜻으로서 모든 이웃들이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좋으면 당신이 좋고, 내가 옳으면 당신이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참된 복은 자기 자신이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힘써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보은하려는 마음,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마음, 남의 마음을 얻으려고 연습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처럼 자기만의 개성이 뚜렷한 얼굴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얼굴 같이 신비스러운 것도 없다고 봅니다. 사람의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골상에서 나오고, 골상은 그 사람의 심상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은 마치 고양이 같은 얼굴, 독사 같은 얼굴, 원숭이 같은 얼굴, 시어머니 같은 얼굴 등등, 각양 각색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 같은 얼굴, 친정어머니 같은 얼굴, 천사 같은 얼굴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격체로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열어가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 인간의 얼굴 근육은 80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의학적인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좋은 얼굴 표정 근육은 17개, 나쁜 표정은 43개, 그리고 나머지 20개의 근육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좋은 얼굴 표정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마음의 표정은 행복의 저금통이요, 남에게 호감을 주는 표정은 성공의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요. 또한 아름다운 얼굴의 표정은 추천장이며 신용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신과 봉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봉사는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지요.

오늘처럼 다변화된 사회의 저변 소득층 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일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서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가는 데는 그 운영과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운영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체계적인 전문성이 양성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생명존중의 의식, 사랑과 정의, 자유와 평화, 행복추구권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또 자원봉사의 본질적 가치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일방적으로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치유와 재활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리고 사회정화와 개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공공사회의 복지가 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인 공통분모의 책임감이 폭넓게 조성되어 참여 봉사자와 참여 공동체의 연대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의 평가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욕구 및 문제해결 방안이 여러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미래지향적인 가치성 창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자선적, 선별적, 단편적인 봉사 서비스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며,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의 협의 조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봉사 프로그램 연구와 평가가 있어야 하고, 복지문화 풍토조성 및 홍보도 전개되어야 합니다. 실용적, 체계적, 기획적인 관계분야를 연계한 상호 교류기회가 부여되는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사회와 21 세기 주민복지 공동체 구성으로 인간성의 재조명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간의 존재와 가치성 및 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모든 주민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잘사는 그러한 밝은 복지국가와 지역사회로 바꾸려면 봉사자들의 귀중한 자기 자신의 시간에서 모름지기 10% 이상을 봉사하겠다는 기꺼운 마음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재와 삶, 그리고 봉사의 아름다운 불꽃을 밝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선진 복지국 한 걸음씩 나갑시다.

김경애 • 수필가/원통 부강철물 운영

원통이야기32

등짓말

생각해보면 참으로 오래 전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일이었으니까.

서울에서 영어 선생님이로 재직하시다 이곳 원통중고등학교로 부임해 오신 서 선생님은 학교 바로 뒷마을 등짓말에 자리를 잡고 사셨다. 내가 그 집을 자주 가게 된 것은 아이들이 같은 학년이라 자연스럽게 자주 만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 집 사모님은 시골에 마땅한 친구도 없고 적적하던 터에 나를 만나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해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다. 등짓말을 자주 오르내리다 보니 나는 다른 이웃들과도 친한 사이가 되었다. 지금도 가슴 한쪽에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지숙이엄마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짹짹하고 알뜰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연한 배맛이다. 거기다 농사도 알토란 같이 잘 지었다. 적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그이는 가을추수가 끝나면 조금씩조금씩 여러 가지를 담아 맛보라고 갖다 준다. 그것이 고마워 우리 철물점에서 파는 호미와 낫을 비롯해 농기구 몇 가지를 챙겨주었다. 시장에 오면 언제나 들러서 온갖 이야기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던 그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궁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한 번씩 문명을 갈 때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는데 자기가 왜 암에 걸려야 하느냐고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갈 때마다 수척해 가는 그이 모습이 안타까워 위로의 말보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오곤 했다. 그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도 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 일로 내게는 오래도록 그림고 보고 싶은 마음의 상처가 남았다.

이렇듯 동짓말은 내게 사연이 많은 곳이다.

어느덧 서 선생님네도 시골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바로 집 옆에 붙어있는 삼천 평 규모의 네모반듯한 큰 밭을 사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 농사꾼이 되어 학교와 집을 오가며 낮에는 힘들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엔 농사일을 했다. 힘들고 고달픈 생활이었지만 선생님은 천성이 부지런하고 일한 만큼 거두는 진리에 빠져서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셨다. 바로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의 말을 빌리면 “나 원 세상에! 평생 농사짓고 살아온 나도 밤에 촛불 켜고 일해 본 경험은 없는데 옆집 선생님은 밤에 촛불 켜고 일을 한다”고 흥인지 칭찬인지 혀를 내두르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하기가 곡식은 때를 맞춰 심어야 거둘 것이 아닌가? 일할 시간이 밤이나 새벽 밖에 없으니 아마 이른 새벽 캄캄한 밤에 일찍 일어나 곡식알이 잘 보이지 않아서 촛불을 켜고 일하셨나 보다.

학교에서도 농사꾼 선생님이라고 아이들이 수군댔다. 드디어 교장선생님은 서 선생님에게 농사를 짓던지 학생들을 가르치던지 한 가지만 하라는 편지를 하셨단다. 그러자니 자연히 승진 기회도 놓쳐 만년 교감으로 퇴직하셨다. 이제는 마음 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사람 사는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영똥하게도 집을 팔고 그 좋아하던 농사도 일단 버려두고 춘천으로 이사를 가셨다. 선생님은 강원대 후문에서 원룸사업으로 탄탄하게 기반을 잡아갔다. 그래도 선생님은 일구월심 이곳 원통밭에 마음을 두고 매일 출근을 하시더니 결국 밭 귀퉁이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혼자 와서 농사를 지었다. 사모님의 말에 따르면 농사에 미친 사람 같다고 했다. 춘천에 대궐 같은 집 두고 좁아빠진 컨테이너 박스에 밭 디딜 틈도 없이 해놓고는 그래도 그곳에 누우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것 같고 잠도 잘 온다며 자기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라고 했단다. 심심하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하기 싫으면 마음껏 쉬는 그곳이 선생님의 가장 좋은 안식처라고 했단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영똥한 곳에서 불거졌다. 춘천에서 잘 되는 원룸사업으로 모은 돈을 선생님이 혼자 짊어지고 변변한 소득도 내지 못하는 농사에 사정없이 쏟아 붓는 것이다. 비료 사서 풀 키우고 그 풀 베다 보면 곡식은 때 지나고 시기 지나서 소득도 없이 백만 원 들인 곳에 십만 원도 못

한다니, 참 듣고 봐도 딱한 노릇이긴 했다. 그래도 선생님이 좋다는 데야 무슨 할 말이 있는가!

그렇게 싸움하며 세월을 보내다 과로에 지친 선생님이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서울 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자의 도움으로 급한 수술을 받고 겨우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다는 소리가 “더덕씨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사모님 말이 “무슨 더덕씨?” 그랬더니 더덕씨 두 말을 팔십 만원에 사서 컨테이너 박스에 두었다고 처리하라고 했단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그 작은 알갱이 한 말만 해도 온 밭에 뿌리고 남겼는데 두 말 씩이나 사다니. 돈도 그렇지만 죽을 사람 살려 놓으니 눈 뜨자마자 부인도 자식도 아닌 더덕씨부터 챙기는 것이 어찌나 쾌심한지 눈물이 다 나더라는 사모님의 하소연에 나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이런저런 핑계로 병문안 한 번 가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가게에 불쑥 나타났다. 너무나 놀라 안절부절 못하는데 사모님이 뒤따라 들어섰고 운전을 해 온 딸이 ‘잠시 춘천집에 들렀다 가려고 임시퇴원을 했는데 극구 원통 밭으로 먼저 가자고 떼를 쓰셔서 할 수 없이 이곳으로 먼저 왔노라’고 했다. 도대체 밭에 무엇이 있기에… 대단한 정신력이었다.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도 얼른 따라 나섰다.

오랜만에 등짓말 길을 가다 보니 언제 길을 넓히고 포장을 했는지 이 길이 옛날에 그 등짓말 길인가 싶었다. 옛날에는 택시도 잘 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동네가 이제는 집이며 길이 환해졌다. 완전 딴 동네 같다.

선생님은 밭에 내리자마자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중요한 것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옮기라고 지시했다.

딸이 말했다.

“엄마 아버지가 이곳에 오시더니 견지도 못하던 사람이 밭걸음을 옮기시네.”

그렇구나! 오직 한 곳을 향한 사람의 집념은 무서운 것 같다.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내게 음식을 마음대로 잡숫지 못한다는 아쉬운 말을 남기고 춘천으로 떠나는 선생님 일가족을 배웅하며 내게 ‘앞으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오래 사시면 그 밭이 선생님에게 효자노릇을 할 것 같다’는 희망에 감이 들었다.

원통이야기33

대청봉

세월이 빠르다. 내가 이곳 설악산 가까운 원통에 자리 잡고 산 지도 어언 50년, 강산이 다섯 번 변했다. 꽃다운 나이에 이곳에 와서 이제 내 나이 칠십, 반백이 훌쩍 넘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간 것 같은 아쉬움이 내 마음을 서글프게 한다. 그토록 바쁘고 힘들어서 앞뒤 돌아볼 틈도 없었던 시절도 지나고 한평생 사랑했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났다. 이제사 나는 허리도 펴고 하늘을 쳐다보며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고 생각한다.

어느 날 문득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섬광처럼 확 지나간다. 아직 아픈데도 없다. ‘그러면 됐지! 찾아보자 무엇부터 할 것인가.’

어느 날 교회에서 대청봉 등산을 간다는 광고를 붙여 놓았다. 이곳에 살면서 그 유명한 설악산 대청봉을 나는 여태 한 번도 가볼 생각도 못해본 것이 부끄럽다.

‘이번엔 나도 꼭 한 번 가 봐야지.’

혼자 마음의 결심을 세웠다.

신청지에 이름을 적고 보니 가기 힘들 거라며 극구 말리는 사람과 갈수 있다고 격려하는 사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이다 또 결심하고를 몇 번이나 거듭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의 갈등은 심해졌다.

드디어 D-1일. 나는 약국에 가서 무릎보호대를 샀다. 그리고 간단하게 짐을 꾸려 배낭을 메고 이른 새벽에 등산 대원들을 따라 버스에 탔다. 오색에서 곧바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일일코스라고 했다. 사실 나는 하루쯤 타고 왔으면 했는데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총 15명의 일행이 등산의 첫 발을 내디뎠다. 그곳에서 최고령자는 역시 나왔다. 나는 속으로 잠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오늘 정상까지 잘 올라갔다 무사히 다녀오도록 내 손 꼭 잡아주세요.”

처음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얼마 올라가지 않아서 난코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쯤이야 각오 한 바도 있어 문제없이 고지를 향해 한 발 한 발 오르는데 등줄기에서 땀이 흐르고 이마에도 비 오듯 쏟아진다. 할 수 없이 잠바를 벗어 허리에 둘렀다. 전날 독감예방주사를 맞은 것이 마음에 걸리더니 자꾸만 콧물이 나온다.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다잡으며 오르고 또 오르는데 중간 정도도 못가서 아직 멀었나, 얼마를 더 가야 하나, 힘이 들어 숨이 턱에 닿는 것 같다. 길은 얼마나 가파르고 험한지 잠시 옆을 돌아 볼 수도 없다. 느긋하게 구경할 시간도 없고 오직 앞만 보며 고고행진을 했다.

여러 번 등정을 하신 목사님께서 폭포가 나와야 반 온 거라고 말씀하신다. 아무리 올라가도 폭포는 나오지 않는다. 후회 같은 것이 약간 머리를 스친다. 세차게 머리를 흔들며 부지런히 앞서라만 보고 오르고 또 올랐다.

산중턱은 온 것 같다는 생각에 사방을 둘러보니 긴 다리가 보이고 우거진 숲 사이로 물소리가 들린다.

“아 폭포다!”

반가운 목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자대원 두 명이 기권했다. 그래도 젊은 여자 세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다. 나는 여기까지 그들과 잘 맞추어 잘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으리라 결심이 섰다.

물가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배낭을 좀 더 가볍게 비우기 위해 김밥도 꺼내먹고 과일도 먹었다. 서로 준비해 온 것을 나누기도 했다. 등산에 좋다는 것은 다 나왔다. 모두들 세심하게 준비를 해온 것 같다. 나는 준비해 간 파프리카를 건네주고 초콜릿을 얻어먹었다. 다소 짐이 가벼워지고 좀 쉬고 나니 다시 새 힘이 생겼다.

우리는 출발 소리와 함께 또 가파르고 벼랑 같은 길을 올랐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일가족 네 명인 가족등산객을 만났다. 어린 남매 아이들을 데리고 부부가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옳지 잘한다!”

나는 도대체 저 어린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가? 또 정산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너무 궁금해서 앞질러 가며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았다. 아이들을 격려하며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그들에게 나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비록 그들이 정산에 오르지 못한다 해도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포부와 인내를 심어줄 것인가 하는 생각에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어느 덧 나도 지쳐서 자꾸만 정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워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정산은 어디란 말인가?

갑자기 태산이 생각났다. 오르고 또 올라야 갈 수 있는 곳이라 했거늘 오르지 않고 산만 높다고 하면 오르지 못한다는 깨달음이었다. 이곳까지 와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힘을 내어 또 걸었다. 가끔 집채 만한 큰 바위가 앞을 턱 가로막기도 하고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다.

어느 덧 능선이 나오는가 싶더니 위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이제 다 와 갑니다. 벗은 옷들을 입으세요. 자칫 잘못하면 날아갑니다” 하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정말 이제사 끝인가?’ 싶은 것이 잠시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진짜 그렇게도 땀이 나고 덥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찬바람이 췌하고 불어왔다. 능선에서 제일 높은 곳이 정산이란다. 그곳은 완전 딴 세상이었다. 바람이 걸 잡을 수 없이 불었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바위 옆에 쭈그리고 앉아 대청봉 정상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오직 큰 돌 하나에 ‘대청봉정상’이라고 쓰인 글씨만 덩그러니 서 있고 주위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삭막하기 그지없는 곳이었다. 그래도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속초와 양양 그보다 더 먼 곳까지 볼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 왜 그러는가 했더니 대청봉정상 그 돌을 앉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 세찬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정산에 올랐다는 것만을 만족하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래도 조금은 아쉬워서 제가끔 품을 잡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잠시 바람을 피해 옹기종기 모여앉아 감사기도를 드리고 배낭에 남은 음식을 다 비우고 곧바로 하산을 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수월했다.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고 용기도 주었다. 내가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내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제는 나도 정상에 올랐다 내려간다는 자부심과 해냈다는 기쁨이 마음에 꼭 차서 날아가는 것 같았다.

위낙 가파른 길이라 내려오는 것도 결코 만만치는 않았다. 자칫 잘못하면 발을 뺄 수도 있다. 앞서가던 어떤 분이 약간 흔들리는 돌을 밟고 비틀거렸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정의의 사자 같은 우리 일행 중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얼른 그 돌을 번쩍 들어 치웠다. 뒤에 내려오는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시점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등반의 큰 힘이었다고 나는 혼자 생각했다.

내려올수록 점점 발목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일행들이 하나둘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다. 그때사 생각하니 기껏 준비해서 사둔 무릎보호대를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는 생각이 났다. 바보 같다고 자책하는 내가 안쓰러웠는지 다른 집사님 한 분이 보호대가 한쪽 밖에 없다면서 내게 내밀었다. 이건 아닌데 싶었지만 너무 다급해서 일단 왼쪽 무릎에 착용했다. 훨씬 수월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또 기도를 드렸다.

“이곳까지 와서 다리 아프다, 걸음도 못 걸겠다 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도와 주세요.”

기도의 힘으로 한 발 한 발 내려왔다. 맨 마지막 난코스 돌밭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엉금엉금 기어서 애기처럼 내려왔다. 최선을 다한 최고의 날이었다. 하지만 너무 정상에 올라야겠다는 집착에 주위에 펼쳐진 정결과 아름다운 단풍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나는 이제 인제군민 중에 대청봉을 오른 한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서울에 ‘산다’

이주형(원통고 졸, 한성대학교 신입생)

‘산다’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이다. 예컨대, ‘밤’처럼 말이다. 먹는 밤이나 어두운 밤이나에 따라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이 ‘산다’라는 단어 역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인제에서 산다’와 같이 살아간다는 뜻의 산다와 ‘집을 산다’와 같이 특정 상품을 구매한다는 뜻의 산다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단어의 이중성은 때때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만큼은 구분될 필요가 없는 듯하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서울에 오면 쌀 정도는 돈을 주고 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은 처음 감자를 마트에서 집어 계산대에서 계산했을 때의 당혹감이란 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감자란 인제에서는 그저 언제든지 창고에 가면 쌓여있는, 말하자면 먹을 수 있는 돌맹이 수준의 가치를 지닌 작물이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산다는 발상 자체를 해본 적도 없었다. 오히려 감자로만 끝났으면 다행이고, 마을 뒷산에 가서 대충 주워오던 밤이라거나, 봄철에 뜯어오면 충분한 나물들도 모두 돈을 주고 사야하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서울은 뒷산 대신 앞마트가 있었고, 뒷산의 작물들은 소유주가 없었지만 마트의 작물들은 모두 엄연한 소유주가 있는 것이다. 딱히 인제와 다를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인제의 논에는 벼이삭이 주렁주렁 열려있지만, 서울의 마트에는 이삭 대신 지갑들이 주렁주렁 열려있을 뿐이다. 농부가 벼를 키우듯이 그들은 돈을 키운다.

이런 서울에서 지갑은 필수품이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지갑 없이는 집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없다고 보면 된다. 설사 어디서 놀러간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강가에서 고기를 구워먹거나 산에서 열매를 따먹는 등의 행위는 꿈에나 그럴 법한 일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행위 자체가 서울사람들의 뇌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래방, PC방, 배팅장, 아니라면 커피숍에서 떠들기 정도가 그들이 생각하는 ‘논다’라는 개념

인데, 여기에서 다른 놀거리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논다’라는 행위가 돈의 소모로 직결된다는 점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어디를 가더라도 필히 천 원 정도의 돈은 있어야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서울에서의 삶이다. 따라서 이들에겐 ‘산다(Live)’와 ‘산다(Buy)’가 혼동되는 것도, 아니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다.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산다는 것이 되니까.

언제 한번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한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서울은 어떠냐?”고 한 물음에, 그 친구는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곳 같은데……”라며 여운을 남긴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때의 대답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는데. 그때야 돈 없는 가난한 학생 신분을 타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옳다, 하며 친구의 통찰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잿빛 하늘이나 칙칙한 빌딩숲이야 3일이면 눈에 익어 별다른 감흥도 없어지지만, 이런 본질적인 생활양식의 차이에 있어서는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다. 물론 상당한 ‘돈’의 소모로 메울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굳이 메우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돈으로는 거의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소리기도 했다.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요, 친절한 미소와 안락한 시간. 오랜 시간 친절을 모토로 발전해온 단단한 서비스업이란 토지 위에 손님이란 이름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 역시 아주 손쉬운 일이었다. 황금만능주의가 대체 왜 생겼는가, 한다면 대개 황금만능주의자들은 서울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황금만능론이 반쯤은 농담일 수 있어도 반쯤은 진실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런 서울에서 살아가는 이상, 내 지갑 사정도 여의치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말 인체에 있을 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돈들이, 정말 별볼일 없는 이유로 빠져나간다. 한때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했던 - 흔히 ‘서비스’란 명목으로 다소 과하게 책정된 금액이지만 - 것들도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져서 당연히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 서울은 비싸다. 그런 서울에서 사는 것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는 생각. 밥 한 끼 내지는 돼지고기 300g 값의 커피 한 잔을 입에 쑤셔 넣으며 시간을 때우면 아무

리 인제 촌놈이라도 서울시민화(化)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새 30%가 인상되어 1,250원의 지하철값도 눈 하나 깜짝 앓고 내기 시작하면 나도 내심 서울시민이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비싸다’라는 단어의 허들은 높다. 그들이 사는 방식은 무언가를 사는 방식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꾸준한 지출 중에서도 유달리 높은 지출만이 그 영예로운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린 나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자면, 문득 외로워지는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받는 친절, 돈으로 맺어지는 휘발성 관계. 모든 것이 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내가 사는(Live) 것인지 사는(Buy) 것인지. 이젠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하늘내린어르신백일장 입상작

· 제14회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입상작

·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입상작

제 4 장

백일장 입상작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하늘내린 어르신 백일장

주최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하늘내린어르신백일장
최우수상

발품 좀 팔아서 실한 알곡을 골라내야 쥬

이 봉 재

선거 때만 되면 콩 튀듯 날고뛰는 저 알량한 인사들
어떤 것이 알곡인지 뉘인지 쉽사리 가릴 수 없는
세 치 혀의 현란한 궤변들,
번지르하게 차려 입은 양복 속에 감춰진
저 검은 위선들,

이리저리 헛갈리고 귀찮아서 눈 감고 귀 막고 포기해 버린 선별권,
내가 골라내지 못한 뉘들이 공리공론(公理空論)으로 분탕질하는
텔레비전의 뉴스를 언제까지 보구 살려우
선거 날 하루 내 몰라라 외면하고 삼사 년을 허나 끌끌 차며 사시려우

이번엔 내 발품 내가 팔아 내 손으로 뉘를 골라 치우고
 내가 선택한 실한 알곡들이
 내 속내에서 우리나라오는 알찬 견해를 당당하게 대변해주는 꼴을 봐야쥬
 콩 타작을 하기 전에는 알곡과 벌레 먹은 뉘를 골라낼 수 없잖소
 서릿발 성성한 늦가을 날,
 마당에 콩솥을 짜악 퍼 깔고
 도리깨질로 잘근잘근 두들겨서
 후즐그레 해진 콩 쉼을 시퍼렇게 날선 낫으로 걷어내고
 선선히 불어오는 샛바람에 키질을 하면
 콩깍지와 벌레 먹은 뉘는 날카로운 비질로 여물통으로 치워지고
 누렁고 실한 알곡은 바로 코앞에 산처럼 쌓여지잖소.

이렇듯,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안목으로 선량들을 지켜보면
 표를 쥐고 있는 이네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거짓뿌렁은 엄두도 못낼 거
 외다.

그렇게 잘 선별된 알곡들이 나랏일을 해야쥬
 세상사 다양한 견해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거늘,
 내가 발품 팔아 골라낸 알곡들이 바른 일 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물어 가는 삶의 가을날, 석양을 평화롭게 즐겨 보시구랴.

하늘내린어르신백일장 입상작
우수상

선 거 철

최영선

선거철이 되면 공연히 짜증이 난다
알 수 없는 사람들,
생전 보지 못한 얼굴들이
서로 찍어 달라며
약수를 청해온다

왜 그들은
높은 곳에서 선거철이 돼서야만
내려오는 걸까,
미리 낮은 곳에서
그늘진 주변을 찾아주며
친근한 얼굴로 익혔더라면
믿음과 진실한 표가 많아질 텐데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을 보면
다 똑같아서
투표 안하고 싶다

그러나
내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포기 할 수 없다

나는 사랑하는 내 나라 국민이니까
내 한 표가 더 발전된 정치로 바꿀 수 있고
그늘진 곳에 한가닥 빛으로 추운 곳에 따뜻함을 소망하며
그래도 희망을 안고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해야지

자연과 사람은 하나이며 희망입니다

제14회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주최 내린천예술인회 · 강원일보사
후원 인제군 · 인제문화원

제14회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입상자명단

상 급	부 문	성 명	제 목
대상	전체	송연숙	빗소리
장원	운문	권순덕	유년의 뜰
	산문	전영선	봄날
차상	운문	김정미	건봉사 소나무
	산문	김인기	봄날
차하	운문	강신월	봄날
		정애련	봄날
	산문	김미숙	꼬막사러 가는 날
		서미숙	빗소리
장려	운문	이순미	유년의 뜰
		함경선	봄날
	산문	박효신	유년의 뜰
		정승엽	유년의 뜰

전국여성환경백일장

대상

빛소리

- 강가 카페테라스

송연숙

미루나무 돛을 단 작은 섬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
강 건너 마을 끝에서부터
하나씩 풍경을 지우며 저녁은 건너온다
국화꽃 울타리 사이로
붉은 벼를 쭉 내민 맨드라미 한 마리
잠을 청할 회를 찾는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다.

소매 끝에 달라붙은 지친 얼룩을 데리고 와
느긋하게 앉아 있는 쉼표들
주름진 시간의 스카프를 풀어 놓은 채
하염없이 강과 마주 앉아 있다
때 절은 기억 속에서 잔 물결치는 사람
미루나무 돛단배를 제 몸 안에 가두고
흘러간 강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어둠의 틈을 메우는 음악 위에
빛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떨어지는 것들을 불러내는 빛소리
국화 향기 속으로 조용하게 스며든다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장원

유년의 뜰
- 눈 오는 밤

권순덕

산까지 한마리
쓸쓸히 이마를 짚고 돌아서 가면
저녁 어스름
오지 뚝배기에
담복장을 꿰이고 싶은 저녁이면
눈이 나린다.
희끗 희끗
성근 눈발에
묻어나는 그리움

눈 오는 밤엔
고향에 가고 싶다.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낮은 토담 너머
아이들 찾는 어머니 소리
지금 쯤
내 유년의 뜨락에도 눈이 내리는가

시린 나목(裸木)의 가지 끝
달빛에

불면의 몸을 풀며 흐르는
은빛의 강(江)
두고 온 내 꿈의 씨앗에
젖을 물리는가

기실
인생은
고향집 구들목에
옹기종기 둘러앉은
유년의 두레밥상
그것으로 족한 것을

새삼스레
잠든 가족을 바라보며
젖어 오는 눈시울
웬지
시는 것이 눈물겨워 진다
눈 오는 밤엔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장원

봄날

전영선

물오른 자작나무의 파릇파릇한 새싹의 손짓을 찍기 위해 인제 자작나무 숲을 찾아 길을 나섰다. 설레는 마음은 나이 숫자와는 상관이 없다. 바람 소리에 이끌려 굽이굽이 얼마쯤 왔을까, 그 어디에선가 “자작자작” 불타는 소리가 들리는 듯 저 멀리 길쭉하게 죽죽 뻗은 하얀 자작나무 무리가 보인다.

새잎은 빛을 받아 반짝반짝 어서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다. 나는 차창을 내려 고개를 숙 내밀었다. 마음은 자작나무 숲으로 들어서고 있다. 꼬부랑길 운전하면 엔도르핀이 생긴다나, 어쩐다나, 그런 남편의 한마디 “추워! 창문 올려”

멋없이 하는 말이라고는..... 하기가 봄 햇살이 따듯하긴 해도 얼굴을 스치는 바람은 차다. 사진 활동을 하는 아내를 위해 기꺼이 운전봉사를 자청하고 나선 남편을 위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순종해야 할 상황이다.

자작나무는 10장에서 12장 정도의 얇게 겹겹 층으로 구운 파이 같이 한 장씩 벗겨내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고 한다. 자작나무 껍질에는 부패를 막는 성분이 들어 있어 곰팡이가 피지 않으며, 수 백 수 천 년 땅속에 묻혀 썩을지라도 껍질은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이 많다고 한다.

자작나무 껍질은 물에 적어도 불이 잘 붙는다. 약재로도 중요하게 쓰이며 맛이 쓰고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린다. 기침을 멈추고 담을 삭이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해독작용도 탁월해서 염증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는 자작나무 수액은 ‘약수’라 불리기도 한다. 이정도면 나무의 백작이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을 듯싶다.

애교와는 거리가 먼 한 남자의 아내는 자작나무숲을 보더니 오그라드는

몸짓으로 부끄러움을 잊은 채 오십대가 아닌 철부지 애교 있는 아내로 변신한다. 자작나무 덕분에 뽀뽀 세례도 받고 기분 나쁘지 않는데 하는 남편의 살짝 질투 섞인 투정을 엿보며 코웃음을 흘린다. “흥”

그러나 나의 관심은 저 멀리서 나를 반겨주는 자작나무숲, 그 모습에 반해 넋 놓고 있는 중이다. 처음 보는 광경도 아니 것만 보면 볼수록 나를 사로잡고도 남는 자작나무의 매력은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이 렌즈 속으로 담겨지지 않는 경이로움이다. 이럴 때는 유명한 작가들의 눈과 감성이 질투가 날 만큼 부러워지는 순간이다.

‘어느 날 내 파인더로 담아 올 날 있겠지’ 주절주절 어느새 흰 속살을 감추듯 파릇파릇한 새순으로 수줍게 몸담고 있는 자작나무숲에 도착했다. 나름의 감성으로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순간 숨을 멈추게 하는 한 장면이 파인더 속으로 들어온다. 벗겨진 새하얀 껍질이 빛을 받아 “팔랑팔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카메라를 잡은 손가락은 신들린 것처럼 필사적으로 셔터를 눌렀다. 나는 화답을 한다. “사랑해줘서 고마워! 존재해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나도 너를 사랑해!”

몰래 사랑하다 들킨 사람처럼 화끈거리는 얼굴을 매만지며 남편을 향해 뒤돌아본다. 쑥스러운 마음에 윙크를 하며 크게 하트를 보냈다. 뜬금없는 나의 행동에 남편은 “미쳤냐! 뭐 잘못 먹었어? 당신은 카메라만 잡으면 딴 사람 같아”

그래서 싫다는 것이다. 같이 나와도 혼자 된 느낌이 든다나, 그렇다. 카메라를 잡기만 하면 그 집중력과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지 나도 가끔 깜짝 깜짝 놀라기 때문이다. 자기가 좋아 하는 일을 해서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 넘치는 이 에너지. 모처럼 같이 동행해 주었는데 심심하게 하면 안 되지. 빼치기 전에 한마디 송 날렸다. “여보! 자작나무가 나 보고 사랑한다고 하네, 질투나지?”

남편은 비아냥거리듯 말을 흘린다. “염병 질투할게 없어서.”

“치! 질투 나면서 그렇지만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렇게 자작나무숲에서는 윈이 넘은 부부도 스멜스멜 기어오르는 사

랑의 표현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 껍질을 벗겨서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아름다운 속설을 가지고 있는 자작나무. 그래서 자작나무를 사랑의 나무라고 불리기도 하나보다. 자작나무의 하얗고 길쭉하게 죽죽 뻗은 모습에 그 누가 빠지지 않겠는가, 어느 누가 사랑을 앓겠는가. 순백의 고고한 자태는 빛을 받아 더욱 빛난다.

“여보! 고마워요 미우나 고우나 당신과 함께 이제야 제대로 자작나무에 흠뻑 취할 수 있게 되었네.”

“나도 고마워요! 이런 멋진 풍경을 가슴에 담게 해 줘서.”

사랑은 젊은 연인들에게만 싹트는 것이 아니었다. 오십 대의 중년부부에게도 자작나무 숲에 들어서니 사방에서 사랑의 불꽃이 튀기는 사랑의 말을 주거나 받거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함께해서 정말 행복해!”

멋진 공간이다. 박하향 같은 자연치유를 하고나니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뻐사뻐 한걸음 한걸음이 곧 행복이었다. 어느덧 곱게 물든 가을의 자작나무 손짓이 보이는 듯 가슴은 풍선이 되어 아직 오지 않은 가을하늘로 둥둥 불타는 사랑의 소리를 들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흰색이라서 마음의 안정을 주는 자작나무, 힐링 할 수 있는 나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무, 모처럼 부부의 정을 나누었다.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속삭이는 부부로 살아야겠다.

“자작자작.”

속삭이는 자작나무처럼.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차상

건봉사 소나무

김정미

까무룩 간 밤, 지나간
가을비 곱게 접어
빗소리를 부쳐왔다

不二門 지나 능파교로 달리는
단풍 입(口)들 부러 놓은
속(俗)의 것 같무리하다
달궁달궁 하지만
용처 꺾 쓰라한다
가을 빗소리.

귀통이 마다 매달린
맑음으로 귀를 씻어
가을별에 내어 놓고
구름 한 장 걷어다
오래 오래 닦으란다

절을 받지 않아도
살뜰히 곁을 주는
가을날의 푸르름
下心이다.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차상

봄날

- 싱가포르에서 만난 강릉 남자

김인기

말뚝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를 향해 오후 네 시, 인천발 밤 비행기를 탔다. 사위가 퇴근해서 마중 나올 시간에 맞추면 밤 열시에 도착 한다. 이윽고 그리운 자식을 만난다.

황새처럼 훨훨 비행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륙을 시도한다. 봄 날 석양의 노을은 잘 다녀오라며 서산으로 붉은 물감 뿌려 놓은 듯 하루를 마치고 넘어간다.

설레는 마음으로 멍하니 서쪽 하늘을 바라보니 어느덧 어둠은 대지를 덮고 밤하늘엔 크고 작은 별들이 서로 자기 모습을 자랑하느라 쉴 틈 없이 얼굴을 내민다. 마치 낮에 본 들판의 노란 민들레처럼 잘 어울린다. 비행기가 높이 뜰 때면 밤하늘에 짙은 별들이 한 치마 따올 듯 싶다. 한 개의 별도 못 탄 채 벌써 비행기는 착륙을 시도한다. 밤 열시에 마중 나온 딸을 얼싸 안는 엄마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행복해 보일 것이다.

며칠 지난 뒤, 우리는 싱가포르 구경을 다니고 가까운 이웃나라 인도와 말레이시아도 갔다. 아침 일찍 가이드가 몰고 온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 다리가 아파서 “아이구 다리야. 고뱅이가 아프니 다리 좀 펴야겠다. 허리 잔당이라도 아프구...” 하며 몸을 움직이는 순간 아저씨는 힐끔 돌아다 보며 묻는다.

“할머니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한국하고도 강릉에서 왔습니다.”

가이드는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악수를 청한다.

“저도 강릉 구정면 사람인데요. 강릉 떠난 지 이십 년 만에 사투리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저 구정면 제비리 박병균이라 합니다. 우리 오늘

그럽고 정겨웠던 사투리 한 번 실컷 쓰면서 다닙시다. 오늘 점심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최고로 대접하겠습니다” 하며 너무 좋아한다. 무슨 식사 대접이냐며 내가 만류하였지만, “아니에요! 저 한국 떠난 지 이십 년 만에 이렇게 순수한 사투리 쓰시는 분 처음 만난걸요. 마치 우리 엄마 말소리 같아 너무 좋아요.”

이 사투리 한마디가 이렇게 향수를 달랠 줄이야. 우린 신나게 말레이시아 풍경을 즐겼다. 향내 짙은 사찰들과 거리에 피어오르는 향내음은 우리의 향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어느덧 도착한 근사한 식당에서 드디어 점심식사가 온 식당 환하게 날라온다. 오리 훈제에다 큰 생선요리, 왕새우 구이, 전복탕수육, 말레이시아 식 나물 등등 음식이 근사하다.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도 그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묵김치와 된장맛에는 비교가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맛을 한 번 볼 수 있을까, 무려 이십 년 동안이나 그리워해요.”

“어머나 그러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왔거든요. 꼭 드릴게요.”

“정말이요?”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장난하겠어요?”

즉시 전화를 걸어 여섯 시에 집에 도착 하니 묵김치 3키로, 된장 3키로 팩에 넣어 집 앞에 나와 있으라 하니, 손뼉을 탁 치며 “웬 살다가 이런 날이 다 있어요” 하며 코를 실룩실룩한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치, 된장이 이렇게도 유명한가 다시 실감한다. 가만히 보니 구경이든 뭐든 빨리 여섯 시만 기다리는 눈치다. 일정을 숨가쁘게 서두른다. 어김없이 달려가는 시계는 드디어 여섯 시가 되어 집 앞으로 향한 우리는 이준마가 한 보따리 들고 나온 가방을 건네주며, “박 기사님 이거 잡수시고 건강하게 지내다 다음엔 강릉에서 만나요. 그뎨 더 많이 드릴게요.”

봄날 석양에 비낀 노을이 우리들 행복을 기꺼이 축하해 주듯 빙그레 미소를 띠우며 훌쩍 넘어간다. 그 아저씨도 우리도 오늘은 한가죽처럼 보내고 기꺼이 웃음 지으며 헤어지는 모습이 싱가포르 저녁 하늘만큼 따뜻하고 포근하기만 했다.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차하

봄날

강 신 월

석가탄신일이다
보리수나무 아래서 도를 깨우쳤다는
그 석가와 같은 날 태어난 그이

국화꽃 한다발 품에 안고 선산에 가는 길
영경퀴꽃, 애기똥풀꽃, 짙레꽃, 망초대꽃 등
야생화 물결 넘실거리는 들녘을 지나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오르는 산등성이
밭목까지 폭폭 파지는 낙엽, 푸르륵 미끄러지기도 하고
나무뿌리에 걸려 휘청거리기도 하면서 오르는 길

아버님, 어머님 계신 오른 쪽으로
두 개의 뗏자리를 비워 두고
성글게 짜 놓은 털모자 같은 봉분 오롯이 앉아 있다.

봉분 앞에 꽃다발 살포시 놓고,
엎드린 작은 등 쓸어 주는 봄날의 햇살
“아빠 우리 왔어요. 그동안 잘 있었지요?”

송송 구멍 뚫린 잔디 사이로
바람이 들락거릴 때마다
붉은 황토가 바사삭, 작은 먼지를 일으켰다

잔디 위로 팔랑팔랑 뛰어 다니는 어린 딸들
은방울꽃 같은 웃음소리 묘지에 가득하다

산을 내려오는데
잘 가라는 그이의 인사인가
아카시아 가지가 손을 흔들 때마다
마른 아카시아 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차하

봄날

정애련

복권 가게 보도블록 위로 그림자 길다
2등을 키워 낸 현수막이 제 덕인 양 들썩거린다
봄날 햇살에 취한 꽃가루들 오로라처럼 빛을 흘린다
그 환상에 기대 꼬리 하나 덧대본다

블록 위 꿈틀거리는 긴 그림자
잠자는 사람의 늘어진 서른 세 개의 뼈 같다
꿈꾸는 이의 척추를 닮았다

머칠째 울리지 않는 전화기,
오래 된 고목처럼 섬뜩하다.
주머니가 붕긋해야 살가워지는 손길
가난 든 살이에 서늘해진 등골
헛헛한 오후, 호랑이 장가가는 햇살에 기대본
찰나의 봄 꿈,
미지근해진 등골 오싹하게 식는다.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차하

꼬막 사러 가는 날

김미숙

별이 좋아 해바라기하기 제격인 상큼한 날, 설레발치며 까치까지 마실 나오는 천도리 장날이다. 칼 갈아요! 칼! 칼 갈아요! 칼! 씹 채소 모종을 사러 가는 길에서 뒷머리를 싸하게 스치는 확성기 소리에 웬지 모를 울렁거림을 안고 자석에 끌리듯 그곳으로 향했다.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칼, 그 칼을 간다고요?

치악산 가는 길목 골짜기가 배 내밀며 서 있고 개울가의 널브러진 돌들을 주워 다가 사방치기 신나게 한창 일 때 들려왔던 낯선 소리 그 소리. 칼 갈아요! 칼! 뽀얀 흙먼지와 함께 해성처럼 나타난 트럭을 향해 뛰어간다. 산골마을 조무래기들의 환대를 받으며 칼날은 무심함을 머금고 도도한 자세를 뽐내며 솟돌 위를 넘나들었다. 보아도 보아도 신기한 쟁기들도 많아 누런 코를 주먹으로 밀어내며 동그란 눈동자들은 칼을 따라 떼굴떼굴 굴러갔다. 옛장수 아저씨가 오시면 옛 바퀴 먹는다고 모아뒀던 동네의 칼들이 한 자루 두 자루씩 앞 다투며 달려 나온다. 웃음소리는 구름처럼 물려들더니 멍석에 스며들었고 신 바람난 아이들은 땅거미 지는 줄 몰랐다...

확성기 소리는 왕왕 대고 옛적의 모습은 없지만 진귀한 쟁기들과 부속들이 실려 있는 트럭이 보인다. 지금은 기계로 칼을 간다고 하던데, 관심을 두는 이는 나밖에 없었고 칼 장수 아저씨는 담배를 꺼내 들고는 총총히 천막 뒤로 사라지신다. 잠시 추억에 잠겼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기웃기웃 장구경을 시작한다.

옛날 옛적에 하늘에서 큰 복숭아 하나가 떨어졌다. 이것을 본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여겨 복숭아가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 하여 천도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아름다운 마을. 천직인 직장을 얻어 천도리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4년째이다. 계절이 전해주는 아름다운 풍광과 복사

꽃처럼 예쁜 미소로 정다운 이웃들이 많은 마을에 1일과 6일로 오일장이 펼쳐진다. 3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라스베가스라 불릴 정도로 화려한 위업을 자랑했었고 소박하지만 희망이 넘쳐나는 미래의 땅, 멋진 마을로 자리 잡았다.

맛난 음식으로 미식가들의 발길을 잡는 대장금 식당 앞엔 도자기, 여러 모양의 접시 또 아기자기한 종지, 투박한 뚝배기랑 옹기그릇들이 명군 장군 한창이고 그 옆엔 뽕튀기 강정들이 산처럼 쌓였는데 그중에 최고 고령자인 튀밥 영감님은 훈수를 두시는 중이다.

서너 걸음 걸으면 잠옷이랑 고쟁이 일복 등이 트럭을 암벽삼아 등반중이고 월남치마는 만국기처럼 휘날린다. 오늘은 누가 1등을 하려나 기대가 된다. 많이 팔려 나가는 것이 1등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발가락 양말 한쪽이 잘난 체하며 고개를 내밀다가 흙바닥에 쓰러진다. 장렬히 전사하며 흙분칠을 훈장으로 받았다.

양말들의 좌판을 지나면 수십 종류의 채소랑 곡식들이 까만 사각 포토위에서 새 각시처럼 고개를 떨어뜨리고는 새집으로 이사 갈 붓짐을 싸고 있었다. 쌈채소를 도서관 뒤뜰 모퉁이에 심고 꽃처럼 볼 요량으로 여섯 종류나 샀다. 덤으로 더 주신다는 인심에 손사래를 치며 더 파시라고 했다. 귀염둥이 다육이랑 허브 그리고 예쁜 꽃 화분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있었고 앙증맞은 모습이 젓먹이 아가의 손가락처럼 예쁜 다육이도 다섯 종류나 감싸 들었다.

멍! 멍멍! 어미 품을 잃은 슬픔도 잊은 채 세상구경이 한창인 누렁이 한마리가 반갑다고 웃어 댄다 그 옆에는 누렁이와 얼룩바둑이 두 마리가 더 있었는데 목엔 빨간 빨랫줄이 매어져 있었다. 방울달린 예쁜 목줄한번 못 매본 처지인데도 아랑곳 않고 너무 씩씩하고 초연하기까지 하다. 강아지 처지를 말해주듯 빨간 줄은 비좁은 와구 상자를 쓰다듬듯 쓸어내린다.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자라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봄치녀인 달래와 냉이도 지천이었다. 긴 겨울과 씨름하고 천하장사가 된 대견한 녀석들이다. 싱그러운 채소 야채 과일들이 줄과 열 맞추어 소쿠리 망석 위에 앉아서 꽃놀이 가자고 여기저기서 수다가 한창이다. 잡조름한

비린내를 풍기며 몸값 자랑하는 갈치와 자반고등어도 나른한지 지그시 눈을 감고 오수를 즐기고 있다 이런 모습은 장날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고 아주 특별한 장관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바로 옆엔 아동복을 파는데 좌판에는 귀엽고 예쁜 옷들이 즐비하다. 겨울왕국의 안나 공주가 나들이 나온 듯 드레스가 나비처럼 나폴거린다. 여자 아이라면 다들 입고 있는 드레스인데 순간 나도 모르게 드레스를 바라 보았다“뭘하시게요? 진이도 다 컸는데” 동료의 말에 화들짝 놀랐다. 눈길을 멈추는 순간 꿈을 꿴다 ‘전생에 난 틀림없이 공주였을 거야’ 너무 예쁜 옷이라 본능에 충실하며 생각을 하니 저절로 실소가 번져 졌다 실은 속내를 들킬까봐 두려워 얼굴까지 벌겍게 달아올랐다.

왁자지껄 소리에 돌아서니 튀김 포장마차가 나를 끌어 당겼다. 종이컵을 치켜들고 축배의 잔들은 기울어진다. 이웃들은 목은 인사 나누고 안부도 전하고 또 주전부리로 분주하기 짝이 없다. 주인아주머니는 튀김 만드시랴 포장하시랴 손이 열 개도 모자란다. 기다려 주는 것이 예의이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손가락이 먼저 알아차리고 김말이를 낚아채며 휘어 감는다. 달콤한 김말이 튀김은 좁은 가슴에 위안을 주고 향기를 보탠 따끈한 어묵 국물 한 모금이 나의 배꼽시계를 달래주었다. 쉬고 있어야할 나의 동공은 오징어, 고구마, 고추튀김을 흡입하고 만두를 지나 순대에 멈춰 섰다.

하얀 연기를 뿜어내며 뜨겁다고 아우성을 치며 고향까지 지르는 순대, 파리를 틀고 있던 순대는 날다람쥐처럼 재빠르게 도마 위로 뛰어내린다. 탁! 탁! 도마의 발자국을 찍어내며 개선장군처럼 온몸을 불태우는 숭고한 순대, 칼이다 칼! 주인장의 칼을 보고 새삼스럽게 놀랐다. 어디서 본 듯한 그 칼, 내 어릴 적 숯돌 위에서 날뛰던 그 칼과 흡사하다.

시아버님께서도 항상 무딘 칼날을 숯돌에 갈아 주셨다. 그날도 김장철 딱 이맘때이다. 무를 썰다가 새끼손가락의 손톱과 손톱 밑이 조금 배어져서 고생을 했다. 당신 때문에 다친 양 안쓰러워하시며 미안해하셨고 그 일로 인해 해마다 김장할 때면 왼손잡이인 며느리를 예뻐해 주시면서 채칼로 무채를 다 썰어 주시는 아버님. 고집스레 왼손잡이의 특권을 키워주시

고 지지해 주시는 시아버님의 자상함이 황송하게 느껴지며 송구하기까지 했다. 내겐 사치스러운 큰 호사이며 특권이다 새삼스럽게도 무서운 칼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장사가 안 되시는지 작년 봄에 딱 한번만 오신 칼같이 아저씨 요즘에도 오시는지 안부가 궁금해진다. 그 서릿발 같은 효과음으로 옛 추억에 잠겨 또 한 번 신나게 동네어귀를 얼짱거리 보고 싶다.

내일은 천도리 장날이다. 꼬막이 제철이라고 하던데, 유난히 양념꼬막을 좋아하시는 시아버님을 위해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가야겠다. 한 자루 사서 옆구리도 푹푹 찢어보고 양념간장으로 꼬막의 불기짜를 한대씩 때려 주리라 베풀고 있는 나의 모진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꼬막은 새 근새근 벽시계와 한밤중이다.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차하

빗소리

서미숙

내가 살던 고향은 서울 도시 한복판이다. 옛날은 모두가 그랬듯이 우리 집 또한 서울이라 별다를 게 없이 슬라브 지붕에 마당 한 칸에 펌프가 있고 그 옆에는 자그마한 변소, 지금은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다.

그 집은 아버지가 손수 지으신 집인데 화장실은 커다란 도루무통을 땅속에 묻어 만들었다. 난 항상 그 화장실을 들어갈 때마다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불일을 볼 때마다 빼거리려 빠지지 않을까 불안했기에 지금도 가끔 꿈을 꾸다.

그 옆에는 조그마한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들출된 하수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앞으로 방이 세 칸, 다 부엌이 달린 지붕이 낮은 방들이었다. 그중 주인집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방과 부엌은 상당히 넓었다. 커다란 방에 어울리지 않게 창문은 참 작았다. 창문 밑으로는 전축이 놓여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그 전축 위에 올라가 창밖 처마 밑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가 좋아 그 소리를 들으며 종이 인형놀이를 했다. 비 오는 날은 전축 위가 유일한 내 놀이터였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커서도 그 빗소리를 즐겨듣는 빗소리 마니아가 되었다.

시집을 가서 집을 얻었는데 길가에 창문이 있는 집을 얻게 되었다. 역이나 신랑이 늦게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이면 창밖으로 빗소리를 벗 삼아 사람구경, 비구경을 하고는 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갑작스런 발령에 속초로 이사 왔는데 급하게 집을 구하느라 아쉽게도 속초의 집은 작은 창이 없었다. 오히려 거실에 앉아 거실의 커다란 창으로 들어야 하는 빗소리는 낭만이 아닌 소음으로 들렸다. 그나마 마당은 온통 흙으로 되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들과 우산을 받치고 앉아 마당에서 빗물놀이를 하였다. 서울에서는 어렵도 없는 일

이었다. 그러다 보면 어디서 왔는지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뛰어 나타나면 우리 셋은 기겁을 하고 도망하고 다시 빗물을 튀기면서 놀곤 하였다. 속초에 이사 오니 낯선 이들과의 만남이 쉽지가 않아 마당에서의 놀이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마당이 온통 흙바닥이라 생소했지만 나는 늘 흙을 밟고 사는 친환경적 느낌이라 좋았다.

그러다 두 번째로 이사 온 아파트는 다행히 길가로 베란다 창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역시 나의 버릇은 시작되었다. 비가 오면 베란다 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어김없이 베란다로 향해가 섰다. 이사 온 집이 어릴 적 향수를 달래주듯이 아름다운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 즐거워하며 살았다. 더구나 이사 올 당시는 베란다 밖이 다 논이었고 밤이 되면 베란다 밖에서는 개구리울음이 아름다운 합창소리로 들렸다. 풀숲에 숨겨진 땅들도 연주를 하고 커다란 산둥 장단을 맞추며 개굴개굴, 빗소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개구리의 소리로 그들의 합창이 시작되면 여름도 같이 왔다. 베란다 창문에 빗줄기로 그림이 그려졌고 그 줄무늬 그 사이로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소리는 어쩔 때는 아름다운 자장가로 어쩔 때는 구슬픈 엄마를 찾는 소리로 내게 다가왔다. 또 유일한 혼자만의 놀이터가 된 것이다.

여기 저기 집을 구하러 왔을 때 베란다 밖의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워 이곳을 택했다. 아침이면 산동네 그 너머로 보이는 설악산 봉우리들과 그 정기들, 그 베란다는 비 구경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나만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아파트 뒤로 도로가 생기고 그 옆으로 세워진 건물 때문에 그 산 위로 덮은 무성한 여름도 눈 덮인 산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여름이면 숲 속의 풀잎들의 합창을 하던 개구리 울음 소리도 점점 작아지더니 이제는 그 소리조차 아예 들을 수없이 건물들이 줄지어 서 버렸다. 더구나 지겹도록 해마다 여름이면 찾아와 아침 잠을 설치게 울어대던 매미가 올 여름은 오지 않았다. 꼭 자고 있는 내 머리맡 베란다 창에 매달려 울어냈는데. 어쩔 땐 물을 뿌려 아 보내기도 하고 창을 흔들어 보기도 했지만 몇 분 후 다시 찾아왔다. 포기하고 내가 자리를 비켜주었다. 해마다 그렇게 찾아와 성가시도록 나의 귀를 어지럽

하던 그 매미들, 올해는 소식이 없었다. 올여름은 이상하리만큼 그리 더운 여름도 아니었다.

가끔 주차장 마당에 보이는 말라비틀어진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직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가보다. 그래도 지렁이가 보이니 말이다, 하며. 그러나 내심 나도 이 급격히 변화되는 기후에 덜컥 겁이 난다. 어릴 적 마당 한 가운데 폼프질을 하면 그냥 그 맞 난 물을 벌컥거리며 먹으며 살 때는 절대적으로 물을 사서 먹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 그건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서든 생수라는 이름으로 물을 팔기 시작한다. 곧 있으면 산소통을 짊어지고 일회용 산소를 파는 슈퍼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우리 미래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된다. 과연 그 아이들이 쓸 물은 있을까 아니면 그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는? 의문이 더해지면 환경운동에라도 앞장서 나가야지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번뜩 번뜩 든다. 과연 나처럼 어린 시절 빗줄기 소리를 낭만이라 이야기 하는 아이가 있을까. 아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선다.

어느 날 수업을 하던 중 비가 내린 적이 있었다, 더러워진 수건을 빨아 말리느라 나무에 걸어놓았다. 짧은 거리라 우산을 쓸 생각도 없이 뛰어 나갔더니 아이들이 소리쳤다.

“선생님 비 맞으면 안돼요, 안돼요. 머리 대머리 돼요.”

언젠가부터 산성비라 맞으면 대머리된다는 어른들의 가르침 아닌 가르침으로 비는 절대적으로 맞아서 안 되는 무서운 환경호르몬이 되었다.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산성비를 설명하며 아이들에게는 낭만의 비가 아닌 무서운 독성의 물줄기로 변해 버렸으니 말이다.

오래 전 태풍 루사로 인한 비는 노아 방주를 일컬을 만 하듯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속초도 어김없이 그 루사의 피해는 심각했었다, 그날도 빗줄기가 내려 장마가 시작되었나 했다. 여름이 다가고 가을이 접어들 무렵 때 아닌 폭우가 쏟아졌다, 오전에 작아지던 빗줄기가 점점 세어지더니 돌풍과 같이 폭우로 변해버렸다. 순식간에 동네가 물로 잠기고 그 다음날은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거리는 물천지가 되어버렸다.

내가 늘 빗소리를 즐겨 삼아 구경을 하던 나의 배란다 밖은 청대산 자락에서 내려온 흙더미로 진흙탕이 되어갔고 주행하는 차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잠기고 거리는 숨어버리고 말았다. 수없이 짓고 부수고 하던 건물더미로 인한 청대산 자락의 산들이 무너져 내려 아파트 뒷동네는 산사태가 일 듯 자꾸만 흙더미가 내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잠긴 차들을 보고 안타까워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창문이 덜컥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곧이라도 아파트가 무너질 듯한 소음으로 그 낭만의 빗소리는 세상을 삼킬 듯 무섭기까지 했었다.

속초가 이렇게 비가 오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비가 잦아지기 시작했다. 요상한 기후이상이 온 것이다. 온난화 현상에서 오는 대기층의 변화에서 생기는 기후변화다. 이제는 속초 아니 우리나라도 사계절의 나라가 아니라 겨울과 여름만 있는 이 계절의 나라로 변할 것이다. 아니 변하고 있다.

〈남획과 지구온난화로 사라져 버린 명태, 명태는 국민 생선답게 우리 생활에서 민속소품으로, 음식으로 다양하게 쓰이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명태잡기도 활기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기선 저인망이라는 난폭한 어업 기술이 도입되면서 사태는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저인망은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에서 도입되었는데요. 아주 큰 배에 그물을 질질 끌고 다니는 저인망은 큰 물고기만 잡던 우리의 전통적인 낚시나 자망그물과는 달리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할 것 없이 모조리 잡아들여 그야말로 생선의 씨를 말리는 어업이었습니다. ‘우리의 명태는 어디로 살아져 버린 걸까요? 해마다 러시아산으로 명태축제를 하면서 명태를 기다리는데 과연 우리의 명태는 돌아올까요?’ 우연히 아이들과 그림책 수업을 하다 접한 〈명태를 찾습니다〉라는 책에서 발견한 내용이다.

그 명태를 생각하면 또 아버지가 생각난다.

생태국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좋아 하셨던 국이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생태라고 하는 그 생선을 넣고 무와 두부를 넣고 끓인 그 국을 즐겨 드셨다. 나 또한 커가면서 즐겨먹고 시집와서는 술 해장국으로 시원한 생태국을 즐겨 끓이기도 했다.

어릴 적 기억으로 서울에서는 혼했던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고 명태의 여러 가지 이름이 이렇게 각각 다른 것도 난 속초에 와서 알았다. 우리가 어릴 적 그렇게 자주 먹었던 생태도 명태와 다른 것으로 알았고 가끔 생태대신 사다 먹었던 그 동태도 다른 생선인줄 알았다. 그리고 한 생선으로 명태, 동태, 생태, 황태, 노가리, 북어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어릴 적 아버지와 마주앉아 먹던 그 밥상도 생각났고, 아련히 젖어오는 추억이 떠올랐다.

서울에서 살아 이렇게 많은 명태의 다른 이름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몰랐다. 아마 비단 서울 사람들뿐이 아니고 다른 고장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다 익히기도 전에 속초에서는 그 혼한 생태, 명태가 어느 날부터 안보였다. 속초에 와서 살면서도 가끔 박스로 생태를 사와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먹었던 기억이 십오여 년 전 쯤 난다. 우리는 친정이고, 시댁이고, 제사를 나도 지내니 그 북어도 없어서 안 될 제사 음식인데 이제는 그 혼한 명태가 금값이 되더니 언제부터는 아예 나지를 앓는다 하여 생태계에서는 비상이 걸렸었다. 혼하던 것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건 분명 우리의 생태계에 초비상이 온 것이다. 이렇듯 환경적으로도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이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나만이 아닐 것이다. 보전되어야 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지구는 초비상이 걸렸다. 과연 앞으로 나는 그 낭만의 빛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 빛소리도조차 이젠 거친 숨 가쁜 지구가 앓는 소리로 들려 더 이상의 낭만의 빛소리로만으로는 들을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내 숨소리조차 더 가빠질지 모른다.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장려상

유년의 뜰

이순미

빨간 꽃잎 사이
초록 이파리가 올라가는 고무신
땀 흘린 아버지의 품앗이가
김매던 어머니의 아픈 허리가
가져다 준 선물이지만
하늘을 날 듯 가벼워진 발걸음이
내 콧대를 높였다

장맛비 쏟아지는 여름 날
자갈밭을 지나
그깃 붙어 난 냇물쭝이야
꽃고무신 하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망설임이 없었다

등등 저만치 흩어지던 꽃잎
잘라진 줄기처럼
가슴에 툭, 선이 그어졌다
두 손을 벌려
잡으려 쫓아가다 콧물을 흘쩍이며
주저앉던 그 날

아버지의 한 숨 속에서
어머니의 밥상을 밀어내며
밤새 울었다
“꽃고무신 한 켤레 또 사주세요.”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장려상

봄 날

함 경 선

봄 햇살 아래 어린아이 살결처럼
보안 찻잔과 접시

불속에서 달구어져 나온 두 몸
같은 흠으로 빗었건만

잔은 따뜻한 차를 품어 기울이며
입 맞추고 행복해 하는데

접시는 시샘이라도 하련만
정숙한 여인처럼 다소곳이
잔을 받들며 비워지길 기다린다.

서로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동행하는
잔과 접시의 인연

봄 햇살 아래
먼 여정, 함께하는 도반이다.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장려상

유년의 뜰

박효신

참 오랜만에 그곳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기억하고 찾아가듯이 나도 오늘 그곳으로 기억을 더듬어 떠난다.

내가 살던 고향은 산이 높아 산 그림자 속에 집을 짓고 살았다. 아침에 솟는 해가 숨을 헐떡이며 산위에 오를 때쯤이면, 우리 집 지붕 위에 햇살이 내려앉는다. 밤새 밤이슬에 젖어있던 초가지붕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지난해 추수를 끝내고 겨울이 오기 전 정지 밖 양지바른 돌담 밑에서 벼짚을 가지런히 모아 이엉을 엮던 아버지 모습이 어제인 듯 기억에 선하다. 그렇게 만든 이엉을 지붕 위에 덧입혀서 새 단장을 하면 유난히 겨울이 길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 장마에 끄덕 없다. 참, 세상이 내 나이보다 더 빨리 변했다. 요즘은 구경하기 힘든 그리운 풍경이다. 아마도 민속촌에서나 초가지붕을 볼 수 있으리라...

한 겨울에는 지붕 끝에 고드름이 거꾸로 자라고 이른 봄날 내기라도 하듯 고드름이 녹아 내리면 처마자락에서 툭툭 힘없이 떨어지는 소리에 봄이 오는 것을 느끼곤 했다. 떨어지는 물방울은 주춧돌 위에 파편으로 떨어져 뒷마루에 벗어 놓은 신발들을 적시면 신발들은 안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다.

뻐꾸기 울어대는 봄날이면 산촌 마을에는 하루가 다르게 산과 들이 푸른 단장을 했다. 지붕 위에서도 누가 씨를 뿌려놓았는지 이름 모를 들풀들이 듦성듬성 자라고 있었다. 이렇듯 자연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며 살고 있었다.

여름 장마철이면 지붕 위에 빗방울이 쏟아지고 비를 흠뻑 맞은 초가지붕은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는지 군데군데 움푹움푹 주저앉는다. 지붕 벼짚 대궁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마루 끝 돌계단 위에 추적추적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먼 산 봉오리를 지나는 구름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이제 그만 내렸으면 좋으련만...” 하시던 아버지 말씀에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원망스러웠다.

계곡에는 황토색 물이 사납게 흘러가고 덩달아서 물속의 돌들이 이사를 떠나느라 계곡이 시끄러웠다. 빗줄기는 더 기세등등하게 요란한 천둥과 번개를 등에 업고 난타공연을 하듯 온 대지를 두들긴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산촌 사람들은 하늘이 선물한 모처럼의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집안에 들어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구들장에 등을 붙이고 농사일로 지친 몸을 호강시킨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째 장맛비가 내리면 오히려 어깨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다. 아마도 부지런한 농사일이 습관처럼 몸에 밴 탓으로 노는 것도 부담이 되는가보다.

여전히 내리는 비는 강약을 조절하며 휘몰이장단처럼 몰아치다가 진양조의 늦은 템포의 발자국 소리로 들려온다. 어떤 때는 배고픈 아이가 숨이 넘어가도록 보채는 급박함처럼 빗소리가 쏟아지고 또 어떤 때는 싸움질 하는 여편네들 목소리처럼 쩌지게 비가 내린다. 어디 그 소리뿐이라... 느릿느릿 게으른 머느리 걸음 마냥 천천히 내리는 빗소리가 있는가 하면 부뚜막 고양이 발걸음 소리같이 들릴 듯 말 듯한 가랑비처럼 내리기도 한다. 이렇듯 듣는 사람에 따라 비오는 모양이 다르고 그 소리 또한 다르게 들린다.

정지 밖 옆에 심어 놓은 옥수수 밭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후두둑 후두둑 새의 날갯짓 소리가 요란하다. 아마도 맹수에게 쫓기는 산비둘기 날갯짓 소리가 옥수수밭을 훑고 지나는가보다.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린 나란한 옥수수 잎맥 위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개꼬리는 왜 그리도 미친 듯이 흔들흔들 웃고 있는지... 아마도 가뭄에 단비를 기다렸는가보다.

비오는 날 풍경은 볼수록 재미있다. 비가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해 얼룩소를 마당 옆 공터 말뚝에 매어 놓고 아버지는 마구간 청소를 한다. 매어놓은 어미 소 옆에 얼룩송아지는 모처럼 바깥 구경에 뒷발을 공중으로 쳐올리며 한껏 기분이 좋은가보다. 자기 새끼를 바라보는 어미의 눈은 세상의 어떤 눈망울보다도 선한 눈을 가지고 있다. 본디 내 눈도 저 소의 눈망울

처럼 해맑았을 텐데...

그 지루하던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되는 중복이 될 무렵이었다. 집 건너편 비탈진 밭에서는 감자꽃이 싹타는 내리듯 하얗게 피어 있고 땅속 줄기에선 동굴동굴한 알맹이들이 영글어가고 있었다.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감자밭 이랑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잡풀을 메시는 어머니 모습이 보인다. 장마에 쓰러진 감자 순을 일으켜 세우며 흙을 북돋아 주신다. 구릿빛으로 물든 엄마 얼굴에 땀방울이 떨어져 저렇게 하얀 소금 같은 감자꽃을 피웠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온다.

산촌 마을 산비탈은 여기저기 싹타는 내린 듯 온통 하얗다. 감자 꽃도 자세히 보면 참, 예쁘다. 별 모양의 꽃잎에 자줏빛 꽃술이 볼수록 정감이 간다. 어쩔, 엄마의 얼굴이 별 모양을 닮은 감자꽃이 아닐까? 그래서인지 가끔씩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엄마가 생각한다. 그곳 비탈진 곳에 흐드러지게 하얗게 핀 풍경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다.

산촌 마을에도 가을이 오고 곱게 물든 단풍잎들이 자기를 뽐내고 있다. 마을은 추수하느라 정신이 없다. 다랑구 논배미에서는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며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여기저기 벼를 베는 낫질을 하기 시작한다. 쪼그리고 앉아 앞 사람을 쫓아 벼를 베는 과정은 온 몸을 아프게 들쭉시게 한다. 눈에 말린 벼들은 푸르른 날을 마감하고 논바닥 위에 누워 가을 햇살에 몸을 말린다. 말린 벼들을 단을 묶어 낫가리를 만들고 기회를 봐서 타작을 한다. 텅 빈 논바닥에는 벼이삭들이 떨어져 있고 어린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뛰어 다니며 벼이삭을 줍곤 했었다.

그 논밭을 가득 메웠던 곡식들이 다 거두어지면 들판에는 빈 그루터기만 남고 먼 산 위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밭둑을 따라 뚝방길에는 아버지 모습 같은 억새꽃들이 하얗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가 올 겨울을 맞고 있다.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에는 기러기들이 먼 길 떠나고 나무들도 잠고 있던 마지막 잎사귀를 슬며시 놓는 풍경이 고요하다.

먼 산에 날리기 시작한 눈발이 어느덧 앞마당에 소복이 쌓인다. 그 눈 속에 내 그리움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파묻힌다. 내년 봄엔 그 눈 속에서 노오란 복수꽃 같은 내 그리움이 아지랑이처럼 피어나겠지...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장려상

유년의 뜰

정승엽

지금쯤 내 고향 마을 신작로에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분홍빛 꽃망울을 머금었을 것이다.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내 마음은 고향으로 달려가 어릴 적 꼬맹이 친구들과 어울린다. 1킬로미터쯤 펼쳐진 벚꽃길을 따라 커다란 개울도 따라 올라간다.

언제부터인가, 상춘객들의 고성과 시끄러운 음악소리,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왁자지껄 고향을 지르며 운동하는 사람들, 어디선가 익숙한 장구소리도 들린다. 이런 시끌벅적한 소리에 이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서서 그들을 구경한다. 갑자기 늘어난 상춘객들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몹시 혼란스러워 했다. 나는 나중에야 우리 마을 위에 있는 금산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한가롭게 노닐며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 뚝뚝거리며 노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다. 술에 취해 흥청거리는 거리의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던 동네 아저씨들이 그들의 심부름을 하게 되고 아주머니들이 농산물을 내다 팔았다. 그리고 아저씨들이 그들이 내미는 술을 즐기게 되면서 아저씨들은 점점 술꾼으로 변해갔다.

윗집 아랫집 네 것, 내 것, 네 일, 내 일이 없이 서로 나누며, 서로 도우며 살던 사람들이 돈맛을 알게 되면서 차츰 나누어 쓰고 나누어 먹는 일이 예전 같지 않고, 인심도 많이 변해갔던 것이다.

우리들은 이런 시기에 이 마을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다지 때가 묻지 않고 자랄 수 있었다. 몇몇 친구들이 서울로 올라갔고, 몇몇 오빠들도 서울로 올라갔지만, 엄한 부모님들 덕분에 그들의 자태를 흉내 낼 수는 없었다.

학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들도 괜히 사람들의 대열에 끼고 싶고 그들이 궁금해져서 가보고 싶어진다. 수많은 군중들이 시끄럽게 웃고 떠들씩하면

우리들은 살짝 흥분해서 그들의 노는 모습이나 행동들을 관찰했다.

우리는 또래 몇몇 친구들과 개울을 따라 올라간다. 신발을 벗어 돌 위에 얇전히 엮어 두고, 물장난을 치기도 하고 물속에 발을 담그고, 돌 위에 앉아 무슨 얘기를 그리도 길게 했는지, 뭐가 그리도 재미있어 깔깔대며 웃었는지, 그 순간만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와서 웃고 떠들든 말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다.

돌을 들어 올리고 가재를 잡아 강아지풀을 잘라 가재 등을 꿰고, 커다란 왕새우등도 줄에 꿰다. 다슬기도 한 움큼 잡아 앞썰에 담아 쥐고 양양하게 집으로 향한다.

신작로에 올라서면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우리를 반긴다. 상춘객들은 이미 꽃이 옆에 피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직 자기 흥에 취해 있을 뿐.

우리들 팔로 열 아름은 되는 벚나무들이 길 양옆으로 죽 늘어서 있고 커다란 가지들이 건너편 나뭇가지와 맞닿아 커다란 벚꽃터널이 생겨 꽃이 피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핀 꽃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해마다 보는 꽃이지만 이 꽃은 해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봄바람을 타고 하늘에서 함박눈꽃이 쏟아진다. 갑자기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일제히 환호성을 지른다. 두 손을 맞잡았던 총각처녀가 손을 놓고, 두 손을 모아 꽃눈을 담는다. 꼬마들이 널뛰듯 뛰며 소리 지른다. 사람들은 “아이” 탄성을 토한다. 꽃눈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도 처녀 총각들의 머리 위에도, 꼬마들의 머리 위에도 다소곳이 내려앉아 까만 머리 위에 꽃잎을 뿌려 수를 놓은 예쁜 꽃모자를 선사했다.

우리는 순식간에 군중 속으로 빨려 들어가 한참동안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헤매다가 겨우 서로를 발견하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한쪽으로 밀려나와 걷기 시작한다.

수다를 떨며 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문득 눈에 익은 모습 하나 눈에 띈다. 내 어머니를 꼭 닮은 박꽃 같이 하얀 내 언니가 받고랑에 숨어있다.

콧 숨이 막힌다. 울컥 눈물이 난다. 가슴이 아려온다. 손을 뻗어 등을 쓸어본다. 그리운 내 사랑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본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뒤, 논밭으로 쫓아다니느라 우리를 돌보지 못해 열다섯 살 난 언니에게 살림을 맡기고 나와 식구들을 맡겼다.

내 언니가 시집가던 날, 하루 종일 이상한 분위기에 잔뜩 긴장했던 나, 장

삼에 족두리를 쓴 언니가 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다섯 살짜리 아기는 그 작은 걸음으로 종종거리며 언니의 시력이 있는 이웃 동네까지 가마 뒤를 쫓아간 뒤 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언니의 흑이 되어 언니의 치마끈을 붙잡고 논이든 밭이든 따라다녔고, 방아를 찼을 때도 그 절구 옆에, 밥을 지을 때도 불 때는 아궁이 옆에 찰싹 붙어 있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언니는 나 때문에 식구들과 상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부엌 부뚜막에서 나와 함께 먹었다.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에 잠이 깨어보면 나는 늘 형부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자고 있었고, 언니는 등불을 들고 형부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눈을 떠서 형부의 등인 것을 확인하고는 내 아버지의 등인양 안심하고 이냥 잠이 든다. 나이 어린 내가 어머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므로 어머니처럼 정이 들어 떨어지지 못하는 어린 처제를 밤마다 업어서 처가에 데려다 누인다. 그러나 나는 눈만 뜨면 또 언니 집으로 쏠살같이 달아났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을까!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내 조카들을 내 동생으로 알고 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시누이 다섯을 둔 언니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도 불구하고 칠 남매를 낳아 잘 가르쳐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나이 들어 잘 삼아둔 모시바구니속의 모시처럼 하얀 은발이 되었다. 나도 그 시집살이 중 하나의 큰 원인이었을 텐데도 내 언니는 지금도 그때 너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 어머니처럼 사랑을 준다. 그 말이 없고 인자한 모습 속에 한도 많고 설움도 많았으련만, 얼마나 힘들었냐고 물어도 말없이 웃기만 한다.

언니를 몇 년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언니의 모습에 어머니의 모습이 덧입혀 있다. 박꽃같이 하얗고 순수한 내 언니, 아련히 두 어머니가 그립다. 부모, 형제, 친구들, 그리운 이들이 영원히 살고 있을 고향, 내 마음도 그 따뜻한 곳에 언제까지나 함께 살고 있다.

지금은 그 뱃나무들은 고목이 되어 스러지고 새롭게 심은 나무들이 옛날처럼 자라났다. 그때 그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옛날의 면모를 드러내며 조금은 안전해진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또 다시 아름답리 고목이 다된 뱃나무들, 부디 지치지 말고 언제까지나 비바람이 불어와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굳건히 견디고 서 있어서 모든 나의 첫사랑들과 나의 유년시절의 추억들의 증거 되어 함께 살아가기를.....

자연과 사람은 하나이며 희망입니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입상작품

일 시 2015. 10. 30 (금)

장 소 인제 산촌민속박물관

주최 내린천예술인회

후원 강원도, 인제군, 강원일보사, 인제문화원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입상자 명단 | 초등부

수상내역	부 별	이름	소 속
장원	운문	김도윤	인제남초등학교 2학년
	산문	최윤서	인제남초등학교 6학년
차상	운문	라은수	인제초등학교 1학년
		김예림	인제남초등학교 1학년
	산문	김지우	기린초등학교 5학년
		송봉화	인제초등학교 6학년
차하	운문	양해수	인제남초등학교 2학년
		이진영	인제초등학교 2학년
	산문	강예원	기린초등학교 5학년
		박지유	인제남초등학교 6학년
장려	운문	김소현	인제초등학교 1학년
		박고은	기린초등학교 6학년
		박소현	기린초등학교 6학년
		김서하	인제남초등학교 4학년
	산문	오진택	기린초등학교 6학년
		윤예원	인제초등학교 4학년
		김희주	인제초등학교 4학년
		이다예	인제남초등학교 3학년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입상자 명단 | 중고등부

수상내역	부 별	이름	소 속
대상	운문	박세아	인제중학교 3학년
장원	운문	박지우	원통중학교 3학년
	산문	장유나	인제고등학교 1학년
차상	운문	이인규	인제고등학교 1학년
		김예지	인제중학교 3학년
	산문	김하경	원통중학교 3학년
		김서영	인제중학교 3학년
차하	운문	이유빈	인제고등학교 1학년
		김예진	인제고등학교 1학년
	산문	송주하	인제중학교 2학년
		심다빈	인제중학교 2학년
장려	운문	최하은	인제고등학교 1학년
		김예진	인제중학교 2학년
		박유진	인제고등학교 1학년
		최수아	원통중학교 3학년
	산문	이정민	인제고등학교 2학년
		유정민	인제중학교 3학년
		박순영	원통중학교 3학년
		이정윤	인제중학교 2학년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대상(운문)

가을 새벽

박세아 인제중 3학년

뜨거운 태양 별 쏘아대던 여름 지나
갑작스레 불어온 늦가을 칼바람이
내 마음 파고들어와 새벽잠을 깨웠다.

새벽녘 물오르듯 피어난 보름달빛
머리맡 창문 틈에 슬그머니 자리 잡아
어둑한 방구석마다 가을을 수놓는다.

좁은 방 그득그득 가을이 채워지고
어스름 새벽하늘 은빛으로 물들 즈음
폭신한 가을내음이 자장가가 되었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원(윤문)

지구는 보물창고

김도윤 인제남초 2학년

고마워... 빛의 태양아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고마워... 하늘의 빛 방울들아
우리에게 목마름을 가시게 해 주어서

고마워... 땅들아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어서

고마워... 숲의 나무들아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어서

고마워... 우리도 너희에게
듣고 싶은 말이야!!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원(산문)

독도는 우리 땅

최윤서 인제남초 6학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와의 대립으로 인해 화제가 되었던 일본 하시마 섬 유네스코 등재 문제. 우리나라도 반대를 하였지만 일본의 제안으로 찬성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할 때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노동자를 강제 징용한 내용의 역사를 빼버렸다. 그로 인해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하시마 섬을 그냥 관광지로 다녀간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징용 했던 곳을 폐쇄해 버렸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강점기 전에도 바닷가 쪽 마을에 와서 물건 등을 뺏어가는 것이 많았고 대표적인 일제강점기와 월드컵 한일전, 그리고 독도 문제까지 여러 가지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나는 독도문제가 가장 화가 난다. 대동여지도와 여러 역사에도 독도는 우리 땅인데, 어째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독도는 위치적으로도 좋고, 또 독도 밑에는 수많은 지하자원들이 있다고 한다. 아마 그래서 일본이 그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광복절 특집으로 무한도전에서 우토로 마을에 다녀온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한마음으로 그들을 공감했었다. 어찌면 독도가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마음으로 힘쓴다면 독도도 되찾고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도 일제강점기 때 모든 소원이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독립이라고 하셨다. 나라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내 첫 번째 소원은 독도를 되찾는 것이요. 두 번째 소원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마지막 소원은 독도를 되찾아 남과 북이 웃으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이다. ‘통일’과 ‘독도’는 아직 조금 어색하고 먼 미래일지 모르지만 꼭 언젠가는 내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차상(운문)

환경이의 감기약

라은수 인제초 1학년

우리가 산에 쓰레기를 버려서
산이 에취에취 재채기를 해요!

우리가 강을 더럽혀서
강이 열이 펄펄 나요!

쌩쌩 달리는 자동차 연기에
공기가 콜록콜록 기침을 해요!

환경이의 감기약은
우리의 관심과 정성이예요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차상(운문)

단풍나무

김예림 인제남초 1학년

단풍은 알록달록하다.
은행잎은 예쁜 노랑색이라
너무 예쁘다.
단풍잎은 예쁜 빨강색이라
가을이 왔다는 걸 느낀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차상(산문)

약속

김지우 기린초 5학년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자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가정집에서 학교에서도 마트에서도 자연과의 약속은 언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쓰레기도 많아지고 있고 더불어 분리수거까지도 또 숲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까지 자연과의 약속은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모른다.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연은 언제부터 힘들어한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폭력에 의해 자연은 힘들고 외로운 곳에 갇혀있다. 자연은 원래 힘들고 외로운 곳에 있지 않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욕심은 끝도 없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 기술도 발달하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와 뿌연 연기가 자연을 많이 괴롭히고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된다. 힘들고 외로운 곳에 갇혀있는 자연을 내버려 둘 순 없다.

그리고 자연이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린 자연을 구해야 한다. 자연을 구하는 방법은 쉽다. 첫 번째로는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 두 번째로는 물건을 아껴 쓰고 숲이나 거리 또는 공원에서도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식물을 많이 심자! 나무 또는 잔디 채소 꽃등을 심어야지 공기가 다시 맑아진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잘 실천하면 자연과의 약속을 다시 잘 지킬 수 있다.

우리사회의 태도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우리의 과학기술로 친환경적인 발전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의학기술도 변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약과 계속 쓸 수 있는 약통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자연의 약속을 다시 할 수 있다. 우리는 지켜야 한다.

자연의 약속을 우리는 평생 동안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후손들도 알아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지켜야 한다. 자연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자연을 다시는 힘들고 외로운 곳에 보내면 안 된다. 자연이 힘들다면 우리 사회도 안전하지 못한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차상(산문)

자연과의 약속, 그리고 공생

송봉화 인제초 6학년

인간과 자연과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지켜져야 한다. 자연과의 약속은 무엇일까? 나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이익을 얻지만 너무 무자비하게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서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영향을 끼친다.

요즘에는 무자비한 개발로 자연이 많이 손상되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인간과 자연 둘 모두 사라질 수 있다. 자연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연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 우리 주변의 조그만 것 하나만 고쳐도 계속 파괴되는 자연을 막을 수 있다.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고, 또 장을 볼 때는 장바구니를 챙기며, 화장실 변기 뒤 펌프에 벽돌이나 물을 꼭 채운 페트병을 넣는 등 셀 수 없다.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백과사전의 쪽수만큼 어찌면 더 많을 수도 있다.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그만 노력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얼음이 녹아, 시냇물 흐르고 새싹이 파릇파릇 피어오르는 봄, 나무가 옷을 갈아입는 나뭇잎을 떨궈내는 가을 어찌면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이 고장 낸 자연, 스스로 치유할 수 없게 된 자연은 인간이 직접 고쳐야 한다. 하지만 인간이 고칠 수 있을까? 인간과 자연을 놓고 보면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지만, 자연은 그 능력을 스스로 치료하여 인간에게 이롭게 한다. 차후, 미래에는 인간이 고장 낸 자연으로, 지키지 못한 자연과의 약속으로 인간이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의 약속을 지켜야 살 수 있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이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차하(운문)

다 알고 있어요.

양해수 인제남초 2학년

한번쯤은 관찮을 거야
아무데나 버린 쓰레기
아무도 못 보았을 테니까
쌩쌩~ 혼내주고 가지요.

한번쯤은 관찮을 거야
여기저기 버리니 쓰레기
못 보았을 테니까

하늘높이 해님이 알고
쌩쌩~ 혼내주고 가지요.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차하(운문)

자연의 모습

이진영 인제초 2학년

파르르 파르르 단풍들이 떨어지네
휘이익 휘이익 바람들이 춤을 추네

바사삭 바사삭 은행잎을 밟고 있네
쉬이잉 위이잉 사람들이 물을 주네

똑똑똑 똑똑똑 비가 주르륵 주르륵
쨍쨍쨍 쨍쨍쨍 해가 뜨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차하(산문)

자연과의 약속

강예원 기린초 5학년

나는 지금 기린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어느 날, 꿈배령을 가게 되었다. 우리학교는 1년에 한 번 씩은 꼭 가는 산이라서 괜찮았다. 하지만, 우리가 산에 갈 때마다 쓰레기들이 있었다. 그걸 보고 나는 ‘우리 자연환경이 망가지고 있구나. 언제부터 우리 자연에 있는 작은 생명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있지? 나는 이런 생각에 가방에 있는 봉지를 꺼내어 내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봉지에 담았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주워서 우리자연을 망가지지 않게, 우리 자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봉지에 담아 가방에 넣었다. 솔직히 말하면 쓰레기 줍는 것은 좀 귀찮다. 그런데 만약, 내가 쓰레기를 줍지 않고 버리기만 했다면.... 아마 우리자연은 10년, 20년 후에는 쓰레기로만 가득할 것이다.

자연을 위하여! 꿈배령에서 내려와 학원을 갔다가 집에 가자마자 씻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였다. 꿈에서 자연이라는 아이가 우리반에 전학을 왔다. 그 아이는 분리수거면 분리수거대로 잘하고 청소면 청소, 쓰레기 재활용해서 재활용품 만드는 것 까지 자연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앞장서서 하는 아이다. 자연이는 3달 뒤에 이사 가게 되었다. 자연이가 가기 전에 나에게 약속하나 하자고 하였다. “우리 서로 자연 지켜주기!”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래, 알겠어~” 나와 자연이는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다. 나는 그 뒤로 자연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차하(산문)

자연과의 약속

박지유 인제남초 6학년

‘약속’이란 단어의 가치가 언제부터인가 흐려져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예를 들자면 ‘자연’과의 약속이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나라가 변해가고, 변하는 만큼 혹은 그 몇 배 까지 자연 환경은 파괴되어 갔다.

세계는 발전하며 많은 발견과 흑독하고 난감한 고통에도 부딪혀 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세계대전인데, 독일의 나치와 연합군의 전쟁은 한마디로 고통 그 자체였다고 한다. 1차 대전이 학살과 총기로, 3차 대전이 핵 무리로 싸운다면 4차 대전은 돌맹이와 나뭇가지를 던지면서 싸울 것이라는 말이 있다. 결국은 자연이라고 불리 우는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간은 자연 없이는 살 수 없다. 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하여도 실험실에서 자연에서 추출한 원 재료 없이 새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씨앗이 없이 나무의 성장이 가능할까?

자연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것은 물고기가 스스로 물 위로 뛰어나오는 것과 같다. 요즘엔 자연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시 쳐다보고선 제 갈길 가는 것이 대다수이고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금세 잊어버리기 마련인 꼴이다.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자연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인 ‘배려’, ‘존중’을 잊은 사람들 계속 이대로 가다간 자연 파괴와 삶의 터전 파괴가 같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는 있는지 걱정인 사회의 모습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회의 가장 큰 공동체인 사람들이 이 점을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또 다른 악순환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려(운문)

자연과 나

김소현 인제초 1학년

자연은 향기가 솔솔 나고
꽃과 벌레도 많이 있네
풀도 나무도 잘 자라고 있고

자연은 신기한 것들이 많아
내가 지켜줘야 할 것도 많아

자연과 나는 하나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려(운문)

자연과의 약속

박고은 기린초 6학년

점점 오염돼 가는 자연
점점 파괴돼 가는 자연

강에는 폐수로 인해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지구상에 동물들은 지구 온난화로
자꾸만 사라져 가고 있네.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도
점점 오염돼 가네.

무심코 버린 종이 한 장
무심코 낭비한 물 한 방울

아껴 쓰는 실천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되살리자.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려(운문)

자연과의 약속

박소현 기린초 6학년

나는 오늘 약속했다.
자연과

지켜줄게 황토 빛 흙
아껴 쓸게 푸른 빛 물
베지 않을게 나무들
꺾지 않을게 아름다운 꽃들

아프지 않게,
보호해줄게 동물들

절약할게 에너지
치료해 줄게 너의 상처들
평생 지킬게 이 약속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려(운문)

단풍 나무

김서하 인제남초 4학년

단풍 단풍 단풍나무
알록달록 단풍나무
뽀족뽀족 단풍나무
한잎 두잎 떨어지면
단풍나무가 겨울을
준비하지
가을되면 예쁘게
다시 피지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려(산문)

하늘, 물, 꽃, 나무, 그리고 인제

오진택 기린초 6학년

“인제.... 인제가 어디지?” 나는 천천히 지도를 살핀다. 그러다 우연히 인제를 발견했다. “찾았다! 우리가 이사 갈 곳이 여기구나.”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나는 인제에 가는 것을 많이 기대를 하였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사는 것이 로망이었기 때문이다. 원주에서 태어났지만 대전에서 4년을 살아 텔레비전에서 보는 전형적인 시골을 생각했었다.

4시간 동안 기대와 함께 달려 아홉사리로에 들어왔다. 가도 가도 산밖에 없고 길은 꼬부랑해서 멀미가 났다. “길이 라면사리처럼 구불구불하니 라면 사리로 라고 불러야겠다.” 그렇게 달려와 현리에 도착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시골이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시골이 아니었다. 주변엔 물과 갈색 옷을 입은 산 뿐이었다. 바깥에 나오니 굉장히 추웠다. 산도 그래서 갈색 옷을 입었나보다. 시간이 흐르고 바닥엔 온통 눈이고 입엔 입김이 나왔다. 새하얀 눈을 보니 옛날엔 눈을 먹었다는 말이 떠올랐다. 도시에서 보지 못한 하얀 눈을 보니 나도 눈을 먹을 수 있을 것 처럼 보였다. 도시에선 초록 옷을 입은 4월이 왔다. 여긴 아직도 산이 흰 옷을 입었다. 아직도 산이 하얀 옷을 입은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일이 있어났다. “우와! 4월에 눈이 내리네.” 흰옷을 입은 산도 모자라 눈이 내리다니 나에겐 정말 충격적이고 신기했다.

그런 신기한 일이 지나고 산들이 초록색 옷을 입었다. 별레가 많고 더운 여름이 온 것이다. 그렇지만 여긴 물이 있지만 모기가 거의 없고 많이 덥지가 않다. 만약 더우면 내린천에 가서 놀면 된다. 물이 맑아서 아래 물고기가 있고 개구리도 있으며 심지어 가재도 있다고 한다.

시간이 또 흘러 산이 울긋불긋 해지고 길거리가 온통 예술로 변했다. 다

람쥐도 있고, 산은 엄청 멋있었다. 그런 가을도 지나고 울긋불긋한 산만큼 멋진 흰옷을 입은 산이 생겼다. 산이 온통 새하얗게 엄청 멋지다. 게다가 내 린천이 만든 썰매장이 있었다. 거기서 내가 탄 썰매가 가속력 때문에 벽을 부순 적이 있었다.

이런 추억과 자연을 경험 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다시 내가 여기를 보면 내린천과 산이 얼마나 바뀔까? 이곳이 얼마나 유지될까? 다른 친구들도 이곳을 경험 할 수 있게 이런 자연이 유지되면 좋겠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난다. “인재가 많아서 인재인가?”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려(산문)

자연과의 사랑

윤예원 인제초 4학년

우리는 자연과 사랑을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자연은 우리와 가족 같은 존재 이죠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자연은 우리와 친구 같아요. 늘 옆에 있으니깐 저는 늘 자연과 인사를 해요. 좋은 아침이야. 잘 자 안녕. 다양한 인사를 하죠.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생각해 주세요. 호호 하하 웃으며 자연 사랑을 합시다. 자연 자연이야 말로 우리와 가족 친구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 우리 가족을 지킵시다. 환경오염은 우리에게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환경오염을 환경정화로 바꿔요. 당신의 쓰레기가 사랑을 없앱니다. 자. 연. 사. 랑!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려(산문)

자연과의 인사

김희주 인제초 4학년

나는 자연과 인사를 한다. 자연은 나의 친구이자 나와 같은 사람이다. 자연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자연으로 천연재료와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다 만들면 만들어진 자연과 인사를 한다.

자연은 만들고 있는 자연과도 인사를 할 수 있다. 왜냐 자연은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깐. 재료를 만들기 전과 만드는 중, 만든 후의 자연과 만나보고 싶다. 자연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연을 꺾어도 자연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 사람은 자연을 싫어하면 자연도 사람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받으면 자연을 우리에게 인사를 안 하고 자연은 우릴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 자연에 인사하자.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려(산문)

소중한 자연

이다예 인제남초 3학년

우리나라 소중한 자연 사람들은 자연을 아끼지 못한다. 자연아! 내가 널 지켜줄게 이제 널 만지지 않을게... 왜냐하면 넌 소중한 자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을 아끼지 않아! 넌 피해가 가지 않니? 꽃을 꺾고... 난 이해가 안가. 나는 자연을 소중히 여겨. 그래서 자연을 너무너무 좋아하지. 어른들도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이 조금 자연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조금 답답할 때도 있어. 그리고 너도 답답할 때 있지? 그래서 안 꺾었으면 좋겠어. 나보다 어린 애들은 충고 한번 씩 하는데 나보다 큰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겠지? 그것 때문에 답답한 것도 있고 너한테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나는 자연을 소중히 여겨! 그리고 사람들이 쓰레기도 막 버리더라. 만약 너가 사람이고 사람들이 자연이라면 기분이 나쁘겠지?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아줄게. 그런데 어른들이 담배랑 그런 것 등등을 버리더라.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 내가 널 정말 지켜줄게. 너한테 피해가는 사람들 나일수도 있지만 혼내 주고 싶고 그래. 어쩔 땐 너무 너무 짜증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샤워하면서 화 풀 때도 있어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장원(윤문)

내린천 사랑

박지우 원통중 3학년

굽이굽이 깊숙한 산길을 따라서
푸르른 산내음에 흠뻑 취하고
오색 빛 가을 정취에 두 눈이 즐겁다

반짝이는 은빛 자갈밭에 멈춰 서서
내 마음 내비칠 듯 투명한 물속에
살포시 나도 모르게 두 발을 담가본다

뻗속까지 차오르는 시원함 맛보며
꼬르륵 배 달래며 낚시도 즐기고
답답함 내려놓으며 행복을 맛본다

청정한 냇물 소리 내 맘을 적시우고
하늘이 내려준 기적 같은 숲속 보물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내린천이 최고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장원(산문)

학교 뒤뜰의 은행나무

장유나 인제고 1학년

교실 안에서의 내 조그만 자리는 문이 있는 벽 쪽의 창가 자리다. 허리를 곧게 펴고 창밖을 내다보면 복도를 건너 또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도 충분히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 10월 초부터 굳게 지켜온 자리에 더 이상 별 다른 감흥이 없어질 무렵, 어느 날은 문득 결눈질로 보이는 하늘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왜인 고 밖을 내다보니, 학교 뒤뜰에 일렬로 늘어선 은행나무들에 노르스름한 은행잎이 만개해 있었다.

시리도록 푸른 가을 창공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가득 창을 메운 노란 빛들은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가실거리며 잔뜩 흐드러져 눈을 내렸다. 바닥에 소복이 쌓인 노란 이불을 사박사박 걷고 있노라면, 코언저리에 맴도는 지독한 은행 악취도 괜찮게 느껴질 정도로 포근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낙엽 더미는 두께를 더해가고, 나무그루는 앙상한 몸을 드러내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했건만, 별거벗은 채 더 이상 여름의 싱그러움은 찾아 볼 수도 없이 삭막한 나무가 어쩐지 외로워 보인다는 모순된 생각이 들었다. 봄에 돌아났던 새순이 노란 잎이 되기까지 함께 하다가 겨울을 버티기 위해 떨귀 버리고, 잎사귀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선뜻 내려앉아 나무의 노란 옷이 되어 주었다, 그 때부터 낙엽이 지는 이유가 꼭 이파리들이 나무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적어도 내 눈에는, 메마른 겨울의 그악스러운 추위에 버티기 위해 힘든 이별을 감행하는 나무와 기겁게 희생하는 잎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무에게서 내 나름대로 희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생각이 깊이를 더해가고, 더해가다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미 원치 않는 희생까지도 감수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도달했다. 나무뿐 아

나라, 그것이 속한 자연 자체가...

자연은 늘 사람의 곁에 상주해왔다. 아니, 사람이 자연의 곁에 상주해왔다고 하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자연은 그 너른 품으로 인간을 다독이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다. 탐스러운 과실을 주었고 깨끗한 땅을 주었다, 맑은 물도 제공했고 신선한 공기까지 주었던 자연. 자연은 그 자체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과 물이 오염되고 대기는 나빠졌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 산을 밀어 버리고, 나무를 무차별적으로 베어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더진 우리들이다. 자연의 희생에 무더질 대로 무더져 더 이상 깊게 느낄 수 없어진 우리 옛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세모난 모양의 양심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양심에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면 나타나 모서리로 찢려 아프게 하지만, 고통을 외면한 채로 계속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닳고 닳아 둥그렇게 된다고 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특히 나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닌 인제에 살고 있어서 더 빨리 닳아 버린 것 같다. 우리 고장은 이렇게 아름다우니 괜찮을 것이라고 지레 판단한 채, 이 아름다운 환경을 지켜가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미치지 못하고 말이다.

나는 이제 닳은 동그라미를 다시금 세모난 모양으로 갈아 다듬고 노력할 것이다. 자연과 약속하고 힘쓸 것이다. 자연이 가슴 아픈 희생을 하는 것은 겨울을 위한 대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사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일, 가령 물을 아껴쓴다거나 안 쓰는 콘센트는 뽑아두고 불을 끄고 다닌다거나 하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행하여, 자연을 생각하는 내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 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내게 있어 가장 큰 분수령은 학교 뒷뜰에 심어진 은행나무들이 아닐까?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차상(운문)

고로쇠 나무

이인규 인제고 1학년

얼마나 더 아파야 멈출까?
얼마나 더 생채기를 내야 멈출까?
얼마나 울어야 달려와 줄까?
목 놓아 밤새 푹푹 온몸으로 읊니다.

바라보는 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내 마음에도 생채기를 남깁니다.
달려가 눈물 닦아주고
온몸으로 안아줍니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차상(운문)

이른 봄

김예지 인제중 3학년

힘찬 해오름달이 뜰 무렵
먼 산 잠들어있던
작은 새싹마저 깨어난다
그들마저도 한 해의 소망을
담고 있을까?

그저 누군가를 위한 눈요깃거리일까?
내 마음 우러러 그들에게
속삭인다
이른 봄, 소소리바람 찾아와
그들에게 봄을 알린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차상(산문)

사랑하는 자연에게 바치는 글

김하경 원통중 3학년

파란하늘과 흰 구름, 예쁜 꽃과 뛰어노는 동물들 그 모습은 아름다워서 우리에게 큰 평온을 안겨준다. 시냇물이 흐르고 나무 사이사이 지나가는 다람쥐와 너구리 나무에선 솔방울, 밤과 잣이 떨어지고 풀잎에는 이슬이, 저 산 너머에 걸려있는 무지개는 낮을 잃을 만큼 환상적이다.

사진작가의 영혼과 화가의 손이 꿈틀거리고 등산객이 놀러오지 않는다면 대역죄가 될 것만 같은 비주얼이다. 그만큼 자연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점령 할 수 있다. 우리 집 앞에는 큰 산들이 줄 서 있다. 봄에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여름에는 파랗고 파란 나무들의 감동을, 가을에는 알록달록해진 나무들의 잎이 희열을, 겨울에는 하얀 눈에 뒤덮여 있지만 아이스크림보다도 부드러워 보이는 산의 가식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사계절에게 감사 할 수밖에 느끼기 싫어도 느끼게 만드는 신기한 주문이다, 자연은.

“가을에는 머니머니 해도 단풍구경” 하고 외치는 분들 꼭 계신다. 산에 올라가면서 느끼는 기분이 상쾌하고 좋다고 하신다. 이게 또 자연의 힘이다. 계곡물과 주위의 바위와 돌, 나무들과 풀 사이의 동물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 우리의 마음이 되어준다. “이러니 찾아가지 않고서야 배기는지원” 하는 분이 계실 것이다. 겨울은 쓸쓸하고 시럽지만 마냥 그렇지만도 않은가보다. 횡설수설하게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처럼 내년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려고 잠시 변신의 기적을 일으킨다.

얼어붙은 폭포수 잠드는 꽃과 나무, 내년을 기대하는 동물 들을 요리해 낼 수 있는 기적. 이 모든 것을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이러한 자연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면 어떨까? 우리들을 사랑해 줄 것이 없

어지는데 어떻게 살아갈지 아는가? 평생에 걸쳐 함께 있던 자연이 뒤돌아설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던가. 누구도 일어나게 하고 싶지 않고 피로워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우리는 불리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

자연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고 마음과 정신이 맑아지며 사랑이 넘치는 자연에게 압도당하는 삶이 우린 좋은 것이다. 우리 곁에서 늘 펼쳐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 앞으로도 쪽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새소리가 어우러진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선선한 바람이 불고 완벽히 단풍이 들면 향기로운 단풍의 향기에 취해 볼 것이다. 이 약속을, 약속을 담은 이 글을 사랑하는 자연에게 바친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차상(산문)

우리 집 거북이

김서영 인제중 3학년

우리 집엔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놈이 여간 골칫덩어리가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 갈아주고, 또 먹성은 얼마나 좋은지 아침저녁으로 먹이까지 가져다 바쳐야 하니 이놈의 거북이 팔자가 내 팔자보다 더 좋은 듯하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따, 고까짓거 그냥 풀어주자’ 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놈도 갑갑한 수조 안에서 나오니 좋고 나는 매주 물 갈아주지 않으니 좋고.

그리하여 온 가족이 날을 잡아 가까운 강으로 나섰다. 강에 이놈을 놓아주며 상심한 표정을 짓고 있으나 내심 좋아라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동안 정이 들었으니까 나는 이놈을 못 놓아주겠다.” 하시며 바지를 걷어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더니 물살을 헤치며 침범침범 들어가 이놈을 꺼내오셨다.

집에 돌아와 나는 상자안의 거북이를 쬐려보았다. ‘거북이 팔자가 상팔자지. 동생이 산 걸 내가 다 돌봐야 하노. 아버지 없을 때 내가 풀어줘야지’ 하며, 그날 저녁 어무이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알아봤는데 그 거북이 옐로우벨리터들틀이라고 외래종이라 카더라. 그 거북이 풀어 놓았으면 죄 없는 물고기 여럿 죽일 뻔 했구마.”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족제비 같이 생긴 뉴트리안 뉴트리아가 새알과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먹는다고 나왔었는데 우리 거북이도 그렇게 될 뻔 했구마.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다. 죄책감이었다. ‘내가 이 지역 생태계를 파괴할 뻔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지역 생태계를!’

그날 밤 뒤척이면서 생각했다. ‘거북이를 풀어주었다면 물고기를 잡아먹었을 테지 또 알을 낳아 지를 똑 닮은 거북이를 맹글고, 그 거북이가 알을 낳고 또 그 거북이가 알을 낳으면 물고기들은 살 수 없겠구나. 끔찍하다 오늘 일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을 테다. 다시는, 다시는 다짐 하고 또 다짐했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차하(운문)

언제부턴가...

이유빈 인제고 1학년

지난날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푸른 하늘을 덮쳐 구름이 되었고,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부턴가 공장의 연기가
구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거름을 줘야할 토지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먹고 있고,
길 사이마다 보이는 나무들과
꽃들이 슬퍼하며 아파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까 그냥
외면 해버린다.

도로에는 매연과 함께 자동차들이
복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마시며
살아간다.
흘러나오는 폐수를 마시며
익숙한 듯 살아간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환경에
익숙한 듯 살아가고 있고,
적응하고 있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차하(운문)

설레임

김예진 인제고 1학년

여름과 겨울사이 애매한 가을

나를 스치고 간 가을바람이
차갑게만 느껴진다.

나를 향해 내리쬐는 가을햇살이
따갑게만 느껴진다.

모처럼 느껴보는
진한 가을이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차하(산문)

독도를 지켜라

송주하 인제중 2학년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 리.’ 한번 들으면 흥얼거리고, 한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익숙한 이 노래를 한 번도 안 불러 보았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며 독도와 거리가 조금 좁혀진 듯 했다. 하지만 우리는 독도에 관한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본이 독도를 탐내고 있다는 것? 독도 밑에는 많은 천연자연이 있다는 것? 아마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아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일본이 다케시마라는 교과서를 내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어 널리 알리겠다고 발표한 게 벌써 몇 년 전이다. 우리는 어떻게 독도가 일본 땅이냐고 화만 낼 뿐 더 이상 아무 발전이 없다.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 이다. 자 여기서 문제 독도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 바로 10월 25일 이다.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독도에 대해 많이 알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유와 증거들은 무엇일까? 한국의 많은 고지도들이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도로 표기해 놓았고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며 내세우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채색되지 않은 채로 경외도 선 밖에 그려져 있어 독도를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로만 “독도는 우리 땅!” 외치지 말고 실천을 해가며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며 독도를 지킵시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차하(산문)

독도는 우리 땅

심다빈 인제중 2학년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이다. 독도는 독섬 이라고 하며 면적은 18만 7,554m²이다. 독도 최초 거주자는 최종덕 씨이다. 최종덕 씨는 1980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 하였을 때 독도가 무인도가 아닌 유인도임을 알리고자 1981년 10월 주민 등록을 독도로 옮겼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근거는 1785년 일본 하야시 시헤이가 편찬한 “삼국통람도설”이라는 책에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고 표기했다. 그리고 1877년 일본 정부가 독도는 한국 땅임을 사실상 선언하였다. 1946년에는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한국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다. 독도 시민 단체로는 반크, 독도 수호대, 독도 의병대, 독도 수로 국제연대, 독도 유인도화 국민 운동본부, 독도 역사 찾기 운동부, 푸른 울릉도 가꾸기 모임 등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나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독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두고 독도를 지키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겠다. 마지막으로 독도 노래를 가슴에 새겨야겠다. 독도는 우리 땅(생략)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장려(운문)

소중

최하은 인제고 1학년

사람에게 몸이 소중하듯
자연에게도 동식물은 소중하다

사람이 자기 것을 지키려 하듯
자연도 자기 것을 지키려 한다

자연은 우리 것을 뺏지 않는데
사람은 왜 자연 것을 뺏으려 하는가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
자연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

자연, 네가 내가 필요하듯이
나 역시 네가 필요하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장려(운문)

자연과의 약속

김예진 인제중 2학년

사람들은 자연과 약속을 한다
잔디를 밟지 말자
나무를 소중히 하자
쓰레기를 막 버리지 말자

그러나 그 약속은 쉽게 깨진다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풍을 가서 잔디를 돛자리로 덮고
비행기를 날린다며 나무를 낭비하고
나무로 만들어진 비행기는
잔디위에 버려진다.

사람들은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쓰레기를 막 버리지 말자고
자연과 약속 했지만
나무를 바닥에 버리면서
서로를 해치고 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으면서
왜 약속을 깨는 걸까?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장려(운문)

4개의 내린천

박유진 인제고 1학년

추위가 이사 가고
봄바람이 왔을 때
그대는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듯
사르르 녹아내려
내 마음까지 흘러간다

꽃의 요정들이 숨어버리고
심술 난 비구름이 왔을 때
그대는 배가 불러 넘실거리며
블랙홀처럼 모든 걸 끌어간다

빨래를 다한 구름은 날아가고
물감들이 찾아왔을 때
점잖은 나무들은 색옷을 입고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면
아름다운 색종이들을 신고
묵묵히 흘러간다

생명 빛이 잠들고
차가운 얼음여왕이 왔을 때
그녀의 냉기가 무서워
떨면서 숨어버리는 그대

고요한 그대의 숨결이 느껴져
나는 그대 위로 올라가보았지만
잠잠한 침묵에
뛰는 가슴을 움켜쥐고
조용히 돌아간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장려(운문)

우리 집

최수아 원통중 3학년

내가 사는 우리 집은
저기 저 나무들이 부딪혀
온몸으로 노래를 불러주는 집

저 산속에서 울긋불긋한 얼굴로
이리오라 손짓을 한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손짓을 한다

내가 사는 우리 집은
찬바람 서로 부둥켜안아
온기를 내어주는 집

저기 저 마당에서 시퍼런 얼굴로
이리오라 손짓을 한다
온기를 나누어주고 싶다면
손짓을 한다

나무가 하는 노래
내가 하는 노래와 다르다
바람이 머금은 온기
내가 머금은 온기와 다르다

나무의 노래와 다르고
바람의 온기와 다르나
같이 어울려 우리 집으로 간다

그 많은 나무들과
그 많은 바람을 머금고
집,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장려(산문)

어린 씨의 하루

이정민 인제고 2학년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 여자라야 한 명이 나와 내 친구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한 참을 고민하던 아이는 무언가를 떠올리고는 얼굴에 자그마한 미소를 띄곤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뽀족한 무언가를 들고서는 흠에 구멍을 뚫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멍을 다 뚫는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덜컥 겁이 나 온힘을 다해 나를 들어 올렸던 손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그 후 어린아이는 주위를 살피며 우왕좌왕 하더니, 아이의 눈에서 물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져서 결국에는 아이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소리쳤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나 봐요. 내 목소리를 들은 걸까 얼마 후에 어른이 아이에게 다가와 아이를 달래곤 나를 아이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더 이상 물을 흘리지 않았고, 아까 파두었던 구멍 안에 나를 내려놓았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막상 구멍에 들어가 보니 낯설고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아늑하고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빨리 자라라는 말과 함께 나를 흠으로 덮어주었어요. 사방이 흠으로 둘러싸이자 아까보다 더욱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새싹이 되고 꽃이 되어 다시 그 아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하루였어요.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장려(산문)

붉은 단풍과의 약속

유정민 인제중 3학년

며칠 전 학교에서 선생님께 그리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 막 단풍이 절정일 때 선생님께서는 올해 빨간색 단풍은 잘 보지 못하지 않았냐며 우리에게 물으셨다. 생각해보니 옛날과는 다르게 예쁜 빨간색 단풍을 올해는 잘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께서는 그 이유가 가뭄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나는 그 기상이변이 우리가 일으킨 환경오염에서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 “나 하나 쯤 이야!”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물을 낭비하는 등 잘못을 저지른다. 이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 점점 온도가 높아져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져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해결책인 나무를 심기기는 커녕 계속 잘라가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다. 그 일의 결과가 결국 우리들이 더욱 힘들어져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자연과 약속해야한다. 쓰레기를 길가에 함부로 버리지 말고 설거지 할 때 물을 아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사소한 환경보호운동을 홍보하고 실천하며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그 아름다운 색색의 단풍을 볼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 아름다운 단풍을 위해서 우리 우리가 정한 자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좋아하는 붉은 단풍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장려(산문)

함께 자라나는 우리

박순영 원통중 3학년

우리 집은 농사를 짓는다. 고추, 콩, 팥, 단호박, 고구마 등 밭이 아주 넓거나 많은 건 아니지만 다양한 작물을 농사짓고 있어서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난 내 힘을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어릴 적부터 조금 씩 농사를 도왔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5월 우리는 이맘 때 고구마를 심는다. 올해는 고구마가 너무나 먹고 싶다는 생각에 콩밭 옆 퇴기밭에 직접 고구마를 심었다. 호미로 비닐 위에 구멍을 뚫고 고구마 싹을 살포시 넣었다. 흑여싹이 뜨거워할까 정성스레 흙도 덮어주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나는 마침내 허리를 폈다. 쉴 새 없이 심다가 일어난 탓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가지런히 예쁘게 심어진 고구마 싹을 보고는 아픔이 싹사라지고 굉장히 뿌듯했다.

한 이틀이 지났을 쯤 봄 치곤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했을 싹이 혹시나 파헤쳐지진 않을까. 썩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비에 결국 조마조마하며 밭으로 가보았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푸르던 싹이 마구 파헤쳐져 생기 없이 축 처져 있었다. 올해에 처음으로 직접 심어 본 고구마인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 시들해진 고구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속상했다. 내 마음도 함께 시들해졌다.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손톱에 흙이 끼도록 간절히 보듬어 주었다.

며칠 뒤 다행히 비는 그쳤고 고구마 순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씩씩하게 줄기를 뻗어갔다. 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몇 주 뒤에는 콩을 심는다. 콩을 심기 위해서는 밭을 간다. 그런데 아빠가 밭을 간 날 조금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시길래 얼른 가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었다. 아빠가 글썽 트랙터로 밭을 갈다가 그만 실수로 고구마 밭까지 갈아버린 것이었다. 비닐이 찢겨지고 파헤쳐진 고구마는 상처투성이였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젠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에 나는 눈물을 보이려고 말했다... 온 정성으로 한번 살려낸 고구마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그저 죽지만 앓길 바라며 다시 한 번 더 푹푹 묻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차마 썩은 고구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 며칠 동안 밭에 가보지 않았다. 벌써 썩어버렸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오후 아빠가 밝은 목소리로 나를 부르시며 현관에 들어섰다. “순영아~ 고구마 안 죽었다~!!” 나는 깜짝 놀라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잠옷 바람으로 뛰어 나갔다. 호미로 들춰진 흙 아래로 고구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한 모습으로 내게 인사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부강지(아궁이) 앞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먹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나무 사이로 익어가는 고구마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 심은 고구마였기에 기대도 많았고 기대만큼 순순히 자라지 못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그 힘든 고난을 겪고서 잘 자라준 고구마가 너무나 대견했다. 어찌보면 고구마라는 게 우리 삶에서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봐 온 고구마의 일생은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의 생애보다 더 멋졌다. 비바람과 역경을 뚫고 잘 자라준 고구마처럼 나도 인생길에서 시련이 닥쳐와도 의연한 마음으로 꿋꿋하게 인내하여 더욱 견고한 삶을 살고 싶다. 작은 고구마 하나도 위대한 생명이며 똑같이 반복되는 삶에 지친 내 일상에 큰 깨달음을 준다. 모닥불 사이로 모락모락 맛있게 익어가는 고구마를 보며 내 마음도 한 층 더 달게 익어갔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장려(산문)

내린천 그를 보았다

이정윤 인제중 2학년

수업시간에 무심코 고개를 돌린 나는 쉽 없이 흘러가는 내린천을 보았다. 저 내린천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 속을 알 수만 있다면... 봄, 파릇파릇 솟아나는 새순들과 새색시 볼처럼 붉게 물들어 가는 꽃들을 보며 그는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여름에는 더욱 짙어진 녹색에 노란 배들을 하나하나 띄워가며 흘러간다. 그러나 곧 큰 어둠이 몰려오고 몸이 불어나는 일을 경험한다.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흙들은 더욱 그를 아프게 한다. 그러나 그는 그마저도 큰 품으로 품어가며 흐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은 그 마저도 가을을 타게 한다. 한 잎, 한 잎 떨어지는 낙엽은 그를 덮어주고, 높디높은 하늘은 그가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구름 한 점 없는 도화지를 펼쳐준다. 그렇게 쓸쓸했지만 감성에 깊게 물들었던 가을은 가고, 어느새 하이얀 세상이 왔다. 소복소복 쌓여가는 눈이 낙엽대신 나무를 덮어주고, 그의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그를 덮어오는 얼음은 그를 보호한다. 그렇게 그는 얼음 밑에서 고요히 흐르며 지나간 겨울을 보낸다. 다시 봄... 어디에선가 날아온 노란나비가 그의 몸을 간질인다. 그렇게 그는 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나는 어느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그를 바라본다.



제19회 인제서회 임서전

2015년 5월 4일(월)~31일(일)
만해마을 여초서예박물관 2층

제 5 장
임서전

출품자 명단



고일규	고현숙	권옥자	김옥남	김인국	김진도
나아은	문근태	박민자	사하정	서정옥	심종기
안금숙	우성옥	원연화	이명재	이상오	이지수
임규현	장예진	전숙희	전영옥	정진숙	조덕중
조석준	최옥매	최원영	최은희	한길용	한순자
한주림	홍연숙	황변주	서성호	김 향	

(이상 35명)

象開苗空端四心之相於是激之廣被極含類
 於三途遺訓遐宣導羣生於十地然而真教難仰
 莫能一其旨歸曲學易遵耶正於焉紛紜所以空有
 之論或習俗而是非大小之乘乍法時而隆替有玄奘
 法師者法門之領袖也勇懷貞敏早悟三空之心長
 契神情先苞四忍之行松風水月未足比其清華

仙露明珠詎能方其朗潤故以智通空累神測
 未形超六塵而迥出倭千古而無對凝心內境悲
 正怯之陵遲極慮玄門慨深文之訛謬思茲分條
 捫理廣彼前聞截偽續真開茲後學是以翹
 心淨土法遊西域乘危遠邁杖策孤征積雪晨
 飛途間失地驚砂夕起空外迷天萬乙未去松苑

紫宸殿區朝口物 戶寂昭宮紫袖垂
漫晚清座引朝衣儀香飄三殿去風轉
花霄少官淋景袖畫漏稀 閑高閣軟
天龍有燕也玉公 官中 每出物東省會
送東就集風池 乙未春分書

靑旻 김인국

魏魯郡太守張府君清頌之碑

諱猛龍字神回南陽白水人也
其氏揆介興源流所出故已備
詳世錄不復具載盛爵於帝皇
之始德星曜豫於朱

乙未麗月白河

白河 김진도

鍾巾悲盒譜光生像象景仰觀
 摩止所名曰司泠匠社地與果
 嶼柏堂近房景幽緜樂貳規畫
 荆于中辰成于笑又堂會季木
 厖置點綴成瓊其宜

乙未春分 清淵

清淵 사하정

司泠山水清淑尺多才類書畫
 止外占篆刻名者巾錢巾並趙
 悲盒鬚十餘尺灑扇餘均衍于
 來葉音耳學者至今司泠元盛
 同尺結社社太石勒

乙未春分 文岩

文岩 서정옥

平西將軍涼州刺史瑗之十世
 孫八世祖軌晉惠帝永中使持
 節安西將軍護羌校尉涼州刺
 史西平公七世祖素軌之第三
 子晉明帝太寧中臨

乙未仲陽淮堂

淮堂 심중기

西魯相平衍長史事下守長擅叩頭
 死罪敢言之司徒司空府王寅詔書
 為孔子廟置百石卒史一人掌主禮
 器選束冊以上經通一藝雜試能奉
 引先聖之禮為宗所歸者

乙未春古潭

古潭 우성욱

于 是 巾 君 輔 止 王 君 維 尚 吳 君
 戶 潛 葉 君 品 三 勝 啟 太 約 殆 擊
 同 志 人 社 者 曰 益 衆 于 中 庚 允
 月 開 社 修 禮 醴 訓 流 連 洵 難 棄
 盛 美 也 民 止 德 見 于

乙未仲春一松

一松 원영화

過 拾 遺 厲 清 荒 奉 魁 承 億 衙 獲 聽 春
 宣 聖 秋 若 霜 無 偏 謗 貞 雅 吹 方 寧 靜
 烝 庶 政 與 乾 通 輔 主 匡 君 禮 齊 常 咸
 紀 言 必 忠 義 匪 厥 章 厥

乙未孟夏三月日德溪

德溪 이명재

鳥之間淵玄万壑沉中岫巖千
 峯浮上弈葉清高煥乎篇牘矣
 周宣時仲詩人詠其孝友光緡
 姬能興是賴晉大夫張先春秋
 績漢初嘉耳聲趙景

乙未中和月古軒

古軒 임규현

前赤辭初七月之空將之度扁舟去辭江渚漁樵凌
 万頃水月空明一色星斗縱橫箫歌麗渺天地為
 主空世世風御樂甚秋少安得向取孟往何雄周
 布方少風与波相擊造物若之消文長能某詩章
 根藉侵舞鳥瓦康游鹿亥以魚愧着栢飽
 尊桂椽霧坐山蒼月白乙未表賢齋

賢齋 전영옥

斷鑿尤更
 絕通艱隨
 子石至於
 木門永平
 復中遭其
 猶元二有
 上則西辛
 縣夷詔書
 峻殘橋開
 余

乙未仲夏和谷

和谷 정진숙

曉色通板屋
 忽不可遊
 層軀孤雲去
 亂峯殘月收
 寒情透玉樹
 新夢過滄洲
 嵐起鍾聲急
 乾坤歷上浮

乙未春 銅表 海禪詩 昭月 崔銀姬

昭月 최은희

江頭綠暗紅稀燕交飛
 忽到當年行窻恨
 依灑清泪歎人事
 當與心違滿酌玉壺花
 露送春歸上西樓
 春暮一重山兩壺山
 遠天高烟杳寒相思
 楓葉丹菊蕊殘塞
 馬高飛人未還一
 簾風月闌長相思
 別去錦悵重暮霞
 敲屏風曲闌紅牙
 恨人何事

乙未春平林

案大木下雪中人見霜影一
 飛忙戶俯仰江山曾游
 忘後此行於
 飛步巨空年酒里
 遙年看裡思來為暮
 秋庭江邊新
 醉歸
 孤窗曉時者
 橫日在披
 龍腰扇不曾謀
 諸為羽士之
 為起
 中夢久矣便
 史得宦悄悄
 然而出南
 然而恐
 何翅風雨
 過
 跨鶴歸來
 未辟望中
 如夜已
 知歲在
 先標造
 言連
 舫
 余與美
 道神徐
 孟瑞
 嘗著
 注空
 游時
 宋安
 李書
 柳以
 齋

一珉 한길용

平林 한순자

帝水中使祖軌晉惠平將西軍
 張先春秋嘉其聲績漢初趙景
 王張耳浮沉秦漢之間終跨列
 士之賞世君其後也魏帝明初
 中西中郎將使持節

乙未仲春德香

大江東去浪淘盡千古英雄人物故壘西邊人道
 是三國周郎赤壁小壘當年赤壁鏖戰
 雪江年少一掃而空
 遙想公瑾當年小
 小
 雄姿英發羽扇綸巾談笑間檣櫓灰飛煙滅故壘
 神遊多情應笑我早生華髮人間如夢一尊還酹江
 月東坡志望初余七粒色如雲
 善多寫松枝姓也
 乙未春青谷

青谷 한주림

德香 홍연숙

祠用衆長吏備令加寵子孫敬恭
 祀傳于國極可許臣請魯廟家錢給
 大酒直他如故事臣雖臣夫愚戇誠
 惶誠恐頓首頓首死罪稽
 乙未仲夏 德園

德園 황변주

南陽岑勛撰朝議郎判尚書武
 部員外郎琅邪顏真卿書朝散
 大夫檢校尚書都官郎中東海
 徐浩題額粵妙法蓮華
 志園 高一圭

지원 고일규

너를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시원 시는 상을 이루나 다
 시 원한 것이 너를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시원 시는 상을 이루나 다
 들은 보충을 시는 상을 이루나 다 시 원한 것이 너를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들은 보충을 시는 상을 이루나 다 시 원한 것이 너를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들은 보충을 시는 상을 이루나 다 시 원한 것이 너를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들은 보충을 시는 상을 이루나 다 시 원한 것이 너를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들은 보충을 시는 상을 이루나 다 시 원한 것이 너를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들은 보충을 시는 상을 이루나 다 시 원한 것이 너를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들은 보충을 시는 상을 이루나 다 시 원한 것이 너를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서현 이상오

만수무강한 것이 너의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시원 시는 상을 이루나 다
 만수무강한 것이 너의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시원 시는 상을 이루나 다
 만수무강한 것이 너의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시원 시는 상을 이루나 다
 만수무강한 것이 너의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시원 시는 상을 이루나 다
 만수무강한 것이 너의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시원 시는 상을 이루나 다
 만수무강한 것이 너의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시원 시는 상을 이루나 다
 만수무강한 것이 너의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시원 시는 상을 이루나 다
 만수무강한 것이 너의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시원 시는 상을 이루나 다
 만수무강한 것이 너의 체으로 되니 내가 너의 체으로 될 보충을 시원 시는 상을 이루나 다

을 미년 화정 인화간 지구의 차
 쓰다 의림 안금숙

예림 안금숙

지도강사

우가월년가

편지가 또한 종의
일월월신비취가다
일월월도도목의고
생신은건초의처
제조추추단오의
일월년신월년월신년의
유니가라니월년월년
일월월월월월월월월
생월월생월월월월월
월월월월월월월월월
피지신은월년월년
것을월차라를니기
월년월월월월월월
월년월월월월월월
이신사월년월년
신년신년의보월년
위삭의독월월월
일월월월월월월
사시가월월월
주년이정월월
웃을꽃피월월월
년월월월월월월

우락

최지조환하여
일월월신비취가다
일월월도도목의고
생신은건초의처
제조추추단오의
일월년신월년월신년의
유니가라니월년월년
일월월월월월월월월
생월월생월월월월월
월월월월월월월월월
피지신은월년월년
것을월차라를니기
월년월월월월월월
월년월월월월월월
이신사월년월년
신년신년의보월년
위삭의독월월월
일월월월월월월
사시가월월월
주년이정월월
웃을꽃피월월월
년월월월월월월

정남잡산빈초기하

정남잡산빈초기하
정관의체제노키
출정승적장수며
출막질가노보기
오시은은은은은
출편을회백출편
라라호빈스라
수든노러이언라
공수생거서
비음의달년
철과조진희의
년수조물경의
우정물약장시정양
우진다야장라
우진이힌은은은
가을이이인은은
아오희술년의로
우수를면년
제의를제년
소풍을찾노지다
항련이이주승사
노정신로이시로
죽노로혜년
스노년은은은은
북은은은은은은
행년은은은은은
천만가지정장
니발을로노노
하스정반년
성인이지
지국출를바다
피강을을그
이글을
이름을
정남잡산빈초기하
정관의체제노키
출정승적장수며
출막질가노보기
오시은은은은은
출편을회백출편
라라호빈스라
수든노러이언라
공수생거서
비음의달년
철과조진희의
년수조물경의
우정물약장시정양
우진다야장라
우진이힌은은은
가을이이인은은
아오희술년의로
우수를면년
제의를제년
소풍을찾노지다
항련이이주승사
노정신로이시로
죽노로혜년
스노년은은은은
북은은은은은은
행년은은은은은
천만가지정장
니발을로노노
하스정반년
성인이지
지국출를바다
피강을을그
이글을
이름을

고운 김 향

■ 임원현황

직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원장	남덕우	010-4286-2738	인제군 인제읍 상동5리
부원장	이만철	010-2850-7005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내설악아파트 102동402호
부원장	김연화	010-9028-2747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5번길 5
이사	강순복	010-6382-4879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8 419-6
이사	김창연	010-9273-1528	인제군 북면 월하리
이사	김헌래	010-6388-865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30-15
이사	도기학	010-6371-8949	인제군 인제읍 상동1/5 33-1번지
이사	민종식	010-7242-2298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3반296
이사	박돈녀	010-7330-2720	인제군인제읍 인제로140번길48-12
이사	엄윤순	010-5373-1238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이사	이용호	010-5367-4354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내설악A 102-705
이사	이 협	010-5062-7141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금호아파트 202동 1108호
이사	정재환	011-308-4404	인제군 상남면 하남2리
이사	최광윤	010-2565-2752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77번길7-4
이사	최덕용	010-9114-7568	인제군 기린면 현5리 내린천APT 601호
이사	최은희	010-3179-4969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5반
이사	최태홍	010-3701-4984	인제군 인제읍 덕산로 8
이사	한의동	010-4048-0056	인제군 서화면 천도3리2반
이사	홍방래	010-3453-4414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759-1
이사	김재남	010-7200-7586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1-15
이사	목병후	010-5228-1309	인제군 기린면 서1리4반
이사	심영배	010-5361-6238	인제군 남면 부평리 2반
이사	유영미	010-9420-6009	인제군 남면 남전1리 설악로 1433번지
이사	정기우	010-7141-7969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내설악아파트 102동1006호
이사	정순자	010-8997-3412	인제군 상남면 상남4리 아홉사리길3011-6
이사	황인순	010-9167-3187	인제군 북면 원통리 금강로62 선영어린이집
감사	김성갑	010-8791-2730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5-13

■ 직원현황

직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무국장	백창현	033-461-6678	북면 원통로 177번길
과 장	이혜란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16번길
팀 장	이완기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30번길
관 리 인	백설애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0번길

원고모집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문화 제31집〉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주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전적인 애향심을 담은 옥고로 꾸며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부문

- 가. 발굴수기: 민속놀이, 문화재 소재
- 나. 시론 및 논단: 향토문화예술을 위한 시, 시조, 논문, 산문
- 다. 고향의 정취: 고향에 대한 정서와 애향심을 담은 이야기
- 라. 경로효친수기: 효행수기, 사례담
- 마. 테마, 기타: 옛사진, 관광사진, 옛문헌, 사료집, 전설 등
- 바. 그밖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인제문화 제31집에 게재하여 우송해 드립니다.

2. 모집기간

연중

3. 접수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하늘내린센터 4층 인제문화원
T: 033-461-6678, F: 033-461-0220, E-mail: inje6678@kccf.or.kr

인제문화

제30집

인쇄 2015년 12월

발행 2015년 12월

발행인 남덕우

편집인 백창현

편집자 정무교

발행처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100

하늘내린센터 4층

TEL 033-461-6678 FAX 033-461-0220

디자인·인쇄 도서출판 산책

이 책은 인제군청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비매품>

